# 기전 문화예술

## 특집 | 길 위에 文化가 있다

벽수아제, 하루방, 조너던아저씨, 또 넌 누구니?
길을 거닐다, 길에서 쉬다
환경미술, 길 위의 오아시스?
천년을 서서 하늘을 바라보고
만져봐! 느껴봐! 놀아봐!
알고나면 세상이 즐겁다

이천사년
오·유월

# 허수아비와 잠자리

허수아비는 잠자리를 내치지 않는다
허수아비는 익은 벼를 탐내는 새만 미워할 뿐이다
가을 황금빛 들판의 허수아비와 잠자리
그 풍성함을 함께 즐기는
여유로운 모습이 정겹기만 하다

2003년 8월 여주에서
전민조(본지 사진 자문위원)

#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 Information Literacy

글 | 표신중(본지 편집주간)

## 공공기관의 인터넷 게시판

관리자들은 숙제를 위한 자료요청을 자주 접하게 된다. 표현은 간곡하지만 정말 찾기 힘든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드문 것을 보면 열심히 노력하는 학생들은 아닌 것 같다. 운이 좋으면 참고자료까지 잘 정리된 답변을 얻을 수 있는, 가장 간편한 숙제 해결방법으로 여기는 영악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다. 최근 돈을 받고 숙제를 해주는 인터넷사이트가 성황이라는 보도가 있었는데 곤충채집, 못 지 않게 정보격차도 중요한 문제라 하여 평생학습 차원의 무료 컴퓨터교육이 많이 시행되고 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주고받거나 웹서핑을 할 줄 알게 되었다. 컴퓨터 사용능력이 곧 정보소양 능력이라면 우리나라의 학생, 국민들은 세계적으로도 최고 수준의 정보소양 능력을 지녔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러나 도대체 무엇을 위해 컴퓨터를 사용하는지, 거기에서 얻은 정보와 자료를 어떻게 평가하고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두지 않는다.

> 인포메이션 리터러시(Information Literacy)와 데이터베이스(Data Base) 이야기를 한 자리에서 늘어놓은 이유는 그 두 가지가 지식과 정보에 대한 우리사회의 일반적인 인식, '가치 있는 지식과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으면서 지식정보사회의 열매만을 기대하는 그런 미망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학공작물까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형 사이트에서부터 초등학생끼리 돈을 받고 숙제를 대신 해주는 동호회까지 다양하다고 한다. 예전 같으면 이런 일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정말 사소한 일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연히 학생들이 모두 똑 같은 홈페이지를 프린트해서 제출하는 것을 보고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아마도 검색엔진에서 검색되어 나오는 홈페이지를 순서대로 찾아보다가 제일 알맞은 홈페이지를 프린트하다 보니 그리 되었을 것이다.

몇 개의 홈페이지 내용을 편집해서 재구성한 학생은 반 전체에서 두 명밖에 없었다. 수업은 프린트해 온 홈페이지를 몇 학생이 돌려읽고 교사가 요점 정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교사는 아무런 문제도 느끼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런 과제물에 그런 수업이라니! 차라리 책을 읽고 내용을 요약정리시키는 것이 훨씬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오래 전 부터 정보소양 교육이 중요하다 하여 학교교육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거니와 최근에는 빈부격차

원래 정보소양 능력은 컴퓨터 사용 기술과 직접적 관계가 거의 없다. 정보소양 능력은 Information Literacy를 번역한 말로 정보처리 능력, 정보활용 능력 등으로 번역되기도 하는데 '정보와 자료를 확보하고 이를 이용하여 정확한 의사결정을 내리거나 사고(思考)를 심화시킬 수 있는 능력' (Laverty C.)을 말한다.

정보공학자인 Eisenberg와 Berkowitz는 이를 6가지 영역으로 세분화하기도 했는데 역시 컴퓨터를 이용해 정보를 얻는 기술 자체는 중요한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다.미국 위스콘신 주 정부의 한 조사보고서는 최근의 "지식정보 폭발사태" 속에서 '미래의 성공적인 학생, 근로자, 시민' 은 스스로 주도하는 "평생학습자"이며 그에 필요한 능력이 바로 Information Literacy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 보고서를 다루면서 '스스로 주도하는' 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서 쓴 컬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 필자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지식정보 폭발사태"라지만 사람들이 접하는 정보의 대부분은 출처도 없고 누가 그 가치를 입증할 방법도 없는 '근거가 의심스

"지식정보 폭발사태"라지만 사람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의 대부분은 출처도 없고 누가 그 가치를 증명해 주지도 않는 '근거가 의심스러운' 정보들일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과제를 발견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것, 그를 스스로의 관점에 따라 종합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 INFORMATION LITERACY

러운' 정보들이기 때문이다. 그런 상황에서 스스로의 필요에 따라 과제를 발견하고 정보를 획득하는 것, 그를 스스로의 관점에 따라 판단하고 종합할 수 있는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겠는가. 인터넷에 쌓여 가는 정보쓰레기 더미를 보면 그러한 주장에서 일말의 절박성마저 느끼게 된다.

## 정보와 지식

80년대 말 한 통신사에서 해외 데이터베이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적이 있다. 당시에는 이용료가 상당히 고가였기 때문에 단 한 항목의 자료만을 요청했는데 출력용지가 가득 찬 라면박스가 배달되어 오는 바람에 기겁을 했던 적이 있다. 또 해외 기관에 한국관련 영상물 몇 종의 목록을 요청했다가 세부 항목별로 요청하지 않으면 목록 자체를 만들 수 없다는 회신에 받고 상당히 망신스러웠던 기억도 있다. 그들이 축적한 정보와 자료의 양과 질에 대해 개념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생긴 일이었다.

기본적으로 서구사회는 정보통신기술이 발전하기 이전에도 방대한 정보와 자료를 축적해 왔다. 서적에서 작가, 연구자들의 메모에 이르기까지 엄청난 자료가 축적해 왔을 뿐 아니라 그를 분류하고 정리해 왔던 것이다. 데이터베이스는 그 사회에서 축적된 역사의 산물이지 결코 기술의 산물이 아닌 것이다. 심지어 데이터베이스 관리프로그램도 기술로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이전인 컴퓨터통신 시절 양대 통신사가 주도한 공공 데이터베이스 사업을 시작으로 상당 기간 다양한 명목의 데이터베이스 혹은 콘텐츠 구축사업 있었으며 적지 않은 비용이 투자되었다. 그런데 그 사업들이 묘하게 진행되었다.

사업의 기본적인 개념이 '이미 정리되어 존재하는 정보'를 단지 데이터베이스로 옮기고 사용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전산장비를 확충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예산에서 새로 자료를 조사하고 수집, 분류, 정리하는 비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어떤 분야이건 정보와 자료가 마땅히 축적된 것이 없거니와 기초적인 자료로 아직 정리되어 있는 것이 부족한 형편이니 1~2년 사이에 급조되었던 그런 데이터베이스들이 제대로 만들어졌을 리 없고, 어느 틈에 사라져버려 지금은 그런 것을 만들었었는지도 모르는 게 오히려 당연한 일일 것이다.

인포메이션 리터러시를 컴퓨터 사용기술과 동일시하는 일이나 프로그래머들이 데이터베이스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은 모두 우리 사회가 지식과 정보를 어떤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가치 있는 지식과 정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러한 것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 알지도 못하고 관심도 없다는 혹평이 과하지 않다고 느껴질 정도인 것이다. 그것은 아마도 "생각의 힘"에 대한 무시와 경멸에서 비롯된 것일 터이다. 홍성

표지설명
정수사(淨水寺) 꽃문

경기도 강화군 화도면 마니산(摩尼山) 기슭에 있는 사찰(선덕여왕 8년/638년)로 대웅보전의 꽃문이 유명하다. 이 불당(佛堂)은 맞배지붕이면서 앞쪽 1칸을 터 마루를 깔고 그 안쪽에 3,4,3짝의 문을 단 우람하고 무게감 있는 3칸 집이다. 양 옆의 문은 네모난 우물(井)살무늬로만 꾸며 가운데 어칸의 4짝 꽃문을 살렸다. 어칸 꽃문은 다른 곳과 달리 큼직한 단지 하나에다 그득 꽃을 꽂아올린 꽃꽂이 문이다. 가운데 2짝은 연꽃을, 양 옆짝은 모란꽃을 아로새겨 꽃아 멋을 부렸다. 빛빛깔의 봉오리와 활짝 핀 꽃송이, 푸르고 붉으며 노란 빛 무의의 백자(조선백자)꽃병들이 눈에 들어온다.

사진 | 관조스님

발행인 손학규
편집인 송태호
편집위원장 김보성
주간 표신중
편집기자 곽희석
편집자문 · 사진 전민조
발행처 경기문화재단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
전화 031-231-8521~2
팩스 031-231-8529
편집디자인 (주)FREEZMCR
AE 김상현
Designer 이해윤
제작 경기출판사
전화 031-231-5520~5

지희 경기문화재단은
도민의 문화예술 향수기회 증진과
문화예술의 창작진흥, 전통문화예술 활동지원,
문화예술 정책개발 및 교육 연수,
문화예술정보화사업, 국제문화교류센터운영,
기전문화재연구원 및 기전문화대학 운영 등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Contents

1 아름다운 것 | 허수아비와 잠자리 _ 전민조
2 문화칼럼 | 인포메이션 리터러시 (Information Literacy) _ 편집실
5 문화FOCUS | 문화예술위원회 출범과 지역 문화예술 _ 정광렬
9 기획특집 | 참여와 소통, 볼거리가 있는 축제 !
성공한 축제의 힘은 재미에서 나온다 _ 최유진
축제, 지역문화로 자리매김하기 _ 권순석
참여와 소통의 축제를 위하여 _ 이규석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의 축제를 꿈꾸며 _ 심한기
몸과 마음이 행복한 축제 _ 강원제
경기도 지역문화축제 찾아가기 _ 편집실
–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남양주 세계야외공연 축제
43 경기의 석조미술 | 사리탑과 석불 그리고 미륵불을 찾아-② _ 김한영
49 경기문화유산답사기 | 전곡리 구석기 문화유적 _ 강대욱
54 아름답게 사는 사람 | 악기장 최태진 _ 편집실
57 세계의 문화도시 | 터키-이스탄불 _ 유경희
63 세계의 지역문화체계 | 일본
지역문화예술진흥 체계와 문화재단 _ 추미경
69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를 움직이는 문화인맥(음악편) _ 오현규
작품 Review
통신원 소식
83 문화재단 리포트
재단백서, 무엇을 담았나 _ 황순주
백남준미술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_ 문형순
경기아트센터 MIX & MATCH展 _ 이영주
사이버도서관은 어떤 곳 _ 백선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지평 – 왜, 기전문화대학인가-② _ 김보성
뉴스라인
경기도의 문화행사
104 편집후기

# 문화예술위원회 출범과 지역 문화예술

글 | 정광렬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참여정부 출범이후 한국문예진흥원이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을 모색중이다. 최근에는 예술위원회로의 전환 자체에 대한 긍적적, 비판적인 시각이 다양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하지만 문화예술계의 대체적인 견해는 그동안 문화예술계의 의견이 상당부문 수렴됐고, 각 자치단체에 있는 유명무실 했던 문화예술위원회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는 분위기다. 지역에선 예술위원회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며, 또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예술위원회 추진위원회는 지역의 의견을 어떻게 듣고, 반영해 나가야 하는지 등은 지역문화예술계의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편집자 주)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모델이 각 국가별로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지만, 문화정책의 주도권이 중앙에서 지역으로, 그리고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되고 있는 것은 전세계적인 추세인 것은 분명하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고, 짧은 역사를 지닌 문화정책에서도 이러한 전통을 이어왔다. 문예진흥원은 '문화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1973년 설립된 기관으로서 문예진흥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기능을 담당하여 왔다.

정부부처가 아닌 독립적인 민간지원기구로서 문예진흥원의 설립근거는 이론적으로 독립적인 민간기구로서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문화적 예외를 인정하기 위한 것에서 찾을 수 있다. 즉, "지원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다"라는 표현처럼 문화예술활동은 창조성의 발현이므로 이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예술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하는 기구는 정부와의 독립적인 별도의 기구에서 담당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부의 개입에서 벗어나 정치적인 기준과 가치가 아닌 문화적, 예술적, 인본적 가치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선정하고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예술은 때로는 동시대의 가치나 이상 보다는 미래의 가치나 이상을 반영하기도 하므로 동시대의 지배적인 가치관으로는 받아들여지지도 않기도 하지만, 이러한 예술적인 창조성이 인류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문예진흥원의 성과에 대한 논란은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다. 근본적인 비판은 문예진흥원이 앞서 언급한 이론적 근거 위에서 설립되어 운영되어 온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문예진흥원의 설립은 경제발전에 따른 문화적 수요의 증대, 급속한 근대화에 따른 전통문화의 파괴에 따른 대책과 재원투자가 필요함에

도 문화재원을 확보하기가 어렵게 되자, 다른 수단(부과금)을 통하여 문화재원을 확보하려는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정부와의 역할한계와 정부의 개입에 대한 논란은 피할 수가 없게 되었고, 이것은 문예진흥원의 성과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비판은 재단법인이라는 문예진흥원의 운영구조에 따른 내재적인 문제이므로 사회의 변화에 따라 그 기능 및 구조가 변혁되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그러한 변혁의 일환으로서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기 위한 문예진흥법 개정작업이 추진중이다. 이러한 움직임은 참여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국정철학인 자율 · 참여 · 분권의 가치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 문화관광부에서 내세우고 있는 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 취지는 다음과 같은 3가지이다. 첫째, 사회의 다원화, 민주화 및 시민사회의 성장으로서 기존의 독임제 형태의 문예진흥원은 다원화된 사회의 가치를 반영하기 어려운 구조이며, 시민사회의 역량이 성숙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예술분야 진흥기구 운영원리와 위원회로서 예술지원기구는 효율성 보다는 공공성과 의사소통에 의한 결정을 우선가치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셋째, 문화의 다양성과 창조성의 네트워크로서의 위원회로서 다양성을 담아내는 제도적인 정책연대의 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자체에 대한 논란도 아직 상존하고,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제안한 문화예술위원회안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은 피할 수 없는 추세이고 문제는 가장 적합한 위원회 구성과 운영방식을 구성하고, 초기에 나타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하여 합리적인 운영의 틀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분권과 관련하여 향후 문화예술위원회의 역할과 구조에 대해 먼저 생각해 보고,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체계 변화에 대한 쟁점과 대처방안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문예진흥원이 위원회로 전환되면서도 여전히 현재의 문예진흥원의 기능을 그대로 가지고 간다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즉, 위원회 전환은 문예진흥원의 지배구조와 운영방식의 변화만이 아닌 문예진흥원의 기능에 대한 변화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화예술진흥업무는 지방자치법 등 현행 법령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되어 있고, 예외적으로 전국적인 차원에 해당되는 업무는 중앙정부에서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즉, 중앙정부는 중장기적인 계획의 수립이나, 지역의 균형발전, 전국적인 차원에 걸치는 사업, 국가의 정체성 제고를 위한 사업(국립시설 · 단체 · 문화외교 등) 등을 담당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문예진흥기금의 재원배분과 기능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원칙적으로 문예진흥기금에서 지역의 사업을 지원하고, 극히 일부사업을 지역에 이관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지역에서 지원하고, 지역에서 지원하기 어려운 사업만을 대상으로 문예진흥원에서 지원하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국립예술기금(NEA)이나 영국예술위원회(ACE)처럼 문예진흥원 전체 예산의 일정비율을 지자체로 이전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독립성과 자율성만을 강조하여 지원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원칙이 '보조에서 투자'로 전환된다면, 상호 동등한 계약과 협력에 의해서 지원영역을 달리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이며, 이런 사업은 성과주의에 기초한 다년간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 경우에 지역의 소규모 사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이전 대상사업과 금액(2003년 기준 총 3,810백만원으로 1개시도당 2억4천만원에서 3억원에 불과)을 획기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 지역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지만 문화재원은 지역의 여건상 한계가 있다. 중앙의 문예진흥기금 적립금은 2003년 6월 현재 4,902억원이 적립되어 있는 반면에, 지역의 문예진흥기금은 2002년 말 현재 2,572억원 정도밖에 조성이 되지 않았으며, 100억원이 넘는 시도는 수도권의 경기(1,162억원), 인천(302억원), 서울(299억원)과 전북(141억원) 등 4개 시도에 불과하다. 이것은 특히 경기도를 제외하면 1,410억원밖에 되지 않고, 수도권이 전체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중앙차원에서는 문화예술위원회의 위원 구성에 지역의 대표가 참여하도록 제도화하는 것과, 지역의 문예진흥위원회의 혁신과 능력의 배양이다. 현재 문화예술위원회 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았으나, 11명으로 제안된 위원회에 여건상 지역의 대표가 참여할 가능성은 적어 보이며, 참여한다고 하더라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분권화를 이룬 영국예술위원회처럼 지역 대표가 다수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화가 필요하며, 이런 지역의 대표는 지방문예진흥위원회간의 협의와 추천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자연히 지역 문예진흥위원회간의 협의체가 구성 운영될 것이고, 지역과 문화예술위원회 간의 네트워크와 협력적인 사업을 통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수도 있다. 우리나라의 문화예술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독립성과 자율성만을 강조하여 지원의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원칙이 '보조에서 투자'로 전환된다면, 상호 동등한 계약과 협력에 의해서 지원영역을 달리한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 것이며, 이런 사업은 성과주의에 기초한 다년간 사업에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문예진흥기금이 이전되거나 지역의 고유사무로서 정착될 때 문제가 되는 것은 지역 문예진흥위원회의 혁신과 능력에 관한 문제이다. 현재 지역의 문예진흥위원회는 대개 행정부지사가 위원장으로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다. 경기도의 경우처럼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있거나 서울, 인천 등처럼 문화재단을 설립하려고 하는 시도에서도 문예진흥위원회와 문화재단 간의 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기본적으로는 문예진흥원을 위원회로 전환하는 취지에 맞추어 지역의 문예진흥위원회도 민간주도의 위원회로 전환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번 문예진흥법 개정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현재 문예진흥원의 지원상의 문제점으로 거론되는 것이 특정 세력에 치우친 것이라면, 지역의 문예진흥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특정 인맥들에 치우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지역문예진흥위원회는 출범단계에서 문화예술계, 시민사회, 지역주민, 예술행정가 등 문화예술정책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들이 동등하게 참여할 수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구조를 바꾸는 것임에도, 정부와 문예진흥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위원회와 지방문예진흥위원회와의 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없이 단순히 문예진흥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있고, 위원에 구성될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야 한다. 지역의 특성상 공무원들도 참여는 할 수 있지만 미국의 NEA의 경우처럼 의결권을 부여하는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런 경우에도 문예진흥위원회와 시도, 그리고 문화재단이 있는 경우에는 문화재단과의 관계가 여전히 남게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보다 큰 틀에서 문화정책체계를 재구성하는 것이다.

즉, 현재의 문예진흥원에 국한된 문화예술위원회 전환에서 국가 차원에서 문화예술위원회를 구성하고, 문화관광부와 문예진흥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관계를 조정하고 결정하는 합의제 기구로서 운영하고(물론 지역대표가 다수 참여하여야 한다), 문예진흥원은 이 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위상을 부여하며, 지역에서도 동일한 원칙에 따라 문예진흥위원회를 구성하고 여건에 따라 문예진흥원회에서 직접 또는 문화재단에서 이를 수행하는 체계를 구상하여 볼 수 있다. 지역의 문화재단은 중앙의 문예진흥원과는 다른 기능, 즉 예를 들어 지원사업 이외에도 지역의 정체성과 전통문화 개발, 지역사회와 직접 연계된 각종 사업, 문화시설의 운영 등을 담당하는 기능을 가지게 되므로 문화재단을 위원회로 직접 전환하는 것은 기능과 효율성 면에서 좀 더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지역의 문예진흥위원회 운영 및 재원과 관련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것이, 시도의 예술 지원예산의 문예진흥위원회(문화재단) 이전 문제이다. 현재는 문예진흥위원회를 시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어 문제가 되지 않지만, 민간주도의 위원회로 전환될 경우 위원회 전환의 취지를 살리고 부족한 재원의 확대를 위하여 시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편성되어 있는 직접적인 예술지원예산의 이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서울문화재단 출범 준비에서 나타난 것처럼 위탁집행에 따른 자율성 침해의 우려에 따라 비판 의견도 있으나, 문화관광부의 일반회계 예산중 직접적인 예술지원 예산(약 165억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이전 집행하는 것과 같은 원칙에서 지역에서도 시도와 문예진흥위원회 간의 기능 및 재원배분이 필요로 할 것이다. 위탁 집행에 따른 자율성 침해 문제는 시도에서는 전체 또는 지원프로그램에 대한 성과평가만을 담당하도록 하고, 개별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는 원칙적으로 하지 않도록 하여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문예진흥원을 문화예술위원회로 전환하는 것은 지금까지 이루어져 왔던 우리나라 문화예술 지원정책의 구조를 바꾸는 것임에도, 정부와 문예진흥원,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문화예술위원회와 지방문예진흥위원회와의 관계 등에 대한 종합적인 접근이 없이 단순히 문예진흥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아쉬움이 있다. 특히 참여정부에서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과 관련된 사항의 반영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예진흥원의 위원회 전환은 지역과의 관계나 지역의 문화예술 지원체계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은 분명하며, 지역에서도 이에 대한 준비와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기획특집

# 참여와 소통, 볼거리가 있는 축제

- 성공한 축제의 함은 재미에서 나온다
- 축제, 지역문화로 자리매김 하기
- 참여와 소통의 축제를 위하여
-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의 축제를 꿈꾸며
- 몸과 마음이 행복한 축제
- 경기도 지역축제 찾아가기
  - 흙과 물 그리고 불이 빚는 축제 /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
  - 자연과 사람이 함께한 어울림의 축제 /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

이 번호의 특집은 축제의 계절에 맞추어 기획했다.
현재 전국에 모두 1천여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고,
그 가운데 많은 수의 축제가 가을에 집중돼 있다. 시의성도 고려했지만 실
상 관객들의 참여와 소통이라는 축제의 기본에서 동떨어진, 너무나도 형식
적인 행사가 많음도 부인할 수 없다. 지역축제가 의도된 관중 동원, 전시성,
등으로 비판 받은지 오래다. 이번 특집은 이런 기존 축제 행태에 대한 비판
적 접근보다는 새로운 시도의 필요성과 실제 현장에서 자생력을 얻어가고
있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 편집자 주

# 성공한 축제의 힘은 재미에서 나온다

글 | 최 유 진(공주영상정보대학 이벤트연출과 교수)

인류는 농업 생산성 향상의 전략으로 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주로 농사 일 사이사이에 집단으로 행해졌다. 축제의 프로그램은 종교적 제의 즉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참가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무를 즐기는 데서 출발하였다

1990년대 초 지방자치제가 재개된 후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지역축제가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기 시작한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정부에서는 '우리의 문화를 이벤트 관광 상품으로 개발함으로써 한국의 문화적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고, 관광소득 창출을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며, 우리 국민에게 다양한 여가활동의 기회를 부여하는데 목적을 두고 문화관광축제를 육성하겠다' 고 축제를 평가하고 우수 축제를 지정하고 있다.

축제란 인류가 특정 지역에 정착하고 농경 생활을 시작하면서 생겨난 제도이다. 이런 농경 생활은 18세기 산업 혁명이 시작할 때까지 약 1만년 동안 인간 생활을 지배했다. 농사란 자연, 즉 땅과 기후와 인간의 힘에 의해 이루어지는 업이다. 인류는 농업 생산성 향상의 전략으로 축제를 열었다. 축제는 주로 농사 일 사이사이에 집단으로 행해졌다. 축제의 프로그램은 종교적 제의, 즉 하늘에 제사를 지내고 참가한 사람들이 모여서 가무를 즐기는 데서 출발하였다.

축제 프로그램의 기원과 놀이는 오랜 시간에 걸쳐 농경 생활에 필수적으로 자리 잡았다. 집단의 반성, 집단 놀이에서 맛보는 일탈, 정보교환에서 얻게 되는 이익은 지역 주민 모두가 자발적으

축(祝) 기쁘게 빌어서 마음의 안락을 얻음)과 제(祭) 신령에게 음식 등을 바치며 예절을 표하고 반성함).(祝祭)축이나 제 모두가 획에 불示 가 들어있다. 신령을 본다는 뜻임. 영어의 FESTIVAL도 같은 뜻으로 쓰임

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축제에 참가토록 한다. 축제는 적극적으로 참여 할 때만 재미를 맛 볼 수 있다. 1900년 일제가 우리 나라를 식민지화하기 전까지 우리 나라의 축제 프로그램은 오랜 시간에 걸쳐 지역 주민에게 이익과 재미를 주도록 고안되었기에 특별한 홍보나 참가를 강요하지 않아도 축제 참가는 당연한 일이었다.

동원된 사람들 이외의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금지하던 일제치하와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축제의 집객, 홍보 메커니즘이 손상되어 이를 복원하는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지방자치제도가 재개된 지 겨우 10년이 된 지금 축제의 완성도나 재미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 듯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 올바른 방향으로 노력은 해야 한다고 본다.

## 지역 축제를 통한 관광 진흥과 경제 활성화

의례적인 단상 인사들의 연설, 맛없고 비싸고 비위생적인 팔도 먹거리 장터, 재미없는 아마추어들의 유사 예술 공연과 전시, 국적과 시대불명의 전통문화, 철지난 연예인들의 아우성, 해병 전우회의 전문적이지 못한 치안유지, 특색 없는 기념품, 창조적인 일을 하기에는 너무 업무량이 많은 관리, 지역 정서를 파악하지 못하는 축제 기획자 등등.. 해마다 가을이 되면 각 언론에서 지역 축제를 평가하는 말들이다.

이런 프로그램에 이런 사람들이 만드는 축제를 통해, 관광을 진흥하고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것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다.

지역 경제 활성화나 관광 진흥의 관점에서 축제를 논하는 것은 시기 상조이다.

그간의 무모한 개발과 지역주민의 도시 이동이 지역의 전통성과 특성을 복원하기 힘들게 만들어 버린 것이다. 파괴되어버린 전통성이나 지역성을 강조하는 것도 지역 축제를 재미없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한 우리가 지역축제를 농경시대의 관점에서 보고 있는 것은 아닌가 반성도 해야한다. 한반도 5000년 역사에 휘둘리지 말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다 보면 언젠가는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전통문화와의 접점을 찾을 수 있을 지 모른다. 그때까지는 구태여 무리하게 전통문화와의 접점을 찾으려는 노력 보다 현재 도출된 축제의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 낫다.

## 새로운 시작

축제는 단위 프로그램의 조합이기에 각 프로그램을 충실하게 꾸며 참가자들에게 재미를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그보다 선행할 일은 축제에 구경꾼이 아닌 적극적인 참가자가 되게 하는 메커니즘을 고안하고 실험하는 것이다. 원래 축제는 관광객이나 구경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축제를 여는 자신들을 위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주최자는 축제를 위해 경제적, 정신적으로 많은 희생과 봉사를 담당하는 집단들의 안녕과 이익을 먼저 고려하며 기획해야한다. 최근 10년 사이에 성공한 축제라고 자타가 인정하는 축제 중 본인이 3회 이상 방문한 춘천 국제 마임 축제, 함평 나비축제, 부산국제영화제를 살펴보면서 오늘날의 축제 메커니즘을 만드는 단초를 찾아보고자 한다.

## 춘천 국제 마임 축제

무대에서 무엇을 공연하든 관심 밖이다. 오로지 집단 인내력 테스트인 것이다. 동이 틀 때가 되면 참가자들은 함께 밤을 새운 집단의 동질감으로 모두가 환호를 한다. 그리고 내년에 또 보자고 악수를 하며 헤어진다. 아마 이것이 축제의 본성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일탈감, 신명성, 집단성, 현장성, 가장성이 있다.

나는 춘천마임축제 중 도깨비 난장에 매년 간다. 도깨비 난장은 축제 마지막 밤 10시경에 시작하여 새벽 동이 틀 무렵 끝이 난다. 도깨비 난장에서 공연되는 프로그램은 아주 가끔 새로운 것이 나오지만 다른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는 것들이다. 그런데도 해마다 가는 이유는 재미있기 때문이다. 난장이 시작하면 친구들을 만나는 즐거움으로, 야외 무대가 갖는 독특한 마력으로, 밤의 어둠과 술이라는 가장성으로, 집을 떠나왔다는 해방감으로 2시간 정도를 정신없이 보내게 된다. 새벽 1시가 지나면 야외 공연장은 춥고, 습기는 많아 견디기가 힘들다. 그렇지만 오랜만에 만나는 친구가 있고, 새벽까지는 버텨야 한다는 의지로 공연장을 떠나지 않는다. 이럴 지경이면 무대에서 무엇을 공연하든 관심 밖이다. 오로지 집단 인내력 테스트인 것이다. 동이 틀 때가 되면 참가자들은 함께 밤을 새운 집단의 동질감으로 모두가 환호를 한다. 그리고 내년에 또 보자고 악수를 하며 헤어진다. 아마 이것이 축제의 본성이 아닌가 한다. 여기에는 일탈감, 신명성, 집단성, 현장성, 가장성이 있다. 춘천 마임 축제 기획자들은 축제의 속성을 잘 알고 있는 듯 싶다. 참가자들에게 어떤 것도 강요하지 않는다. 만국기도 걸지 않았다. 치안 유지를 위한 완장들도 없다. 참가자들을 끌어 모으고 놀게 하는 메커니즘을 10여 년에 걸쳐서 구축해 놓았다. 프로그램 구성, 자원 봉사자 교육, 해외공연 초청, 주변 환경 정리, 기치물 설치 및 관리 등 무엇 하나 단기간동안 이루려 하지 않았다. 오랜 기간에 걸쳐 숙고하고 전문가들에게 자문하고 토론한 결과이다. 주최자들이 해마다 새로워지려는 노력과 참가자들을 배려한 발상의 결실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축제에 참가하고자 여러 곳에서 제 발로 찾아온다. 심지어는 해외에서 시간과 경비를 들여서 일부러 오는 단골 손님도 보았다. 이 축제를 통하여 고사 위기에 처해있던 우리 나라의 팬터마임은 활기를 찾았고 춘천은 세계적인 마임 예술의 메카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 함평 나비 축제

전라남도 함평군은 인구 4만 5천의 작은 지자체이다. 1999년부터 해마다 5월초에 나비축제가 열린다. 나는 2회 나비축제부터 함평을 방문했다. 당일치기 여행이라 많은 것을 보진 못했지만 솜씨 좋은 기획자, 엔터테인먼트 연출자, 그리고 마케터가 힘을 합쳐 차려 놓은 잔칫집 같다는 인상을 받고 돌아오곤 했다. 함평에서는 어디에다 카메라를 펴놔도 나비를 찍지 않을 수 없다. 전지역을 나비로 치장 해놓았다. 나비 철쭉동산, 나비 가로등, 나비 화단 등 함평에서는 나비 이외의 딴 생각을 하면 안 된다고 협박하는 듯했다. 축제장을 돌면서 감탄한 것이 하나둘이 아니다. 간이 화장실에 화장지가 매달려있다는 것부터 장내 방송을 외국어로도 한다

는 것, 시골 행사인데도 만국기와 해병 전우회를 볼 수 없다는 것, 팔도 먹거리 장터를 행사장 한쪽으로 멀리 띄워 배치한 동선, 공사 중 위험 표시를 함평군과 축제 앰블렘 깃발로 설치해 놓은 것 등은 다른 지역 축제와의 차별된 모습이다. 물론 나비와 자연을 소재로 한 프로그램은 신선하고 재미를 충분하게 맛보게 하였다. 또한 축제를 통해 '함평천지' 라는 농산물 브랜드와 '나르다' 라는 공산물 브랜드를 홍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순간 나는 놀라움으로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지역 주민의 동의와 참여를 유도하고, 국내는 물론 외신 기자들에게까지 보도자료를 여러차례 돌

축제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개최하였기 때문이며, 덕분에 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루어 가고 있다

린 치밀한 홍보전략과 여행사를 이용한 동원 계획은 국내 어떤 광고 대행사에서도 할 수 없는 기획이고 집행이다. 함평군의 이런 전략은 축제를 목적이 아닌 수단으로 개최하였기 때문이며, 덕분에 축제를 통하여 지역의 이미지도 구축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이루어 가고 있다. 함평군 홈페이지를 보면 2회부터 5회까지의 축제기획서와 평가서가 올라와 있다. 여기서 함평군은 1년 내내 축제준비를 하고 있고 끊임없는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도 타 지역 축제와 다른 점이다. 함평 군민들은 축제를 통하여 자신감과 미래에 대한 비전을 공유하는 것 같다.

## 부산 국제 영화제

1996년 아시아 최고 영화제를 목표로 출발한 부산 국제 영화제는 7년만에 아시아뿐만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영화제란 평을 들을 정도로 성공적인 축제로 컸다. 이러한 성공은 타 지역에 많은 영화제를 만드는 계기가 된다. 부산 영화제는 출발 단계에서부터 많은 영화인들에게 직간접 이익을 주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국내외 영화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였다. 3회부터 시작한 부산 프로 모션 플랜(PPP)은 한국과 아시아의 영화 프로젝트들이 투자자들과 제작자를 만나는 계기를 마련한 프로그램으로 새로운 아시아 영화시장을 만든 것이다. 이어 NDIF(New Director in Focus)를 통해 유망한 신인 영화인 발굴에도 기여하고, 아시아 지역 영화산업의 연계망 구축을 위한 AFIN(Asian Film Industry Network) 구축과 8회부터 시작될 새로운 아시아 영화 시장이 될 AFIC(Asian Film Industry Center)도 출범할 예정이다. 이렇게 다양한 영화제 프로그램을 고안하여 실천하므로 축제 자체가 역동적으로 움직이도록 하고 있다. 부산 영화제는 영화인들에게 다양한 제작 기회와 많은 시장을 열어주고 관객들에게는 각국의 우수 영화를 볼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부산을 대한민국 제2도시가 아닌 세계적인 영화도시로의 꿈을 꾸게 하고 부산 시민들도 부산 시민임에 자긍심을 갖게 하였다.

## 성공한 축제의 힘은 재미에서 나온다

위의 축제들은 팬터마임이, 나비가, 또는 영화가 각 축제의 핵심이다. 핵심 프로그램이 재미있어야 성공한 축제가 된다. 재미없고 예산만 낭비하는 축제들 대부분은 핵심 프로그램보다는 잡다하고 비전문적이고 무성의한 많은 프로그램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붕어가 없는 붕어빵 같은 축제가 된다. 고인돌 축제에는 고인돌이 없고, 과학 축제에는 과학이 없고, 역사 축제에는 역사가 없다. 다양하고 창의적인 핵심 프로그램을 유치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축제 책임자들이 해야하는 첫 번째 일이다.

유진규 춘천마임축제 운영위원장, 이석형 함평군수, 김동호 부산국제영화제 집행위원장은 각 축제의 책임자들이다. 엉터리 축제 기획자나 무성의하고 전문성 없는 대행사들에게 맡기지 않고 축제 책임자가 직접 기획하고 집행한 축제가 성공할 확률이 높다. 다시 말해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서는 축제 책임자가 정해져야 한다. 축제 책임자들은 해당 년도의 축제뿐만 아니라 차기, 차차기

성공한 축제들은 해당 분야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생산성 향상, 이익의 창출, 정보교환의 구체적 이득을 줌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 모두를 구경꾼이 아닌 몇 번씩 축제에 참가하는 적극적인 참가자로 만들고 있다

축제의 프로그램에 대하여도 섭외와 홍보를 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축제들은 축제를 며칠 남겨놓고 급조된 팀들이 축제를 치른다. 이들은 서로간에 손발을 맞출 시간도 갖지 못하고, 전년도 축제를 어렴풋이 기억하여 재현해 내는 정도에 그친다. 이들에게 창조적인 축제 프로그램을 기대하거나 충분한 사전 홍보를 기대하는 것은 애당초 무리가 있다. 이들은 단지 축제가 빨리 끝나 본인 고유의 업무에 복귀하기만 바랄 뿐이다. 성공한 축제들은 해당 분야의 다양하고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통해 참가자들의 생산성 향상, 이익의 창출, 정보교환의 구체적 이득을 줌으로, 관심 있는 사람들 모두를 구경꾼이 아닌 몇 번씩 축제에 참가하는 적극적인 참가자로 만들고 있다. 사실 춘천시민, 함평군민,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희생정신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만든 것이다. 이들을 자발적인 축제 생산자로 변신시키는 힘은 축제의 재미에 있다. 이들은 재미를 맛보았기 때문에 한 두 번 참가하다가 축제가 지역 이미지 향상과 경제 활성화에 큰 힘이 된다는 것도 자각하게되고 애향심과 자긍심을 갖게된다. 그리고 축제의 주인으로써 적극적인 홍보 등 스스로의 역할을 만들어 참여한다.

남포동 영화의 거리

# 축제! 지역문화로 자리매김하기

글 | 권순석 (춘천마임축제 사무국장)

섬곳누리

## 축제의 연례성이란 단발성 이벤트와는 달리 조금씩 변화 발전해 가는 생명력을 의미한다

8월 무더위도 이젠 한걸음 비켜서는 느낌이다. 입추(立秋)가 지나고 한가위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그도 그럴만하다. 지난여름 전국엔 많은 축제가 열렸다. 춘천인형극제, 남양주세계야외공연축제, 거창국제연극제 등의 공연예술축제를 비롯해 오징어축제, 각종 해변 축제와 같은 특산품, 계절형 축제에 이르기까지 수 십 여개의 크고 작은 축제들이 저마다의 특징과 차별점을 강조하며 관람객(관광객)을 유혹했다. 해외도 마찬가지로 7, 8월 바캉스 시즌을 맞아 다양한 축제들이 선보였으니 아마도 8월의 무더위가 축제의 열기에 의한 것이라면 필자의 지나친 상상력일까? 이렇게 많은 축제가 열리는 것은 축제를 통해 문화적 욕구를 해소 하고픈 인간의 근본적인 욕망의 발로가 아닐까 생각된다. 축제를 통한 소통의 문화형성에 핵심은 안정적 운영의 틀거리를 만드는 일이라 생각한다. 아직도 많은 축제들이 무엇을 보여 줄 것인가에 집착하고 있다. 물론 축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

축제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만족을 주기 위해서는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잘 보여주느냐는 얼마나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전문성을 담보해 내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는 컨텐츠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잘 보여주느냐는 얼마나 안정적인 조직운영과 전문성을 담보해 내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적절한 예가 될지 모르겠지만 건설공사의 사례를 살펴보면, 우선 다리 하나를 놓기 위해서도 사전에 도시발전 계획과 연관지어 고민을 하고 교통량 조사 등 사전 연구가 선행되며 지역민의 여론을 수렴하는 등 철저한 사전 단계를 거친다. 물론 이러한 전 과정에는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게 된다. 축제를 통한 지역의 문화를 만들어 내는데 과연 이러한 과정이 선행 되었는가 되물어 볼 필요가 있다. 적게는 수 천 만원에서 수 십 억원에 이르기까지 많은 예산을 들여 진행되는 축제가 철저한 사전계획 없이 진행된다면 이는 예산의 낭비요 전시행정이며 비전문적인 축제 운영이라는 비판을 모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올바른 축제의 틀거리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 이는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아닌 사전작업을 의미한다. 전문적인 운영을 담보해 낼 조직을 만드는 일, 지역민과의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는 소통의 채널을 확보 하는 일, 그리고 끊임없이 새롭고 발전적인 컨텐츠를 확보 할 수 있는 수급 시스템을 확보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전 작업은 단 시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으며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끊임없이 변화하고 수정 보완해 가야 하는 일이다. 축제의 가장 큰 특징인 연례성은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축제의 연례성이란 단발성 이벤트와는 달리 조금씩 변화 발전해 가는 생명력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올해로 15년째를 맞는 춘천마임축제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문화관광부 선정 우수문화 축제로 4년 연속 지정되고 강원도 축제평가 1위, 문화개혁 시민연대가 선정한 베스트축제 등에 선정되기 까지 참으로 많은 노력이 있었음이 사실이다. 마임이 처음부터 인지도가 높은 공연예술 장르도 아니었고 춘천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지도 않는 상황에서 지역민의 참여를 이끌어 내고 전국적으로 인정받기에는 10년 이상의 시간과 연인원 300여명의 자원봉사자들의 힘이 컸음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보이지 않는 축제의 소통구조 즉, 틀거리를 만드는 과정을 춘천마임 축제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 장기적인 안목에서 축제를 바라 보아야

축제란 단발성 이벤트와는 달리 한 지역의 문화로 자리매김하며 지역(민)과 함께 크고 호흡하며 자라나는 생명력 있는 유기체와 같다. 이러한 축제를 만드는데 장기적인 계획과 실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국내 대다수의 축제가 예술감독이나 사무국장들이 일, 이년 사이 바뀌는 현실은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나 발전방안을 실행하는 조직체를 구성하는데 절대적 한계를 드러낸다.

춘천마임축제의 경우 1994년 자원봉사제도를 처음 도입하여 2003년 현재 만 10년을 운영해 왔다. 어느 조직 어느 단체나 그렇듯 춘천마임축제의 자원봉사 제도 역시 많은 시행착오를 격어 왔음이 사실이다. 하지만 10년 정도의 기간을 가지고 매해 마다 수정 보완해 가며 조금씩 발전해 온 결과 현재는 많은 다른 축제의 모델이 되고 있다. 춘천마임축제의 자원봉사제도는 다른 축제와

사람을 모으고 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단체로 만드는 것은 절대로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당장은 축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안목과 실천해 나갈 의지가 필요하다

달리 특이한 점이 몇 가지 있다. 춘천이라는 지리적, 인구 통계학적인 특징으로 인해 자원봉사에 참여하는 대다수가 대학생들로 구성된다는 점이 그것인데 대학의 특성상 2~3년을 주기로 자원봉사자가 바뀌고 있으며 축제의 인력관리 프로그램도 그 주기를 따르고 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이 축제 주최 측의 일방적인 프로그램이 아니라 자원봉사를 해 왔던 사람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발전한다는 것이다. 실례로 CIA(Chuncheon Interpretor's Association)라는 자원봉사 조직이 있다. 1995년 만들어져 춘천시통역자협의회(CIA)라 불리는 이 단체는 94년 춘천마임축제 통역 자원봉사에 참여한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것으로 춘천마임축제, 춘천인형극제, 춘천국제연극제 등 춘천의 축제와 문화, 관광정보들을 수집하여 영어, 일어, 불어 등으로 번역하고 자료화하며 축제 기간에는 통역, 의전, 무대요원 등 전 분야에 걸쳐 많은 일들을 수행하고 있다. 이들은 춘천의 문화예술축제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축제 측과의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축제측은 이들을 위해 회원모집공고를 내주거나 행사시 학교 측과 연계하여 수업할 애요청을 해주는 등 지원을 하며 축제와 자원봉사단체간의 상생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이들은 춘천의 주요 축제에서 사무국 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춘천시통역자협의회의 사무국장이 각 축제의 국제부 팀장을 맡고 있으며 자체 교육을 통해 신입회원들에게 축제에 대한 이해를 도우며 여러 자료들을 축적하고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중요한 것은 이들 역시 처음부터 전문 인력은 아니었다는 점이다. 처음엔 단순한 외국어 통역으로 출발해서 지금은 축제행정 뿐 아니라 전문 영역인 무대업무까지도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은 자체 교육을 통해 후배들에게 전수되고 있다. 국내 모든 축제가 인력과 예산 등 재원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현실에서 이러한 자원봉사 단체는 실질적인 큰 힘이 되고 있음이 사실이다. 사람을 모으고 한 지역에서 자생하는 단체로 만드는 것은 절대로 단시간에 만들어지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당장은 축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더라도 과감히 투자할 수 있는 안목과 실천해 나갈 의지가 필요하다. 이러한 의지와 안목은 오랜 경험과 시행착오를 통해 만들어 진다. 축제 조직의 변하지 않는 안정된 체제는 이러한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전문 인력의 확보 및 관리 운영이 장기적인 발전의 원동력임을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2003 Chuncheon International Mime Festival

기념품판매

## 교류와 협력을 통한 소통 구조의 확보

축제를 통한 소통은 근본적으로 참여자들의 즐거움 속에 존재한다. 현대의 축제들이 서로 단절된 모습을 지양하고 축제 간, 혹은 지역간 소통의 채널들을 확보해 간다면 축제의 본질을 찾는데 한결 가까이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재정의 많은 부분을 행정으로부터 지원받는 각 축제들로서는 어찌 보면 서로가 경쟁관계에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타 축제보다 조금 더 많은 관람객이 오고 언론에 좀더 노출되어 축제의 효용가치를 높이려는 이유도 이것에 일부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위험한 발상으로 축제란 사람간의 소통을 전재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볼 때 매우 이율배반적인 모습이다. 오히려 축제간 적극적인 교류와 협력은 각 축제들에게 시너지 효과를 가져 오게 한다. 춘천에는 10여개의 크고 작은 축제가 연중 펼쳐지게 된다. 이

각각의 축제가 각출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축제들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축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중 축제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 2003 춘천마임축제

들 여러 축제 중 대외적으로 춘천을 문화예술의 도시로 인식 시키고 있는 축제가 바로 춘천마임축제, 춘천인형극제, 춘천국제연극제이다. 공교롭게도 이들 3개 축제는 모두 공연예술축제이다. 또한 이들 축제 모두 다른 축제들과 마찬가지로 인력과 예산확보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1998년 시작되어 5회째를 맞은 '축제 기획자 워크숍' 프로그램은 적은 예산과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며 전문 인력을 배출해 내자는 취지로 만들어진 교육 프로그램이다. 당시는 춘천마임축제만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기획 되었지만 작년부터는 춘천의 대표적 공연예술축제인 춘천인형극제, 춘천국제연극제와 공동으로 주최하고 있다. 프로그램은 크게 교육 프로그램과 인턴쉽 과정으로 나누어진다. 공연예술축제라는 테마로 교육을 받은 교육생들은 각 축제에서 인턴으로 활동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받게 된다. 각각의 축제가 각출한 적은 예산을 가지고 축제들은 전문 인력을 확보하고 축제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들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연중 축제에서 근무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예산절감의 효과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축제 기획자 워크숍 프로그램은 단순히 축제의 인력확보라는 측면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지역에서 연중 일할 수 있는 인력을 배출하여 지역문화예술축제 인프라 구축에 큰 힘이 되고 있으며 나아가 이러한 인력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축제간의 활발한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 질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각 축제들이 모여 춘천의 공연예술축제를 테마로 공동 홍보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 공존을 전제로 교류하며, 나눔과 소통이라는 축제의 진정한 의미를 찾아가는 시발점을 찾은 셈이다.

춘천마임축제는 비록 1년에 5일간 열리지만 연중 마임의 집이라는 마임 전용공간에서 춘천시민들과 마임은 늘 가까이 존재한다. 축제가 끝나도 누구나 마임의 집을 통해 마임공연을 만날 수 있으며 춘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마임을 춘천의 문화로 느끼며 자부심도 가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축제를 살려가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되고 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제를 한시적인 이벤트나 관광자원으로 인식하지 말고 지역의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 지역민과의 유대감 형성 – 축제만으론 부족하다.

1년 365일 중 축제가 열리는 기간은 2, 3일에서 길어야 한달 정도이다. 과연 몇 일간의 축제를 연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 그 지역의 문화로 뿌리내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인가? '춘천을 마임의 도시로', '마임은 춘천의 마음입니다' 이 두 슬로건은 춘천마임축제가 지난 10년 동안 캠페인성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표방한 문구이다.

95년부터 '춘천을 마임의 도시로'를 표방하며 지역 주민들에게 마임을 좀 더 친숙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다. 이를 위해 거리공연 방문공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친숙한 마임을 만들게 된다. 2001년, 축제를 정비하며 이 슬로건이 '마임은 춘천의 마음입니다'로 변화하게 된다. 이는 이미 마임이 춘천의 문화로 정착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연중 춘천을 찾으면 마임 공연과 워크숍을 접할 수 있으며 춘천의 시민들은 이들 외부의 손님들에게 우리의(춘천) 문화인 마임을 잘 보여 주어야 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별것 아닌 이 두 슬로건으로 인해 지역의 마임에 대한 관심도는 달라지게 되었으며 춘천뿐 아니라 외지에서도 마임의 인지도는 이전에 비해 월등히 높아지게 되었다. 슬로건이 말로서 끝나지 않도록 마임의 집을 만들어 연중 상설공연과 워크숍을 진행하고 끊임없이 지역민에게 다가가려는 노력을 해 왔음은 물론이다. 춘천마임축제는 비록 1년에 5일간 열리지만 연중 마임의 집이라는 마임 전용공간에서 춘천시민들과 마임은 늘 가까이 존재한다. 축제가 끝나도 누구나 마임의 집을 통해 마임공연을 만날 수 있으며 춘천 시민들은 자연스럽게 마임을 춘천의 문화로 느끼며 자부심도 가지게 된다. 이것이 바로 축제를 살려가는 또 다른 원동력이 되고 있다. 춘천인형극제와 춘천인형극장 역시 같은 경우라 할 수 있다.

국제 연극제를 열지만 일년 내내 축제기간을 제외하곤 제대로 된 연극 한편 볼 수가 없다면 이를 지역의 문화로 받아드릴 만한 사람이 과연 존재할 것인가. 축제의 인력들은 축제와 연관된 프로그램을 연중 운영하며 지역과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음년도 축제를 준비해야한다. 축제는 단 시간에 끝나지만 그 축제를 통한 문화는 어떤 식으로든 지역에 연중 존재해야 한다. 공연예술의 경우라면 해당 장르의 극장을 활성화 시키는 것 등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기본이 튼튼한 축제가 생명력을 가진다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만족하는 축제를 만드는 일이란 생각만큼 쉬운 문제가 아니다. 끊임없이 고민하고 시행착오를 겪으며 수정 보완해 나가는 일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축제를 한시적인 이벤트나 관광자원으로 인식하지 말고 지역의 문화로 자리매김 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안목을 가져야 한다는 점이다. 문화는 단시간 내에 형성되지 않는다.

기본이 튼실한 축제가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남음을 인식하고, 초기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하나 기본이 되는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전문인력을 키워내는 일, 축제 간 혹은 지역 간 유대감을 형성하는 일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기본 작업에는 축제만이 나서서만은 해결되지 않는다.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문화투자 의지와 지역민의 문화를 사랑하는 마음이 모두 하나가 되어야 한다.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의 희생과 노력은 물론이다. 춘향

# 참여와 소통의 축제를 위하여

글 | 이규석 (서울 프린지 페스티벌 집행위원장)

"이 아름다운 마을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마을에서 샬롱 거리극 축제를 열게 된 것에 감사드립니다. 올 한해 축제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년 축제를 기대합시다" 그것으로 작은 소도시와 마을 주민, 예술가, 관광객들과 순간 혼연일체가 되는 어울림의 축제를 엿보게 되는 풍경이다

## 풍경 하나 – 어울림의 난장

프랑스 남부에 샬롱charlon이라는 작은 소도시가 있다. 이 소도시의 주민들은 해바라기 농사를 생업으로 하고 있다. 마을 곳곳에 펼쳐져 있는 해바라기의 거대한 노란빛은 한마디로 장관이다. 하지만 정작 샬롱이라는 이 작은 마을을 유명하게 만들어준 것은 해바라기가 아니라, 매년 7월에 펼쳐지는 샬롱 거리극 축제이다. 해마다 7월이면, 세계 도처에서 야외극, 거리극 단체들이 줄지어 샬롱을 찾아오고 이 작은 소도시 곳곳에서는 크고 작은 거리공연들이 펼쳐진다. 샬롱 거리극 축제는 올리악 거리극 축제와 더불어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거리극 축제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 샬롱 거리극 축제의 마지막 날이 되면 이 마을 출신의 배우 한명이 동네 여기저기를 아침부터 돌아다니며 확성기로 사람들을 마을의 한 다리로 불러 모은다. 마치 마술피리에 홀린 사람들처럼 이 배우의 뒤로 끝없는 행렬이 만들어지고, 마을 주민들을 위시해 공연에 참여하는 예술가들과 관광객들까지 이 대열에 합세한다. 다리에 도착한 마을 주민들과 그 일행들은 배우의 안내에 따라 다리에 함께 드러눕는다. 한여름 땡볕도 아랑곳하지 않고 다리에 드러누은 주민들에게 배우는 몇 마디의 말을 던진다. "이 아름다운 마을에 태어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름다운 마을에서 샬롱 거리극 축제를 열게 된 것에 감사 드립니다. 올 한해 축제도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설레이는 마음으로 내년 축제를 기대합시다" 정확하게 복원할 수는 없지만, 배우가 던지는 말은 대강 이런 내용들이다. 배우의 이야기에 따라, 마을 주민들은 다리에 드러누은 채로 끊임없이 박수를 친다. 그리고, 그 광경을 지켜보던 관광객들도 함께 그 마을 주민들과 아름다운 샬롱 거리극 축제에 함께 박수를 보낸다. 작은 소도시와 마을 주민, 예술가, 관광객들과 순간 혼연일체가 되는 어울림의 축제를 엿보게 되는 풍경이다.

축제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잠시라도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일탈의 경험을 충족시켜 주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탈의 경험은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독특한 축제의 양식으로 재현시켜줌으로서 가능해지는 일이다

## 풍경 둘 – 1천여개가 넘는 한국 지역축제의 엇비슷한 모습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한국에서 연간 개최되고 있는 축제의 수는 무려 1천여개를 헤아리게 되었다. 하지만, 정작 1천여개를 헤아리는 한국의 지역축제들은 판에 박은 듯이 비슷한 풍경들을 연출하고 있다. "○○○ 아가씨 선발대회, ○○○ 노래자랑, 팔도 먹거리...." 어느 지역의 축제를 방문하건, 위에 열거한 프로그램들은 공통 필수사항이다. 축제의 감동은 간데없이 사라지고, 이벤트성 요란함만 난무하는 풍경이다. 축제를 찾아온 관객들과 지역 주민들은 이 요란한 이벤트 어딘가에 소품처럼 자리잡고 있다. 이러한 풍경 어디에서도 지역 주민들이 참여와 소통을 위한 가능성은 찾아보기 어렵다. 성공적인 지역축제들의 가장 중요한 존재의의는 지역경제의 파급효과도 아니고, 지방 자치정부의 문화적 치적을 기리는 것도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주민들의 정서적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그렇게 함으로서 지역구성원들의 공동체적 의식을 함양시켜주는 것이다. 축제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은 잠시라도 고단한 일상에서 벗어나고 싶은 일탈의 경험을 충족시켜주는 데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일탈의 경험은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의 사회적, 문화적 특성을 독특한 축제의 양식으로 재현시켜줌으로서 가능해지는 일이다. 축제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참여를 바탕으로, 그들과 소통해야만 하는 이유는 여기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렇게 함으로서 지역축제는 무엇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환영받고 그들의 고단한 일상을 위무해줄 수 있는 흥겨운 난장이 될 수 있어야만, 축제를 방문하는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해줄 수 있을 것이다.

## 공동체적 의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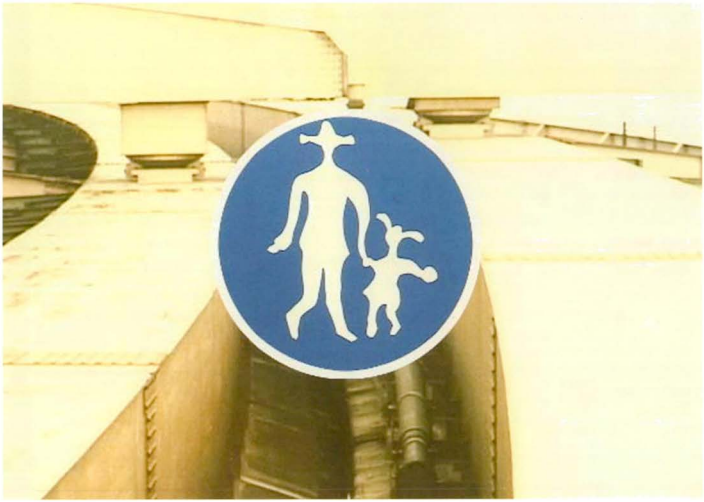
## 풍경 셋 – 상생과 어울림의 축제미학

필자 역시 축제를 기획하고 운영하는 입장에서, 가끔 이런 우스갯소리를 하곤 한다. "마마, 호환보다 더 무서운 것이 민원이다." 축제를 운영하다보면, 지역 구성원들 99%의 찬성보다 1%의 민원이 커다란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 특히, 야외에서 진행되는 축제 프로그램들은 무방비상태로 민원에 노출되기 마련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은 무엇보다 지역 사회구성원들의 동의를 얻어나가는 한편 그들과 정서적으로 함께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축제는 결국 그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없다. 하나의 축제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정서적 동의를 얻어내고, 그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상생과 어울림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필요하다

# 상생과 어울림

호흡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 그렇지 못했을 경우, 축제는 필연적으로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질타를 피해나갈 수 없으며 그것은 곧 "마마, 호환보다 무서운" 민원으로 이어지게 된다. 지역사회 구성원들로부터 환영받지 못하는 축제는 결국 그 지역사회에 뿌리내릴 수 없다. 하나의 축제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정서적 동의를 얻어내고, 그들과 혼연일체가 되어 상생과 어울림의 축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의 투자가 필요하다. 또 그러한 시간과 비용의 투자에 대해 성실한 고민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그 축제는 결코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없을 것이다. 개인적인 경험을 토대로 제안하자면, 이러한 작업에는 무엇보다 다음의 2가지 요소가 축제의 준비과정에서 충분히 고민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독창적인 축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이러한 축제 프로그램들은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전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는 성격이면 더 좋을 것이다. 아무리 축제의 컨셉과 성격이 특정한 세대와 계층을 겨냥하고 있더라도, 그 축제 프로그램의 어느 한켠에는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되어야 한다. 물론 이러한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데에 보다 많은 시간과 고민을 투자해야 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지난 1999년 독립예술제라는 축제를 기획하면서, 우연히 축제의 기간이 추석과 겹쳐지는 관계로 야외에서 "한가위 레이브 파티"를 기획했던 적이 있다. 레이브 파티, 테크노하면 흔히 젊은 세대들만을 위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겠으나, 당시에 이 프로그램을 기획하면서 입장료대신 집에서 장만한 추석 음식을 가져오라고 홍보를 했었다. 그리고, 관객들이 입장료 대신 가져온 추석음식을 함께 나눠 먹으며 레이브 파티를 진행했었다. 성료를 마치고 "한가위 레이브 파티"를 찾아온 다수의 가족단위 관객들과 야외에서 보름달을 지켜보며, 또 각자 준비해온 추석음식을 나눠 먹으며 흥겨운 레이브 파티가 펼쳐졌었다.

둘째, 지역사회 구성원들을 자원봉사자로 적극적으로 참여시켜야 한다. 어느 축제를 막론하고, 축제가 준비되고 진행되는 동안에는 일시에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의 자발적 참여는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한다. 축제 장소안내, 홍보, 숙박시설 제공, 행정지원 등 축제 자원봉사자들의 역할은 축제의 모세혈관과 같은 것이다. 그리고, 대다수의 축제에 있어 자원봉사자의 역할은 축제를 방문하는 외부 관람객들에게 축제의 각종 정보를 친절하게 안내해 줌으로서 축제에 대한 호감을 형성하고 누적적으로 축제의 인지도를 향상시키는데 있다. 축제가 개최되는 지역에 대해서 지역구성원들만큼 훤히 알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축제의 준비과정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곧 참여와 소통,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축제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라 생각한다

고 있는 사람들은 없다. 그리고, 이들에게 지역축제에 대한 타당성을 이해시키고 그들이 자발적으로 축제의 손과 발이 되어준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은 없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앞서 제시한 것처럼 축제를 만들어내는 과정자체가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일상적 욕구를 충족시켜 줌으로서 그들의 정서적 동의를 얻어나가는 과정이어야 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축제를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일시적인 이벤트의 조직과정이 아니라 좀더 긴 시간을 들여 지역사회와 축제가 동화되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 풍경 넷 – 참여와 소통의 축제를 위하여

참여와 소통, 볼거리가 있는 축제를 만드는 과정은 절대 말처럼 쉬운 일은 아닐 것이다. 재차 강조하자면, 이러한 참여와 소통의 축제를 만드는 것은 보다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야만 가능해지는 일이다. 참여와 소통의 축제만들기를 위한 2가지 제언은 축제를 만드는 사람들이 함께 고민해보아야 할 무수히 많은 것들중의 하나일 뿐이다. 그리고, 그것은 기술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으로 지역사회와 축제가 어떻게 정서적으로 연계될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서 하나의 지역축제가 무엇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의 고단한 일상을 위로해주고, 어울림과 신명의 장르로 거듭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정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축제의 준비과정이 마련된다면, 그것이 곧 참여와 소통, 그리고 다양한 볼거리가 있는 축제로 가는 지름길일 것이라 생각한다.

# 세상을 변화시키는 아이들의 축제를 꿈꾸며

글 | 심한기(품 청소년 문화공동체)

## 축제에 대한 짤막한 단상들

S# 단상 1

[ 축제 한 달 전부터 방송에서는 화려한 스팟 광고가 오르고 거리를 점령한 대형 현수막과 포스터들이 눈에 밟힌다. 이름만 들어도 아이들의 가슴을 떨리게 만드는 출연자들과 막강한 협찬사들의 목록.....드디어 축제는 막이 오르고 자신들만의 가수에 따라 나뉘어진 아이들의 함성은 끊어질 줄 모른다. ]

과거 생활공동체 속에서 질펀하게 벌려왔던 축제와는 다르게 지금 우리가 떠올리는 축제에 대한 일반적인 단상은 보통의 경우 화려한 이벤트들이 먼저 떠오를 것이다. 이는 크고 화려한 상업적 축제에 길들여진 단상일 수도 있다. 평소 허리우드식 영화에 익숙한 사람들이 가끔 접하는 유럽영화를 즐기지 못하는 경우처럼 축제에 대한 우리의 단상들은 언제가 부터 단순하고, 쉽고, 화려한 것에만 길들여져 가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얼마전 청소년 축제와 관련한 교육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축제하면 생각나는 단어들을 떠올려보라 했더니 수십 가지의 단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 설레임, 환호, 조명과 무대, 박수, 웃음, 어깨동무, 허전함, 사랑, 지루함, 상품, 어깨동무, 추억, 눈물, 땀, 기억, 충격, 이질감, 동감, 시끄러움, 춤, 노래, 상상, 평화, 하나됨, 외침..... ] 이 많은 단어들의 의미들 가만히 생각해보며 축제가 가지고 있는 매력을

서로 다른 사고와 행동이 충돌하고,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가치와 가능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즐거움을 교환할 수 있는 청소년축제가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들이 모아져 자신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 · ·

다시 한번 느껴본다.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많은 단어들을 담아낼 수 있는 것이 또 있을까? 아직도 '대안없음'을 걱정하는 청소년들의 생활과 문화 속에 축제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할 수는 없을까?

S# 단상 2

[ 낮 익은 동네 마당 한 구석에선 아침부터 아이들의 움직임이 부산하다. 빌려온 책상과 의자 위에는 틈틈이 준비해온 전시물들이 올려지고, 번뜩이는 아이디어로 모아진 놀이마당 코너들은 좁은 공간을 가득 메워간다. 점수보다는 즐거움으로 뛰어다니는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이마에 땀방울이 흐를 무렵 엉성한 무대와 조명이 세워진다. 천방지축 아이들의 리허설이 끝나기도 전 벌써 모여든 동네 아이들과 지나던 어른들은 어설픈 아이들의 몸짓에 박수를 보내고 있다. ]

이제 우리의 단상들을 바꿔야 할 때가 왔다. 화려함도 좋지만 작고 소박한 축제에도 박수를 보내며 감동할 수 있는 단상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공부 안하고 놀기만 하는 아이들' 이라는 낙인이 아닌 '함께 삶을 나누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주인공'으로 기억할 수 있는 단상을 위해 아이들이 만들어 가는 바람직한 축제의 모형들을 들춰보기로 하자.

## 딩스와 노올자를 아시나요?

딩스(딩가딩) ! 노올자 ! ....뭔가 단어에서 오는 즐거움이 있다. 딩스와 노올자는 청소년축제를 스스로 만들어 가는 청소년 축제기획단의 이름이다. 딩스는 부천 청소년수련관에 소속된 아이들로 부천 지역의 다양한 학교의 아이들로 구성된 순수한 자치 동아리이다. 청소년 스스로 그들의 축제를 만들어가며,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 참여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시도하고 있다.

부천지역은 경기도 내에서 청소년관련 기관( 청소년수련관, 청소년문화의 집,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지역사회종합복지관, 문화예술 집단 등 ) 들의 네트워크가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이다. 매년 자치단체와 지역단체들이 참여하는 거리축제가 열리고 있고, 그 중 청소년축제기획단 딩스를 중심으로 한 청

소년축제 또한 조금씩 성장해가고 있으며, 올해 '무한대' 란 이름으로 청소년 자치축제가 열릴 예정이다. 노올자는 품 청소년문화공동체에 소속된 서울 강북지역의 청소년축제를 만들어 가는 청소년축제기획단의 이름이다. 올해 6싯 번째로 맞는 강북청소년거리문화축제 '추락'을 만들어 가는 노올자는 나름대로의 경험을 가지고 청소년들만의 축제가 아닌 지역이 함께 하는 축제를 만들어 가고 있다. 이제는 다른 지역의 단체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자

치축제의 모형으로 까지 여겨질 만큼의 성장을 하고 있다.

강북구청과 지역단체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교류는 물론 기성세대와 청소년들간의 소통을 중심으로 축제의 과정이 만들어진다는 것이 '추락' 의장점이기도 하다. 딩스와 노을자가 만들어 가는 청소년자치축제는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청소년축제의 아름다운 '단상' 의 실천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두 지역의 축제가 지니고 있는 몇 가지의 공통점을 분석해보면 지역사회가 함께 하는 청소년축제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

### 청소년과 함께 하는 지역사회 네트워크가 있다.

D부천지역이나 강북지역에는 오랜 전부터 지역단체간의 네트워크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청소년단체나 시설은 물론 시민단체와 자치단체가 함께 하는 네트워크가 있었기에 노을자와 딩스와 같은 청소년 자치활동이 더욱 활발할 수 있었을 것이다. 지역사회 안에서 만들어 가는 청소년축제는 특정한 단체나 조직이 독점하는 방식보다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시스템이 중요하며 이는 청소년들에게도 다양한 교류와 소통방식을 경험케 하는 역할을 한다. 결국 청소년축제가 청소년들만의 축제가 아닌 다양한 세대 그리고 지역이 함께 만들어 갈 수 있는 축제로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 축제의 외형적 결과보다는 즐거운 과정이 살아있다.

정형화되고 표준화되거나 상업화된 '보여주기' 만을 중시하는 축제가 아닌 진정한 청소년 문화의 성장 그리고 문화주체로서 청소년이란 세대주체의 등장이 가져온 교육적, 문화적, 세대적 교류의 열매로서 청소년축제가 성장하려면 청소년들의 일상을 연결할 수 있는 즉 과정이 중요시되는 축제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한해 농사를 위해 기나긴 땀의 과정을 보내고 그 결실을 함께 즐겼던 과거 우리축제의 의미를 이어가는 노력이기도 하다.

### 어설픔의 미학이 살아있다.

전문가들이 만드는 완벽한 축제와는 다른 어설픔의 미학은 청소년축제만이 가지는 매력이기도 하다. 어쩌면 청소년은 미완성이기에 아름다운 것이며, 그 미완성을 완성으로 만들어 가는 단계에서는 다양한 어설픔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 기다림의 시간이 있다.

청소년들의 자발적 참여와 소통이 가능한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기나긴 기다림의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사회 안에서의 네트워크를 만들어가고, 일상의 과정을 살려내고, 어설픔의 미학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축제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게으르지 않는 기다림의 여유가 있어야 한다. 때때로 어른들의 조급함으로 청소년들에게 상처와 좌절을 주기도 하고, 축제가 장기적으로 지속되지 못하는 이유에는 기다림의 여유가 없이 짧은 시간에서의 결과에 치중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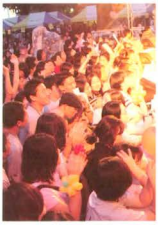
춤
환호
웃음
어깨동무
노래
추억

# "PAY IT FORWARD"

어떤 이는 10대를 청소년으로 성립시키는 것은 청소년 자신이 아니라 그 사회가 10대를 바라보는 눈과 대응방식에 있다고 하며, 끊임없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고 있는 것은 과거의 아름다운 청소년, 또는 지금의 10대들의 운동을 블랙박스처럼 모호하게 만들고

있다고 한다. 우리는 청소년을 어떻게 생각하고 발굴할 것인가? 또한 청소년축제를 청소년들의 성장과 지역사회의 변화에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 것인가? 근간 부쩍 늘어난 청소년 자치활동, 청소년 정치참여, 청소년 인권선언 등이 세대간의 갈등으로 확산되지 않지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하는가?

주관적인 해답일 수도 있지만 문화를 통한 공동경작 또는 축제를 통한 소통으로 가능하다는 생각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은 뭔가 도움을 주는 대상으로만 생각하여 왔다. 청소년축제 또한 평소 억압된 생활에서의 탈출 또는 해소로서의 의미만을 생각하여 왔다. 하지만 이제 청소년, 그 청소년들의 일상이 담긴 그들의 문화, 그들의 일상적인 문화가 다른 세대와의 즐거운 소통을 가능하게 만드는 청소년축제에 대한 새로운 시각과 노력을 해야할 때가 왔다. 지역사회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거나 담아두려는 노력이 아닌 그들 스스로 지역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믿을 수 있어야 한다. 그 가능성을 위한 우리의 지지와 노력 그리고 청소년들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제 청소년 축제는 단순한 즐김을 위한 축제에서 확장되어야 한다.



특히 청소년들의 1차적 삶의 공간으로 존재하는 지역사회는 청소년축제의 확장을 위한 중요한 마당이 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사고와 행동이 충돌하고, 벽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존재가치와 가능성을 인정하고, 서로의 즐거움을 교환할 수 있는 청소년축제가 확장되어야 한다. 그러한 과정들이 모아져 자신을 변화시키고, 지역사회를 변화시키고, 사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아름다운 가능성을 믿어보자. '즐거운 놂과 소통 그리고 변화'가 살아있는 청소년축제를 위하여... 終句

## 지역문화예술축제의 자생력을 위한 제언

# 몸과 마음이 행복한 축제

글 | 강원제 (경기문화재단 전문위원)

유사한 모습으로 옛 축제를 복원해 둔다고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명가수 몇 명의 노래를 듣고 음식에 술에 취해 흐느적 거리며 집으로 돌아간다고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축제를 구성하는 '주체', '시간', '공간', '내용', '형식'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오해를 없애기 위해 이 글에서 사용하는 말들의 뜻을 전제하자면 '지역문화예술축제의 자생력'에서 '지역'이란 '고유의 전통과 문화, 장소와 산물의 특수성을 공동의 기반으로 삼는 사람들과 그들이 살아가는 터전'이다. '문화예술축제'란 '소통이나 가치 실현을 위한 사람들의 삶의 양식들과 감성적 행위들이 어떤 시기에 구체적 형식을 띄고 집단적으로 발화되는 축복과 기복의 제례'를 말한다. 그리고 글의 전개는 먼저 지난 2002월드컵축제를 둘러싼 이야기들의 분석을 통해 그 효과를 경제적 수치로 환산하는 시선들의 맹점을 짚으면서 문화예술축제의 가치 기준은 '문화예술적 인가'에 있을 뿐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다음으로 축제는 어떤

괴산한마당 축제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밝히고, '문화예술적' 이라는 가치기준이 의미하는 바는 축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사람들의 몸과 맘을 행복하게 하기 위해 세심히 배려되었는가' 에 관한 것이라고 말할 것이다. 그리하여 결론적으로 사람들은 자기의 몸과 맘이 행복한 축제를 찾게 될 것이므로, 거기에 대한 배려가 있는 축제는 규모가 커질 것이고 질적인 면에서 수준이 향상될 것이며, 그러다 보면 자생력도 갖추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할 것이다.

2002월드컵으로부터 비롯한 축제의 구조를 읽다보면 지역문화예술축제의 자생력에 대한 단초가 좀 쉽게 읽힌다. 이 행사를 치러낸 공식적인 주체인 월드컵한국조직위와 정부는 26조 4천600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경제적 효과를 분석해냄으로써 성공을 자찬했다. 대다수의 국민들도 월드컵축제를 성공한 축제의 모델 중 하나라고 이야기했다. 국민화합, 사기진작과 참여의식을 일궈내었고, 명실상부한 난장으로서의 축제전형을 창출하였음을 굳이 수치로 환산된 자료를 보지 않더라도 참여함으로써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1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언론이나 연구기관들은 외국인들의 투자가 다소 줄었다거나 수출이 생각만큼 증대되지 않았다며 실물 경제 효과에 대해서 비관적 분석들을 발표하고 있다. 또한 월드컵과 조금이라도 연관이 있었던 지자체를 비롯한 기관들은 2002월드컵 1주년 기념 축제를 벌였지만 붉은 악마들(?)의 반응은 썰렁하기만 했다. 불과 1년 만에 천문학적인 돈들은 어디로 사라져버린 것이며 붉은 옷을 입은 4천 5백만 국민들은 어디로 간 것일까? 바로 여기에서 지역문화예술축제의 활성화는 어떤 측면에서 고려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실마리가 발견된다. 문화적 효과를 경제적 수치로 환산하는 작업은 자기만족효과를 빼고 나면 별로 의미가 없다. 운동회 경주에서 1등한 초등학생이 누리게 될 경제적 효과는 그의 삶 전체를 통틀어 설명되지 않으면 분석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는 그때로부터 자신감을 키워 잘 나가는 육상선수가 될 수도 있고, 어느 날 그때를 기억하는 평생의 반려자를 만날 수도 있다. 1등 부상으로 받은 공책이 몇 권인지, 부모로부터 받은 용돈이 얼마인지로 효과를 환산하려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얼마 전 TV 다큐멘터리에서 독일의 한 소년에게 한국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에 대해 인터뷰하는 장면을 방영한 적이 있다. 그 소년에게 한국은 '축구를 잘 하는 나라', '온 국민이 붉은 옷을 입고 응원하는 나라' 였다. 장차 이 소년이 자라 한국

2002월드컵 거리응원

2002월드컵 서울시청앞

과 무역을 하면서 가져다줄 경제적 효과는 지금으로는 예측도 할 수 없는 일이다. 문화예술축제의 효과란 이런 것이다. 그러니 지역문화예술축제를 기획하거나 참여하는 주체들은 괜히 잘 알지도 못하고 설명되지도 않는데, 여기저기서 떠들어대는 '경제적 효과'라는 말들에 경도되어 축제의 컨셉을 잡거나 내용을 채우려 하지말고, 축제가 충분히 문화예술적인지에 대해서만 고민하고 만들어 가면 된다. 이게 바로 경제적 기준으로는 그 효과를 설명할 수 없는 문화예술축제의 효과에 대한 유일한 기준이며, 지역문화예술축제의 활성화를 위한 첫 번째 열쇠인 것이다.

축제의 구성을 주체, 시간, 공간, 내용, 형식이라는 다섯 가지 요소로 나누어 생각해보면 지역문화예술축제의 자생력 강화를 위한 두 번째 열쇠를 만날 수 있다. 2002년 한국에서 열린 월드컵 축제는 FIFA와 대한민국 정부가 주체로 시작했지만, 이후 주체의 확대와 전이현상이 일어난 축제가 되었다. 4년이라는 주기성이 2002년 6월이라는 특수한 시간에 귀결되어 개최된 축제였다. 서울을 비롯한 지방 10개 도시에 세워진 경기장을 중심으로 분산된 지역적 배정과 경기장을 벗어나 일상공간과 사이버공간으로 확장되면서 연결된 공간에서 동시에 진행된 축제였다. 32개 국가 대항의 축구와 응원이라는 내용을 가진 축제였다. 그리고 경기와 난장, 공연, 전시, 집단 퍼포먼스 등의 복합적 제의라는 특수한 형식

을 가진 축제였다. 사람들이 이 축제에 열광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먼저 단순 참여하는 구경꾼에서 축제를 만드는 주체로의 전이를 경험했다는 것이다. 시군 단위에서 진행되는 지역공공축제만 거의 700여 개가 되는 축제의 나라, 대한민국이지만 대부분의 축제의 역할 구성은 기획자, 출연자, 관객으로만 고정될 뿐이다. 이래서는 재미가 없다. 만약 재미가 있었다면 마치 대형할인매장에서 질 좋은 제품을 싼값에 구매함으로써 얻게된 만족감 정도일 것이다. 물론 좋은 작품을 접하는 경험을 폄하하자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험은 굳이 축제가 아니어도 된다는 것이다. 축제의 자생력을 이야기하면서 "좋은 작가의 훌륭한 작품들을 많이 초대되면 축제는 성공한다"는 식의 뻔한 대답을 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런 이야기를 기대하지도 않을 것이다. 그보다는 축제는 문화를 소비하는 공간이 아니라 놀으로써 생산하는 공간이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공간은 어떻게 이루어지며 그 사례로서 2002월드컵을 이야기하는 게 훨씬 생산적일 거라는 생각이 든다. 2002월드컵 축제는 온 국민이 붉은 옷을 입고 하늘로부터 기를 받아 우~우~하며 축구장 선수들에게 그 기를 쏟아 붓은 21세기에 치르진 국가적 제의였다. 이 제의를 통해 주체로서의 한민족은 지난 세기 열강들의 '식민지국민'이라는 패배 의식으로부터 해방되었다. 4강 진출은 해방의 신화가 되었고, 동참하는 사람이면 누구라도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으며, 축구장에서나 통용되던 질서와 문화는 밖으로 펼쳐지면서 법과 도덕으로 움직여 왔던 일상생활의 공간을 일시적 자율 공간(Temporary Autonomous Zone)으로 재구성하였다. 차가 다니던 도로는 사람들이 즐기는 축제의 광장이 되었고 각자의 술을 마시던 술집 테이블은 어느새 합쳐져 너도나도 같은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의 또 다른 광장이 되었다. 이러한 축제의 기억을 가지고 있는 관계 기관이나 지자체에서는 2003년 6월, 2002월드컵축제의 1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축제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이 기획은 지난 축제의 주체들이 나서지도 않는 축제였던 것은 물론이려니와 '축제의 시간'은 '주기성'을 바탕으로 성립한다는 것을 간과함으로써 기획단계에서부터 실패할 수밖에 없었다. 매 주말 등산을 즐기는 사람이 금요일 저녁이면 몸부터 들떠는 것처럼, 4년의 리듬으로 오랫동안 사람들의 생체에 코드화되어있는 월드컵의 주기성을 1년이라는 리듬으로 재코드화하기는 어려운 법이다. 어떻게 사람들의 일상의 주기에 코드화될 것인가는 축제를 기획하는 주체들은 반드시 고민해보아야 할 사항이다. 하지만 뭐니뭐니해도 2002월드컵 1주년 기념 축제가 실패할 수 밖에 없었던 가장 큰 이유로는 지난 '월드컵축제'는 '월드컵'이라는 축제의 내용이 있었고 경기를 통해 축복하고 기복하는 제의(祭儀)가 있었음을 놓쳤다는 것이다. 비슷한 시기에 형식만을 복제하여 꾸며두고 유사한 효과를 기대했다는 것은 별로 '문화예술적'이지 못한 발상이었다. 월드컵 1주년을 기념하여 열린 축제

'주체는 누구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확대되어, 어떻게 전이될 것인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며, 축제의 시간은 참여자들의 생체에 어떻게 코드화 될 것인가?' 라는 물음들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할 수 있을 때 지역문화예술축제는 비로소 사람들이 좋은 기분으로 많이 찾는 축제가 될 것이다

에 대한 비판적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지역문화축제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특히 전통을 복원하거나 계승하겠다는 축제나 지역민들의 문화적 향수를 달래주겠다고 기획되는 축제들이 대부분 그러하다. 유사한 모습으로 옛 축제를 복원해 둔다고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니며 유명가수 몇 명의 노래를 듣고 음식에 술에 취해 흐느적거리며 집으로 돌아간다고 축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거기에는 축제를 구성하는 '주체', '시간', '공간', '내용', '형식'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있어야 한다. 이러한 세심한 배려야말로 사람들의 몸과 맘을 들뜨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축제가 되는 것이다. 2002월드컵축제는 자기 차가 망가지더라도 화내지 않았고, 밤새도록 대~한민국 소리에 잠들지 못할지라도 즐거웠다. 태극기와 붉은 악마 티셔츠, 그리고 페이스페인팅으로 평쳐진 코스튬플레이는 제단에 서기 위한 의식이었고, 합창과 카드섹션, 그리고 집단 응원의 퍼포먼스는 접신(接神)을 위한 연희(演戱)였다. 그야말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몸과 맘이 모두 즐거울 수밖에 없는 6월의 성스러운 축제였던 것이다. 한 마디로 2002월드컵축제는 새로운 문화와 질서로 움직이는 해방된 공간을 구경꾼으로 시작했던 관객들이 주체가 되어 만들어 낸 축제였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문화의 주체로서 광장에서 놂으로써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본 기억을 가지게 되었고, 이러한 기억들은 미군 장갑차에 쓰러져간 두 소녀의 넋을 기리기 위해 촛불을 들고 월드컵으로부터 만들어진 축제의 제단으로 모여들게 하였으며 전쟁을 반대하며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자리를 만들게 하였으며, 다음 세대를 위한 환경을 만들기 위한 삼보일배 운동이 불가능하지 않음을 증명하였다. 이것이 열심히 논 축제가 생산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이다.

축제를 구성하는 다섯 가지 요소들과 그 개별의 결합이 맘에 들면 사람들은 많이 참여하고 축제는 자연스럽게 규모가 확대되고 질적 수준이 향상된다. 자신의 몸이나 맘이 행복한 곳에 머무르려 하는 건 인지상정(人之常情)이다. 지난 해 월드컵 축제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참여한 이유는 인지상정이었다. 마찬가지로 K-리그나 월드컵 1주년을 기념하는 축제에 사람들이 참여하지 않은 이유 또한 인지상정이다. 지난 해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었던 요소들이 K-리그나 월드컵 1주년 기념 축제에는 없기 때문이다. '주체는 누구로부터 시작하여, 어디까지 확대되어, 어떻게 전이될 것인가?',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할 것이며, 축제의 시간은 참여자들의 생체에 어떻게 코드화 될 것인가?', '축제는 어떤 공간에서 이뤄지며 어떻게 일시적이나마 축제의 질서로 새롭게 구성되는, 자율의 공간이 될 것인가?', '축제를 가능하게 하는 내용의 고유성과 특수성은 어떤 것인가?', '어떤 형식으로 표현되고 구현될 것인가?' 라는 물음들에 대한 적절한 답을 할 수 있을 때 지역문화예술축제는 비로소 사람들이 좋은 기분으로 많이 찾는 축제가 될 것이다. 한쪽에서는 축제를 찾은 아마추어 주체들이 스스로 연희자로서 축제를 찾은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다른 한쪽에서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좋은 작가들의 멋진 작품들이 사람들을 만나고, 그러다 보면 등수를 매기지 않아도 서로를 통해 학습하게 되고, 이러한 문화야말로 축제의 질적 수준을 향상하는 건강한 비평의 긴장감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좋은 축제가 되고 나면 그 다음은 예산이나 시설 등의 공적 지원은 굳이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결과되는 것 또한 인지상정이 될 것이다.

축제의 계절이다. 지난 여름부터 경기도의 각 자치단체들이 고장의 정체성과
지역적 문화환경을 배경으로 각종 축제를 기획,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고 있다.
다분히 문화산업적 측면을 고려한 행사에서 순수한 예술행사에 이르기까지 종류도 다양하다.
최근 경기도의 대표적인 도자축제인「제2회 경기도 세계자비엔날레」가 개막돼 두 달간의 일정에 들어갔고,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가 지난 8월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치러지기도 했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두 축제는 문화산업적, 예술적 특성이 지역의 전통적 역사문화와 결합된 대표적인 행사로
점차 부상하고 있다. 두 축제를 찾아 문화예술 관련 주요 공연예술과 의미를 짚어본다. (편집자 주)

# 흙과 물 그리고 불이 빚는 축제

## 「경기도 세계 도자기비엔날레」 9월부터 10월까지 두달간 개최

글 | 곽희석

도자기엑스포 전경

도자의 큰 잔치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가 중국과 일본, 영국을 비롯 전 세계 68개국이 참가한 가운데 이천과 광주, 여주 등 3곳에서 동시 개막됐다. 9월 1일 개막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10월 30일까지 두 달간 펼쳐지는 이번 도자비엔날레는 세계도자문화의 역사와 산업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교육적 의미와 함께 문화예술적 인 비중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 문화예술관련 기획전시,이벤트 등 볼거리 다양

전통과 첨단 도자기, 도예작품 등 예술적 가치가 있는 총 2천 400여점의 도자기 작품이 행사장 3곳에서 전시되고 있고, 특히 이천과 광주, 여주 등의 지역별 특성을 살린 굴직 굴직한 각종 문화예술 행사들이 주목받고 있다. 이천의 경우 세계도자예술의 최신 경향을 보여주는 국제공모전 입상작 전시회가 열린다. 40여개

국 우수작품 210점이 총 망라됐다. 국제공모전은 전 세계 어느 국제공모전보다도 높은 응모율을 기록했고, 전체 참가작가 구성면에서도 70%이상이 해외작가로 구성되어 있어 관심을 모은다.

대상작 〈알프레드 섬머/여선구作〉은 다양한 민족,국가의 사람들과의 삶과 경험을 담아낸 작품으로 높이 2m43cm의 대형작. 아프리카 인물상들이 탑모양으로 결합된 표현주의적 기법의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다. 또한 12세기에서부터 20세기에 이르는 시기별 주요 작품이 전시되는 스페인도자전도 열린다. 스페인도자의 발달과정과 그 특유의 도자문화를 국내 처음으로 소개하는 전시로 스페인 바르셀로나 국립도자박물관 소장품들이다. 이슬람유산을 주제로 한 파트에서는 녹갈색을 사용해 동물문양, 식물문양, 기하학적인 문양 등을 도기 전면에 장식, 이슬람의 자유분방한 장식을

엑스포 토아

표현하고 있다. 그런가하면 스페인도자사의 절정이라 불리는 〈이스파노 모레스크 도기〉와 건축적 · 장식적인 스페인도자 〈아줄레조 성수반〉 등이 스페인도자의 진수를 선보인다. 국제도자학술회의는 세계 도자계에 인상깊은 메시지를 던져줄 것으로 기대된다.

광주에 마련된 국내 · 외 크고 작은 도자전시도 흔치않은 볼거리다. 조선시대 왕실도자기 생산지로 유명한 광주에서의 조선도자 500년과 한국도자특별전이 열린다. 조선도자 500년전에는 국보 2점과 보물 5점을 비롯 순백자,청화백자,진사백자,철화백자,문방구 명품 180여점 등의 국보급 명품들이 대거 전시된다. 전통도자의 현대화된 모습을 작품화한 한국도자특별전에는 분청,백자,옹기를 현대화시킨 작가 22명이 참여하고 있다.

분청의 활발한 문양표현과 다양한 기형들,백자의 단아함과 기품

있는 그릇,전통 찻사발과 차도구 등 현대 전통도자의 멋이 특징이다. 전통가마 제작과정을 관람할 수 있는 전통가마워크샵은 그동안 구전으로만 내려오던 전통가마의 제작과정을 기록으로 남긴다는 차원에서 의미있는 기획으로 평가되고 있다. 중국의 명 · 청대에서 문화혁명기 그리고 현대에 이르기까지 그 맥을 이어오고 있는 광동지역 불산의 독특한 전통과 역사, 중국 도자의 현대적 변화를 보여주는 중국광동성불산도자인형전은 그 의미가 각별하다는 평이다. 동물과 식물, 중국 고사의 유명인물들과 도교에 등장하는 신선에 이르기까지 78점의 작품이 전시된다.

일하는 농부나 어부의 모습, 호랑이의 미세한 털 묘사, 늙은 나한상의 주름과 옷자락의 섬세한 표현 등이 특별할을 더한다. 세계적인 거장 피카소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피카소도자특별전과 세계10대도자기업명품전, 생활속에서 창작되고 현장에서의 도자기가 갖는 매력을 보여주는 세라믹 하우스전은 생활도자기 산지인 여주에서 전개된다.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1881~1973)의 사후 30주년을 기념한 이 특별전에는 1940년대부터 1960년대까지 20여년 제작한 다양한 도예작품이 전시된다. 또 세계적인 거장 호앙 미로(Joan Miro,1893~1993)의 도예작품을 피카소의 도예작품과 비교하는 전시속의 전시도 선보인다. 1부에는 주제와 제작시기 별로 마련된 피카소의 도자기가 인물과 형상, 새 시리즈, 투우장면, 정물, 물고기 등으로 구분됐고,

2부 전시 속의 전시 미로와 피카소에서는 피카소와 호앙 미로의 도예작품과 포스터,사진 등 61점이 공개된다.

새로운 형식의 기획전인 세라믹하우스 전은 이채를 띈다. 기존의 일반적인 도자기 전시와는 달리 도자기 작품이나 세라믹 제품들이 실제 생활공간의 인테리어와 함께 배치되도록 기획됐다. 이번 전시에서는 흙과 물과 불을 이용해 만들거나 도자기나 세라믹 소재의 제품들을 이용한 다양한 공간연출과 활동범위를 보여주고 있어 일반시민은 물론 전시기획자들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세라믹하우스 전에는 국내 16명의 작가와 기업체 등이 총 83점을 출품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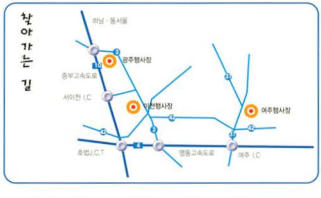
## 음식과 꽃,영화,패션이 함께하는 도자축제

일반인들의 관심을 모으고, 참여확대를 위한 다양한 기획 및 전시이벤트도 이천과 광주,여주 등 3개 행사장에서 이어진다. 여주에 마련된 「4-F페스티벌」은 도자기와 꽃, 음식, 패션, 영상을 전시와 이벤트로 구성해 보여주는 특별한 전시행사다. 생활공간에서의 도자 활용과 실용미 그리고 미적 가치를 부각시키자는 취지다.

전시와 영상, 행사 등으로 구분해 분야별로 예술가들을 대거 참여하도록 했다. 웰컴 투 세라믹월드를 주제로 진행되는 색다른 공연과 참여 이벤트는 도자비엔날레 방문객들에게 볼거리와 놀거리를 제공한다. 전신을 전통 도자문양과 각 지역별 주제 이미지로 페인팅하게 될 테마퍼포먼스가 이천과 여주, 광주 행사장에서 주말과 공휴일에 하루 3회씩 진행되고, 세계적인 이색공연으로 알려진 〈안티 그라비티〉,〈피아노 저글링〉,〈버블맨〉등이 행사기간 동안 매일 3회씩 공연한다. 관람객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한 아이디어 이벤트도 이어진다. 도자조각 높이 쌓기, 물레 빨리돌리기의 비엔날레 기네스, 토야 캐릭터쇼, 머드화장품 발르기의 머드 뷰티클리닉이 관람객들의 흥미를 북돋아 준다.

이번 경기도세계비엔날레에서는 이와함께 인기 정상의 가수들이 펼치는 토야콘서트와 한가위에 펼쳐질 한기위 페스타 행사, 그리고 매년 열리는 이천도자기 축제와 왕실도자기축제, 여주도자기박람회 등이 같은 기간에 열릴 예정이다. 慶旬

| 행사명 | 행사 일정 |
|---|---|
| 국제공모展 | 장소 : 이천세계도자센터 1층<br>기간 : 9월1일~10월30일<br>내용 : 세계 도자예술의 최신경향 보여줄 총 210점 전시 |
| 스페인도자展 | 장소 : 이천세계도자센터 2층 제 3전시실<br>기간 : 9월 1일~10월30일<br>내용 : 12세기에서 20세기의 시기별 주요작품 80점 전시 |
| 조선도자 500년 展 | 장소 : 광주조선관요박물관 2층 전시실<br>기간 : 9월1일~10월 30일<br>내용 : 국보 2점,보물5점 등 조시시대 도예 180점 전시 |
| 중국광동성 불산도자인형展 | 장소 : 광주 조선관요박물관 1층 다목적실<br>기간 : 9월1일~10월 30일<br>내용 : 손오공과 산장법사,목란 등 중국고사 인물 78점의 작품 전시 |
| 피카소도자展 | 장소 : 여주세계생활도자관 1층 전시실<br>기간 : 9월1일~10월30일<br>내용 : 1940년~1960년 피카소 도예작품 총 61점 전시 |
| 세라믹하우스 展 | 장소 : 여주 세계생활도자관 2층 전관<br>기간 : 9월 1일~10월 30일<br>내용 : 실제 생활공간의 인테리어와 조화를 이루는 생활도자 83점 소개 |
| 광주전통가마 워크샵 | 장소 : 광주조선관요박물관(구 머드페스티벌행사 부지)<br>기간 : 9월9일~ 10월30일<br>내용 : 전통가마 워크샵,전통가마 불때기,노천소성,대형 옹기제작시연 |



Interview | 남기명 사무총장

# "도자예술과 도자산업 발전의 전기 마련할 터"

**Q. 이번 제2회 경기도 세계도자비엔날레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부분은 무엇인가**

A. 국제행사인 비엔날레를 준비하면서 심혈을 기울여 준비하지 않은 분야는 없지만 특히 행사의 3박자라 할 수 있는 전시분야와 국내의 관람객유치, 그리고 대외홍보에 역점을 두었다. 전시분야는 비엔날레 행사가 열리는 이천 · 광주 · 여주의 도자와 관련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행사의 주제를 설정하고 전시를 구성한 게 특징이다. 이천은 도자의 창조적인 도자예술 분야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고, 광주는 조선시대 관요의 분원이 설치되었던 곳으로 우리 고유의 전통도자가 많이 생산되고 발전되어 온 지역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여주지역은 예로부터 질토, 백토, 고령토 등 전국에서 가장 좋은 도자기 원료가 생산되어 오늘날도 600여개소의 도자기공장이 밀집되어 있을 정도로 생활도자기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다. 이 같은 지역적 특성에 따라 이천은 '창조의 열정', 광주는 '전통의 격조', 여주는 '생활의 향기', 이 세가지를 이번 비엔날레의 주제로 선정해 다양한 전시와 학술행사를 구성하도록 했다. 관람객 유치의 경우 국내의 경기침체 및 사스(SARS)의 영향, 지역적 여건 등으로 관람객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행사장의 관람편의에 역점을 두어 극복해 나갈 계획이다. 전반적으로 행사기간 동안 100만명정도의 관람객이 행사장을 찾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우선 교통편의를 위해 지하철역 강변역과 성남 야탑역에서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운행하고, 3개 행사장 순환 셔틀버스도 운행 중이다.

**Q. 행사의 산업적 측면 못지 않게 많은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는, 진정한 축제의 장으로 유도하는 것도 매우 필요하다고 본다. 이번 행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아이디어가 준비됐을 것으로 안다. 금년 행사의 큰 특징중의 하나는**

A. 도자의 문화예술적 성격이 강한 비엔날레라는 점이다. 대부분 관람객의 참여행사로 구성된 이천 · 광주 · 여주의 지역축제로 크게 구분되며 이들이 모두 함께 한 행사장에서 열린다. 따라서 세계적 도자예술행사인 비엔날레와 지역도자 축제가 한데 어우러지면서 진정한 세계적 도자제전으로 승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시 · 학술행사에는 이천의 국제공모전과 세계현대도자전이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이며 광주의 조선도자500년전과 중국불산도자인형전, 여주의 피카소도자전과 세라믹하우스 등이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Q. 2001년 행사때는 작품전시 공간에 대한 관람객의 접근이 어려웠다는 이야기가 있다. 주요 작품이 전시돼 있는 전시장은 가보지 않고, 부스중심으로 인파가 몰리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됐다. 전체적으로 시설접근에 대한 개선책이 있다면 무엇인가**

A. 관람객들이 대체적으로 정적인 전시행사보다는 동적이고 흥미로운 공연이나 부스의 판매 등 참여행사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로 보인다. 다만, 이런 분위기에 전시행사가 퇴색되지 않도록 하는 현장홍보의 강화가 절실한 실정이다. 따라서 재단은 16개 전시 · 학술행사에 대해 관람객이 알기 쉽도록 전시내용을 설명하는 홍보물을 만들어 각 전시장에서 관람객들에게 배포하고 행사장의 운영요원들이 전시장 관람을 적극 안내하고 있다. 또 각 전시장별로 가장 효율적인 관람코스를 선정, 각 코스 별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내와 전시내용을 수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관람객들이 행사장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했다.

**Q. 경기도와 도자의 연계성은 무엇이고, 경기도에 왜 도자비엔날레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나. 또한 궁극적으로 비엔날레 축제가 자리잡아 나가기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이 있다면**

A. 경기도 이천, 광주, 여주지역은 역사적으로 우리 조상의 슬결과 혼이 담긴 독창적인 도자문화를 이어온 곳이다. 이 지역은 청동기시대부터 토기제작이 시작된 곳으로, 1960년대 이후 도자기벨트를 형성하면서 현재 우리나라 요장의 80%가 위치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의 도자문화의 역사는 이들 3개 지역의 역사가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니라 생각한다. 이 지역의 도자산업을 육성, 발전시키고 더 나아가 세계적인 도자문화의 메카로 성장하도록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이러한 역사적, 지역적 배경을 바탕으로 지난 2001년 세계도자엑스포가 개최되었던 것이며 금년에 제2회 세계도자비엔날레를 개최하는 것 또한 이러한 면에서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이번 행사는 전세계의 도자계가 주목하는 가운데 우리 도자문화의 전통을 세계에 알리고, 도자예술과 도자산업의 조화로운 발전에 기여하는 문화예술 행사일 뿐 아니라 우리 도자가 세계로 진출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비엔날레가 알찬 내용과 수준 높은 작품을 선보이며 지속 개최해 나가는 것은 바로 경기도의 핵심 문화관광산업이자 세계적인 관광축제로 성장, 발전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다만 비엔날레 축제의 성공과 세계적인 관광자원화는 지역 도자산업의 발전을 담보로 한다. 이를 위한 정부 또는 지자체의 재정적 지원과 세제혜택은 기본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는다.

# 자연과 사람이 함께한 '어울림의 잔치'

## 「남양주 세계 야외공연 축제」의 성과와 의미

올해로 3회째를 맞는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가 지난 8월 8일부터 17일까지 10일간 북한강 문화관광마을 일대에서 펼쳐졌다. 이번 축제는 개최시기가 봄에서 휴가철인 여름으로, 기간도 3일에서 10일로 늘어나는 등 지난 2회의 축제보다 많은 변화가 시도됐다는 평이다. 경기도의 대표적인 공연예술 축제로 꼽히는 제3회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의 성과와 의미, 그리고 새롭게 시도된 기획 등은 관심의 대상이다.

이번 축제는 남양주 출신의 양정순 신임예술감독의 지휘아래 독일과 이태리, 러시아 등 10여개 해외 공연팀과 무용과 연극,음악 등 20여개의 국내 공연예술 장르가 소개됐다.

주최측은 이번 제3회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가 지난해 공연과 달리 행사기간과 계절의 변화 등 외형적으로 상당한 변화가 있었고, 이에 따라 다양한 관객을 위한 다양한 컨셉의 프로그램이 준비됐다고 설명한다. 한여름 밤의 낭만 콘서트나 찾아가는 순회 공연, 이주노동자 문화마당 등은 이번 행사에서 돋보이는 기획으로 축제 기획자체의 다양성을 반영한 프로그램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물을 주제로 한 기획공연 마당극 〈물〉, 음악가 여계숙과 영화감독 여균동의 새영화 〈비단구두〉와 함께하는 공연 역시 색다른 축제 장으로 기록되고 있다.

## 고급 예술의 대중화 러시아 발레와 야외 오페라 공연

무엇보다 이번 축제는 고급예술의 대중화와 저변확대에 큰 몫을 해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비싼 돈을 주지 않고는 볼 수 없는 고급 예술 장르인 발레와 오페라가 축제 메인 무대를 장식했다. 러시아 마리-엘 공화국의 국립 마리스키 발레단과 볼쇼이 동양인 최초 솔리스트인 배주윤 씨가 함께 한 〈세계 명작 발레 하이라이트〉와 서울 오페라 앙상블의 〈장대-팔리아치〉는 1천200석의 벚꽃마을 특설무대를 가득 메울 정도로 높은 관심을 불러 모았다. 질서와 관람 에티켓 등의 미숙한 공연문화에도 불구하고 '예술= 낯설음'으로 인식하던 일반 대중에게 발레나 오페라 공연을 선보임으로써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관심있게 예술을 즐길 수 있도록 했다는데 의미를 두고 있다.

## 지역민을 위한 축제의 장 찾아가는 순회 공연

올해 처음으로 시도된 찾아가는 순회 공연은 적게는 500명, 많게는 2천500명의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축제가 끝난 후 성공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 지역 축제의 이름 아래 지역 주민들을 위한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함에 동시에 축제의 틀 안에서 잊혀가는 이웃의 의미를 찾으면서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자 하는 의도에서 신설된 새롭게 시도된 프로젝트로 기록됐다.

| 행 사 일 | 지 역 | 장 소 |
|---|---|---|
| 8월11일(월) / 12일(화) | 별 내 | 청학근린공원 |
| | 진 접 | 장현초등학교 |
| | 도 농 | 부영아파트단지 공원 |
| 8월13일(수) / 12일(목) | 덕 소 | 한강고수부지 |
| | 금 곡 | 홍유릉 |
| | 마 석 | 마석초등학교 |

찾아가는 순회공연의 첫 공연장소는 모두 6개 지역이 선정됐다. 학교나 공원 등 공연을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곳이면서 사람들이 많이 찾을 수 있는 장소로 택했다는 게 주최측의 설명이다.

전체보다는 권역별로 발달되어 있는 남양주의 특성상 지역간의 연계는 만들 수 없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나 참여도 면에서 문화에 목말라 있던 주민들에게는 신선한 이벤트였다. 서울에서 구리를 거쳐 남양주까지 광역권은 크게 확대되고 있다. 당장 남양주를 가로지르는 46번 경춘국도만 달려보아도 호평, 평내 지구를 비롯해서 신축되는 아파트단지를 많이 볼 수 있다. 하지만 주거 주민의 수에 맞는 문화공간(예를 들어 공연시설이나 공원 등의 공간)은 현저히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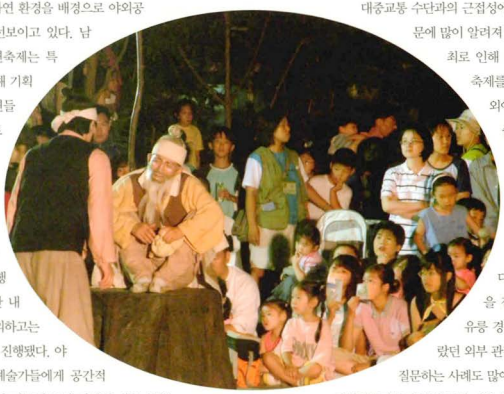
이 공연을 담당한 김창길 기획팀장은 "이번 첫 순회공연을 진행하는 동안 자신의 지역에서 이런 공연의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

다는 전화 문의는 물론 축제 현장에서도 다른 읍이나 면에서 찾아와서 물어보는 주민들도 많았다며, 순회공연이 좀 더 많은 곳으로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실험적인 예술 장르의 도전 야외 공연 축제

야외공연이라는 장르 자체가 우리 나라에서는 생소한 것이 사실이다. 얼마 전까지 예술 장르의 공연은 극장 그 안이 전부였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야외 공연에 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고,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에서는

북한강의 수려한 자연 환경을 배경으로 야외공연을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는 특히 물의 해를 맞이해 기획된 여러 가지 공연들 중에서는 트러스트 무용단의 붕어 두 마리와 미야 아트 댄스 컴퍼니의 나무는 주변에 있는 나무, 풀, 강물을 이용해 공연이 진행되었고, 서호미술관 내의 음악회들을 제외하고는 모두 야외무대에서 진행됐다. 야외공연의 장점은 예술가들에게 공간적인 제약을 주지 않기 때문에 보다 다양한 사고 범위 안에서 펼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안에서의 단점도 있다. 공간의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날씨로 인해 공연을 못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연극 공연의 경우 낮과 밤으로 바뀌면서 조명의 변화가 민감하다) 진행에 상당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에 없다.



## 지역발전의 기회 도모하는 축제

주최측은 올해 축제 방문 관객 수가 약 8만명선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했다. 경기도의 문화도시 남양주는 몽골 문화촌, 홍유릉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는 지역적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다른 도시에 비해 아직 인지도가 낮고, 철도나 버스 등 대중교통 수단과의 근접성에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축제 개최로 인해 찾는 사람들에게는 축제를 단순히 즐기는 것 외에 부수적으로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되는 것이 사실이고, 그 부분에 있어 지역 관광이라는 코드는 가장 편리하면서 적합한 코드이다. 이번에 순회공연을 진행했던 금곡의 홍유릉 경우, 홍유릉을 잘 몰랐던 외부 관객들이 어떤 곳인지 질문하는 사례도 많이 있었고, 진행하던 자원활동가들의 관심 또한 매우 높았던 건 축제와 지역관광의 연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축제는 지역민 뿐만 아니라 외지의 많은 사람들을 찾아오도록 해 경제적, 문화적인 상당한 효과를 얻는다. 그런면에서 남양주 세계야외공연축제는 신선함과 참신한 기획의도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문제에 관해서는 해결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축제 관계자들 뿐만이 아니라 지역 발전을 고민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하고 풀어나가야 하며, 그 속에서 이 축제가 진정한 지역축제로 성장할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할 때라는 게 대다수 축제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문화

# 사리탑(浮屠)과 석불 그리고 미륵불을 찾아-②

글 | 김한영 (문화연구가 · 서원대교수)

안양 석수동 마애종 /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마애종(摩崖鐘)으로, 누르스름한 대리석표면을 다듬고 그 위에 종과 승려의 모습을 부드럽게 돌을 새김했다

지난 호에서 살펴본 석탑에 이어 이번 연재에서는 경기도의 사리탑[浮屠]과 석불, 특히 미륵불을 중심에 두고 옛 기전(畿甸) 지역에 전하는 석조미술의 일반 성격을 더듬어 볼 참이다. 뒤에서 밝히겠지만 민간신앙의 색채가 농후하게 덧칠된 미륵불이야말로 기전을 기전답게 한 불상으로, 주목하기에 족한 값진 문화 유산이다.

익히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종교는 한 민족의 예술의욕과 조형(造形)의지를 규정하는 관건인 동시에 그 근원적 토대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일반 민중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으로서의 종교적 도그마보다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기 마련이다. 중국을 거쳐 고구려와 백제, 그리고 시차를 두고 신라에 전래된 후 불교는 급속도로 민중의 삶과 의식 속으로 파고 들어 비교적 짧은 기간 안에 삼국은 불교국가로서의 면모를 갖추었다. 그 가

종교는 한 민족의 예술의욕과 조형(造形)의지를 규정하는 관건인 동시에 그 근원적 토대이기도 하다. 대다수의 일반 민중들에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관념으로서의 종교적 도그마보다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예배의 대상이 중요하기 마련이다

시적 결과가 불교 사원의 건립과 장엄의 조영(造營)으로 나타났으니, 이를 두고 『삼국유사』는 "절들이 별처럼 펼쳐져 있고, 탑들은 기러기 떼처럼 줄을 지었다(寺寺星張塔塔雁行)"고 전하고 있다. 이러한 사찰 건립의 성행은 경기지역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었다. 유서깊은 옛 절과 절터들이 도처에 자리하고 있는 까닭이다. 앞서 본 석조탑파가 석가모니 부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석조 조형물이라고 한다면, 부도는 널리 추앙받은 고승이나 대덕(大德)의 사리를 모신 탑을 일컫는 말이니, 이 둘을 묶어 탑파라 한다. 일연선사가 묘사한 그 사탑의 장관 가운데 기전지역에 전하는 이른 예는 단연 고달원(高達院) 옛 터일 것이다. '기러기 떼처럼 줄지어 섰다'는 그 유서깊은 탑들을 여기서 만나볼 수 있는 까닭이다.

## 옛 절터에 전하는 부도와 석조유구들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혜목산 아늑한 기슭에 들어앉은 고달사는 우리나라 석조미술의 고전적 황금기라 할 수 있는 8세기 중반(764, 신라 경덕왕 23년)에 창건된 절이다. 지금은 절터와 몇몇 석조유구만 남아 있을 따름이나 고려 광종 이후 역대 왕의 비호를 받아 대찰의 면모를 유지하였던 이 절이 언제 폐사되었는지는 분명치 않다. 이 절터에 남은 여러 석조물 가운데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역시 고달사터 부도와 원종대사혜진탑비일 것이다. 높이 3.4m에 달하는 부도는 누구의 사리를 안치한 것인지 알 수는 없으나 제작된 시기는 대체로 혜진탑비에 견주어 여초인 10세기 중후반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부도는 상륜부가 약간 유실되었을 뿐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거의 원형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서 사료적 가치도 매우 높다. 이 부도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장중한 분위기에 감싸인 고졸(古拙)한 아름다움에 더해 중대석과 용머리 조각에 보이는 대담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은 빼어난 돋을새김 조각 때문이다. 얕은 양각으로 새긴 탑신 각면의 문비(門扉)나 영창(映窓), 사천왕상도 그렇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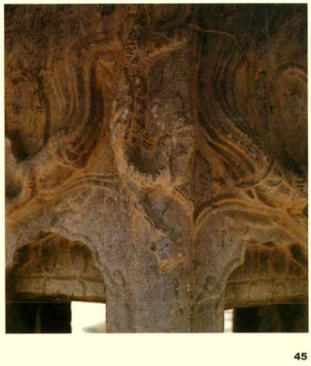
고달사지부도와 탑신의 사천왕상 / 일제의 관변학자 세키노 다다스(關野貞)가 주도하여 펴낸 『조선고적도보』(조선총 독부 간)에 실린 고달사터 부도의 1910년대 모습. 그 옆의 사진은 근래에 촬영한 것으로, 이 부도 탑신에 새겨진 사천왕상이다. 옆에 선 인물과 견주어보면 알겠지만 부도치고는 제법 규모도 크고, 그 예술성 또한 뛰어난 것으로 평가받는 부도이다.

이 부도가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전체적으로 장중한 분위기에 감싸인 고졸(古拙)한 아름다움에 더해 중대석과 용머리 조각에 보이는 대담하면서도 균형을 잃지 않은 빼어난 돋을새김 조각 때문이다

니와, 금방이라도 비상할 것 같이 힘에 넘치는 중대석 운용문(雲龍文)의 생동감과 사실감, 세부에까지 이르는 정치한 기법의 세련됨이 생생함을 전해주는 까닭에 일찍이 국보(제4호)로 지정된 고달사터의 대표적인 유구이다. 이밖에도 고달사 옛터에는 앞서 말한 원종대사혜진탑 및 원종대사탑비의 머릿돌인 이수와 받침돌인 귀부(龜趺), 그리고 본존불을 모셨을 것으로 추정되는 대형 석불대좌,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에 가 있는 쌍사자석등과 원종대사혜진탑비의 몸돌[碑身] 부분 등 다수의 뛰어난 석조유구들이 전하고 있다.

통칭 여말삼은(麗末三隱)의 한 사람으로 일컬어지는 이색(李穡)이, 그 꾸밈과 장엄이 사뭇 아름다워 동국(東國, 우리나라의 옛 이름)에서 제일이었다고 전하는 회암사 역시 터만 남은 폐사이다. 양주군 회천면 회암리 천보산에 있는 이 당우(堂宇)는 고려말인 1328년 지공(指空)이 창건했다고 전하고 있다. 기전의 사찰과 많은 인연을 지니고 있는 보제존자 나옹(懶翁)이 훗날 크게 불사를 일으켜 보기드문 대가람을 조성하였고, 이성계가 권좌를 물려주고 난 뒤 이곳에서 수도를 하였을 만큼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기울인 '아주 특별한' 절이기도 하다. 그후 명종 재위시절 문정왕후를 등에 업은 보우의 중흥 노력이 실패로 돌아간 후 사세가 급속히 기울어 급기야 폐사일로로 치달아 오늘에 이르고 말았다고 전한다. 도판에 보이는 회암사터 부도 또한 고달사터의 부도와 마찬가지로 8각을 기본형으로 하여 제작된 부도로 여말선초의 화려했던 고급 불교문화를 여실히 보여주는 수작에 속한다. 새 왕조의 창업 직후인 1407년에 건립된 이 부도는 회암사터의 북쪽 능선 위에 지공 나옹 두 선사의 승탑과 함께 나란히 줄지어 서 있다. 배가 볼록 나온 형태를 이루고 있는 이 부도의 중대석 표면에 고부조로 양각한 용의 머리와 몸체, 그리고 구름무늬가 서로 뒤엉킨 채 빼곡히 들어차 사실감을 한층 돋보이게 하고 있다. 이 부도는 고달사부도처럼 생생한 사실감을 풍기나 기운생동한 힘에서는 고달사터의 작례(作例)가 보이는 빼어난 감각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 시각적으로 상부가 무거운 감을 주어 안정감을 해치고 있으나 돌결을 쪼아서 각종 문양들을 새긴 솜씨는 매우 섬려하고 우미하다.

이밖에도 이 절터에는 나옹의 행적을 새긴 선각왕사비를 비롯하여 지공대사의 부도 및 석등, 쌍사자석등, 무학대사비, 부도탑, 어사대비 외에도 맷돌과 같은 민속유구들이 남아 있는 바, 하나같이 눈길을 끌지만 일일이 소개할 계제가 아니어서 아쉽기 그지없다. 여주군 북내면 상교리 남한강 가에 위치한 신륵사는 회암사와 마찬가지로 선초(鮮初)에 왕가의 후광을 입어 성업을 이룬 가람이다. 이 절의 뒷산 기슭 고느넉한 곳에 터를 잡은 보제존자석종 및 그 석등 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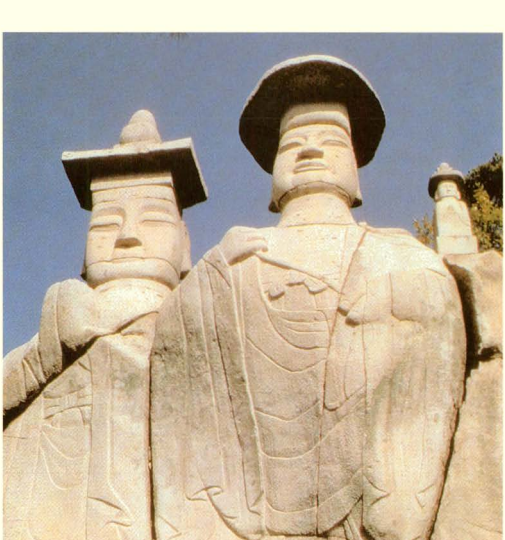


신륵사 보제존자 석등 (부분) / 신륵사에서 오기지 이직을 이루며 입적한 보제존자 나옹을 기리는 석종형 부도 앞에 위치한 석등으로, 도판은 그 화사석에 새김된 비천의 모습이다.

기전지방에 전하는 석불들은, 통일신라 불상의 양식을 전승하고 고급문화의 영역에 속한 향수자들이 발원하여 조성한 것들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민간신앙의 유습이 깊이 스민 조상(彫像)들로, 그 대개는 허드레 석수(石手)나 손재간 있는 마을 사람들이 깎은 것들이다

회암사터 무학대사사리탑 / 여말선초의 고승이자 이성계의 스승이기도 했던 무학(無學)대사의 유골을 안치한 부도이다. 무학이 입적한 후 2년이 지난 1407년 조성되었다.

한 경기의 돌조각을 대표하는 빼어난 작례에 속한다. 특히 석등의 새김이 그러한데, 도판에 보이는 것처럼 손에 비파 등 각종 악기를 들고 하늘을 날고 있는 가릉빈가[飛天]가 높은 양각으로 빼곡히 조식(彫飾)되어 있다. 히말라야 깊은 산속에서 태어나 타클라마칸 거친 사막을 건너고 광대한 대륙을 가로질러 한반도로 건너와 경주의 성덕대왕신종 종신에 사뿐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이 석등의 화사석(火舍石)에 나옹화상의 화신인 양 다소곳이 자리한 그 자태가 퍽 우미하고 인상적이다. 석종형 부도도 흔치 않은 사례지만 그리 규모가 크지 않으면서도 단정하고 균형잡힌 고전적 비례감에 더해 섬려한 조각솜씨를 두루 갖춘 이 석등은 앞서 언급한 사리탑들과는 또 다른 매혹적인 분위기를 지닌 석조물이다. 신륵사 또한 눈여겨 볼만한 석조물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으나, 지난 연재에서 석탑을 소개했으니, 여기서는 석등만을 국한하여 살펴보는 일에 만족할 수 밖에 없다.



파주 용미리 석불입상 / 20미터가 넘는 거대한 자연석의 형태를 최대한 살려 미륵불을 조성하여 새로운 세상이 도래하기를 염원한 민초의 바램을 엿볼 수 있게 하는 불상이다.

## 기전의 불상, '경기다움'의 가능성

불상하면 흔히 금동불이나 청동불을 떠올리기 마련이다. 그러나 동을 재료로 하여 조상(造像)하여 도금한 동불(銅佛) 외에도 재료에 따라 철불, 석불, 목불, 니불(泥佛), 지불(紙佛), 도불(陶佛), 칠불(漆佛) 등 그 종류가 실로 다양하다. 이 연재의 주제가 '경기의 석조미술'이기 때문에 불상 또한 부득불 돌을 깎아 만들거나, 돌 위에 새긴[磨崖] 불상들만을 고찰대상으로 삼을 수 밖에 없는 일이다. 흔히 건축의 한 장르로 구분 짓곤하는 탑파와 달리 석불은 엄연히 미술사의 영역에 속한다. 한국조각사가 주된 고찰의 대상으로 삼는 학술적 가치가 지대한 소재가 바로 불상이다. 대체로 기전지방에 전하는 석불들은, 전통사회에서 그것들이 떠안은 기능과 함의에 비추어 볼 때 크게 두 부류로 나눌 수 있다. 통일신라 불상의 양식을 전승하고 고

경기전통문화의 '경기다움,' 다시 말해, 기전의 문화적 정체성을 불상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글쓴이는 그것이 경기 각지에 산재한 미륵불에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금문화의 영역에 속한 향수자들이 발원하여 조성한 것들이 그 하나요, 다른 하나는 민간신앙의 유습이 깊이 스민 조상(彫像)들로, 그 대개는 허드레 석수(石手)나 손재간 있는 마을 사람들이 깎은 것들이다.

전자의 사례로는 거대사찰, 특히 왕실과 직간접적으로 결탁된 사원들을 장식하고 기념했던 석조물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민간에 널리 전파된 자연발생적 신념체계로서의 민간신앙에 깊이 젖어 있던 민초들이 자발적으로 제작하여 신앙과 예배의 대상으로 삼은 불상조각들이다.

각기의 석불이 구현하고 있는 불격(佛格)과 특징에 따라 이것들을 석존불, 약사여래불, 관음보살불, 비로자나불 등속으로 달리 불러야 마땅하나, 에두르게 이것들 모두를 '미륵불'이라 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민간에서 조성한 이들 불상들은 대체로 '미륵의 나라,' 용화(龍華) 세계를 오매불망 꿈꾸었던 사람들의 간절한 열망과 희구가 아로새겨진 석조물들이다. 그런 탓에 민중의 소박한 표현욕구와 미의식이 올올히 스민 민불(民佛)의 유형에 속한 것이 상당수에 이른다. 이러한 미륵불들에서 사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정겨운 우리의 이웃과 같은 분위기를 어렵지 않게 더듬어보게 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연유에서일 터이다.

## 고려 미륵불의 지방화 양식

먼저 고찰할 불상은 속칭 미륵댕이라 불린 파주시 광탄면 용미리의 석불입상이다. 이 불상은 천연암벽에 불신(佛身)과 법의(法衣)를 선각으로 각각 새겨 넣고 두상 부분은 다른 석재를 이용하여 깎아 올린 두 기의 석불로 이루어져 있다. 높이 20m에 달하는 거대한 자연암석을 이용하여 조성했기에 실로 우람하고 당당한 면모를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 위압적이지는 않다. 대체로 고려의 불상 조각을 일러, 삼국과 신라 조각에서 보인 명랑성과 생동하는 기운이 스러진 대신에, 무거운 침묵이 감도는 적조(寂照)의 아름다움을 그 두드러진 특징으로 꼽곤 한다. 이러한 경향을 두고 일찍이 황수영 선생은 "고려가 지향한 필연"이라고 갈파했거니와, 고려 후기 불상 조각을 대표하는 용미리 석불입상이고 보면 고려조각에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을 피해갈리 만무하다.

삼분(三分)된 육중한 석괴들 사이로 무거운 정적감이 흐르고, 잔잔한 미소를 머금고 있음에도 어딘지 내면적 우울이 비쳐보이는 이 불상은 거대한 암석을 억지로 가공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최대한 반영한 표현성,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자연이 스스로 말하게 함으로써, 자연에 즉(卽)해 그것에 순응했던 선인들의 자연주의적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석불이다. 이러한 거대불상들은 귀족과 지배계층의 전유물이었던 불교가 대중화하면서 민간신앙과 융합 또는 습합되는 과정을 반영한 유구들이다. 친근하면서도 어딘지 포근한 그 토속성, 이어지는 연재에서 더 살피게 되겠지만, 바로 이러한 심미적 특질들이 하대 신라의 그것과 차별되는, 기전 돌조각만의 경기다운 성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경기전통문화의 '경기다움,' 다시 말해, 기전의 문화적 정체성을 불상을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한다면 글쓴이는 그것이 경기 각지에 산재한 미륵불에서 가능한 일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하고 있다. 글쓴이로 말하면 손끝에서 나오는 잡문 등속이나 몇 줄 끄적일 따름이지 도시 역량이 닿지 않는 일이고 보니 언감생심 엄두를 낼 일이 아니지만, 깊은 통찰을 지닌 누군가가 그것을 규명하는 작업에 전념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 사실 이들 석불들의 경우, 그 가치와 의미를 따질 때 미술사적 잣대만 들이대면 볼품없는 졸작으로 치부될 게 뻔하지만, 민속사적 · 종교사적 시각으로 보면 그 심대한 문화적 의의를 충분히 끌어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畿句

先史文化

# 구석기 유적으로 본 京畿 先史文化
## - 경기도 연천군 전곡리 문화유적

글 | 강대욱 (본지 편집위원)

경기도 지역에 사람들이 살기 시작한 것은 연천군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에서 출토된 석기에 의해 약 35만년전으로 밝혀졌다. 전곡리의 구석기 유적이 세계 고고학계의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었다. 한탄강이 감아 돌아 U자형의 분지를 이룬 약 30만평의 구릉지였을 뿐 여느 농촌과 다름없는 농경지였다. 그곳이 지금은 한반도 구석기 유적 중 경기도지역에 존재한 유일한 전기 구석기시대 유적지로 각광을 받고 있다.

1978년 4월 동두천시에 있는 미 2사단 소속 공군 기후예보대에 근무하고 있던 글랙 보우엔(Grag Bowen)이 부인과 함께 전곡리에 있는 한탄강변 유원지 뒷산에서 석기를 채집하여 이를 구석기로 추정하고 예보문과 함께 서울대학교 김원룡 교수에게 보낸 것이 계기가 되었다. 35만년이란 긴 잠을 자던 태초의 꿈을 깨고 경기도의 지리가 한국의 고고학계는 물론 세계인에 각인되는 단초였다.

한반도는 1960년대에 와서 본격적으로 구석기시대 유적이 확인되기 시작했다. 북한에서는 평양시 상원군 검은모루 유적과 용곡(龍谷)동굴 유적이 확인됐고 평안남도 덕천군 승리산의 동굴유적이

중기 구석기시대 유적으로 그 모습을 드러냈다. 남한에서는 충청북도 제원군 송학면 포전리의 점말동굴유적, 단양의 금굴유적, 공주시 석장리의 유적, 수양개유적등이 남한의 구석기 유적을 말해주고 있다. 이처럼 경기도의 선사문화는 1960년대 이후부터 이루어진 여러 유적의 발굴성과를 통하여 그 모습을 자세하게 드러내고 있다.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는 10차 발굴조사와 1차 발굴조사 보고서로 유적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다. 경기도 유일의 구석기 유적지일뿐 아니라 아슐리안형 주먹도끼의 출토로 세계 고고학계의 거두인 모비우스 학설을 뒤엎은 전곡리 유적을 개관해 본다. 전곡리 구석기 유적지는 1979년 10월 2일에 사적 제268호로 지정된 문화유적이다. 전곡읍 전곡리 178-1에 위치하며 23만3천282평의 면적이다. 이 유적은 서울에서 북방으로 약 50㎞ 떨어진 경원선의 전곡역 부근 한탄강 유원지 언덕 일대에 위치하고 있다. 유적의 규모는 전체 약 30만평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며 해발 61m 정도의 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1979년에 이어 1983년까지 10차의 발굴조사가 서울대학

주먹도끼(파주 가월리)

주먹도끼(연천 전곡리)

주먹도끼와 찍개(양평 병산리)

교, 경희대학교, 영남대학교, 국립박물관, 문화재연구소 등이 참여한 연합발굴단에 의해 발굴조사가 실시되었다. 유적의 층위는 대체로 상층 점토, 하층 사질토로 구분되나 부분적으로 적갈색 사질층, 적색점토층, 사질층, 황색점토층, 현무암괴 혼입점토층 등 다양한 층위가 나타나고 있다. 발굴결과 이 유적에서는 첨두형(尖頭形) 주먹도끼, 원시형 첨두 주먹도끼, 가로날도끼 등 다양한 종류의 석기 수천여점이 출토되었다. 그 중 유럽 전기구석기시대의 특징적인 석기인 주먹도끼(양면핵석기-Hand Axe), 박편도끼(Cleaver)등이 동북아시아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국제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 유적의 년대는 대체로 35만년에서 10만년전 사이로 추정되고 있는데, 아슐리안 형태의 구석기들이 주로 발견되는 적갈색 내지 붉은 점토층들은 제2빙하기와 제3빙하기 사이의 간빙기인 민델리쓰(Mindel-Riss)때 이루어졌거나 리쓰 빙하기의 어느 한 빙간기(氷間期)인 따뜻한 기후에 속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유적의 지형은 홍적세의 현무암 분출이 있은 후 간빙기에 해당되는 시기에 전곡리 일대에 현재보다 넓은 지역에 물이 있었으며 이 시기에 사람이 나타나서 살기 시작하였고, 그 후 기후가 바뀌면서 춥고 건조한 시기에 부근지역으로부터 바람에 의해 점토층이 쌓였다고 보여진다. 그리고 인간의 생활은 이시기에도 계속되고 추위로부터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불을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적색 점토내에서 출토되는 작은 목탄편(木炭片)들로써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문화의 흐름을 이야기할 때 선사문화에서 역사문화로 이어지는 과정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본다. 오늘날 연구기관의 발굴조사 지표조사로 나타나는 선사유적지에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문자기록이 없었던 시기에 선사인의 생활상을 살필 수 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 선사문화는 경기도뿐만 아니라 한국의 역사를 엮는데도 크게 이바지한다. 또한 삼한(三韓)의 등장과 맞먹는 시기의 유

시흥 오이도에서 출토된 빗살무늬토기

적인 청동기시대 유적에서 얻는 성과는 한국고대사에 얽힌 수수께끼를 풀어가는데 값진 자리를 차지한다. 그것은 사냥, 채집을 하며 떠돌이 생활을 하였던 구석기시대의 유적이 한강, 한탄강, 임진강 기슭에서 발굴되었다는 사실이다. 당시 구석기인들은 주어진 자연환경에 적응하며 그들의 일상생활을 꾸려나갔다. 비록 그들의 모습은 사라졌지만 그들이 남긴 흔적을 통하여 우리는 그들의 삶을 어느정도 살펴볼 수 있다. 구석기인들은 그들의 터전 가까이에 있는 돌을 주워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뗀석기를 만들어 썼다. 석기는 짐승을 사냥하고 식물을 채집하며 살아갔던 그들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도구였다. 1만년전 무렵, 지구의 기후가 지금과 같이 바뀌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 선사인들은 식량을 생산하고 강가의 들판이나(경기도 하남시 미사리 선사유적지) 바닷가 언저리(시흥시 오이도 패총지역)에 움집을 짓고, 마을을 이루며 살기 시작하였다. 농사를 짓고 가축을 기르기 시작한 때가 바로 신석기시대이다. 때때로 산과 들에서 짐승을 사냥하거나 도토리와 같은 열매도 채집하였다.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은 조개, 물고기, 바다짐승들을 잡아서 먹을 거리를 마련하였다.(백령도 패총) 그들이 남긴 조개더미 속에는 신석기인들의 생활흔적이 간직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식량생산단계로 접어들면, 신석기인들은 구석기시대와 다른 도구나 무기를 만들었다. 여러 가지 무늬를 베푼 토기를 만들고, 돌을 갈아서 석기를 제작하고, 움집안에 화덕을 마련하였다. 괭이, 보습과 같은 농기구가 신석기시대 유적에서 발견된다.

고양일산에서 출토된 볍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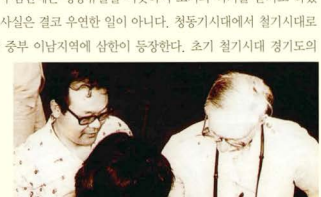
여주군 흔암리 집터

신석기시대는 농경문화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다. 일산 신도시가 계획되던 1980년대 발굴조사에서 토탄과 4500만년전의 볍씨가 출토된 것은 이들이 가족 또는 씨족을 단위로 어느 한곳에 정착하면서 농경생활을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사실은 일찍부터 경기도 지역에서 보리농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한국의 신석기시대에 벼농사를 지었다는 증거는 파주시 다율리 청동기시대 유적 발굴현장에서 부족장의 회의실로 추정되는 집터가 발견되었고, 이곳에서 민무늬토기, 간석기 등이 출토되어 청동기시대는 일부 계층의 부와 힘이 축적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민무늬 토기와 조, 보리, 수수등의 탄화된 곡물이 나온 지역은 강과 평야가 가까운 언덕자리 였음은 여주군의 점동면 흔암리 선사주거지가 말해주고 있다. 안산시 선부동의 청동기시대 출토유물과 여주군의 석우리 선돌은 신석기보다 한층 발달한 청동기를 독점한 부족장들이 점차 자신의 위치를 차별화시켜 자신의 영역을 다른 부족들의 그것과 구별하기 위해 선돌(입석)을 세웠고, 이러한 움직임들은 성읍(城邑)국가의 탄생으로 연결된다. 청동기시대에 오면 농경용 도구와 목공용 도구 및 무기의 형태도 차츰 변하며 그 종류도 신석기시대보다 많아진다. 청동기시대 사회에서 농경은 중요한 식량 생산 역할을 하였다. 전술한 여주 흔암리에서 나온 탄화된 곡물은 이 시기에 오곡이 생산되었다는 중요한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청동기시대 유적이다.

청동기시대는 신석기시대의 상징인 빗살무늬 토기가 사라지고 민무늬 토기가 생산되는 시기다. 그런가 하면 움집의 규모가 커지고 마을 주민의 수도 불어났다. 마을에 따라서는 인구가 수백명이 넘기도 하였다. 돌을 갈아서 석기를 만드는 솜씨는 청동기 시대에 더욱 좋아진다. 청동기인들은 때때로 먼곳에서 돌을 운반하여 고인돌(지석묘:강화지석묘, 파주 덕은리 지석묘군, 용인시 모현지석묘, 김포시 통진면 고정리 지석묘, 시흥시 조남리 지석묘, 오산시 금암동 지석묘,연천군 통현리, 전곡읍 양원리 지석묘, 백학면 학곡리 지석묘등등) 돌널무덤, 돌무지무덤(연천군 삼곶리 적석총)등을 축조하였고 무덤안에는 청동유물을 비롯하여 토기와 석기를 묻기도 하였다. 고조선이 만주에서 건국되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청동기시대에서 철기시대로 넘어가는 무렵에 경기를 포함한 한국 중부 이남지역에 삼한이 등장한다. 초기 철기시대 경기도의 중심부였던 수원 서둔동의 출토유물은 각종 철제무기와 농기구들이다. 청동기 보다 한층 발전된 모습을 보여 준다. 온돌장치는 가평군의 이곡리에서 발견된 것과 함께 현재의 온돌 모습과 거의 흡사해서 놀라움을 금할수 없다. 저 날카로운 무기로 무장하고 말을 달렸던 이들은 철기시대의 정복자였으리라. 삼한시대 수원, 화성 일대가 모수국(牟水國)의 터전이 되었던 것은 결코 우연한 것이 아님을 말해주는 선사유적의 본보기라 할 것이다. 경기지역 삼한시대는 저들의 세련된 제철기술을 바탕으로 강력한 부와 지배력을 얻게 되었고, 주변의 성읍국가를 정복, 연맹국가시대를 열게 된다. 당시 경기도는 한강 남쪽에 위치하였던 삼한중 마한(馬韓)의 세력판도에 속하였다고 보여지는데 마한 54개국중 경기도에 위치하였던 소국으로 진단학회 〈한국사〉에 의하면 모수국(수원시), 원양국(화성시), 상외국(수원시), 소석색국(경기도 서해안), 대석색국(경기도 서해안), 우휴모돈국(부천시), 신분할국(안성지역), 백제국(광주시지역), 속노불사국(김포통진지역)의 9개국이 있었다. 여기서 필자는 선사문화의 흐름을 이땅에 최초로 삶을 시작한 구석기인들에 이어 신석기인, 청동기인, 철기시대 사람으로 이어지는 과정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쯤에서 필자는 전곡리 유적이 세계 고고학계의 관심을 집중시켰던 19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본다. 당시 필자는 경기도학예연구관에 임명된지 얼마 안되는 초년병이었다. 전곡리 유적에서 출토된 특징적인 석기는 아슐리안형의 주먹도끼(Hand-Axe)들인데 양면가공된 것과 외면가공된 것이었다. 평면이 타원형인 것과 첨두형인 것이 모두 있으며 이들 중 일부는 몸통이 두텁고 큼직한 박편흔으로 덮여 있어서 아프리카의 상고안(Sangoan) 석기공작과 지형적 유사성이 있음이 지적되었다. 1982년 8월 19일 발굴현장에 초청된 세계적인 고고학자 미국 버클리대학교 고고학교수 제이 데스먼드 클라크(J Desmond Clark) 박사(당시 65세)는 발굴현장의 출토유물을 감정한 후 이 날 국립중앙박물관 강당에서 가진 내외신 기자 및 국내 고고학계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김원룡교수가 통역한 내용을 메모한 필자의 노트를 21년만에 정리한 것이다. "영국시민권을

전곡리 구석기 유적 발굴현장에 초청되어 유적의 성격을 설명하고 있는 클라크박사 (왼쪽부터 김원룡, 배기동, 필자, 클라크박사)



클라크박사가 유적지 발굴현장에서 배기동교수와 환담하고 있다

갖고 있다. 켐브리지대학 고고학과를 졸업했다. 아프리카 고고학연구를 위해서 일생을 보냈다. 미국 버클리대학 고고학교수로 있다. 동양엔 처음 왔다. 1981년에 이디오피아에서 가장 오랜 인류의 화석을 발견, 최초로 세계적인 고고학의 권위를 인정 받았다. 8월 25일 이디오피아로로 갈 것이다. 서울대박물관에 보관된 전곡리 유적 출토 석기를 감정한 결과, 무거운 석기가 많다. 석기공작에 있어 글게가 많은 것이 특색이다. 형태보다는 칼날로 분류하는 것이 좋겠다. 석핵이 많다. 석기형태 모형상으로 보아서 전기 구석기시대의 말기로 보여진다. 전기 아슐리안이라고 할수 있는 핸드액스가 나온다. 동양 구석기 연구에서도 중요한 유물이다. 점토, 현무암(용암)을 통해서 연대결정을 해보아야 된다고 본다. 당시 전곡리 구석기유적 발굴현장에서 출토 유물의 성격을 설명하는 사진을 보면 이미 타계한 김원룡 서울대 고고학 교수가 왼쪽에서 경청하고 있으며 현재 한양대학교 박물관장인 배기동교수가 당시 조사팀장의 역할을 상징하듯 측근에서 보조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오른쪽에 있는 분이 공동발굴 책임자였던 정영화 영남대학교 박물관장이다."이들의 뒷편에서 아웃사이드에서나마 클라크박사의 설명을 들을 수 있었던 필자의 행운이었다.

Acheulean Hand Ax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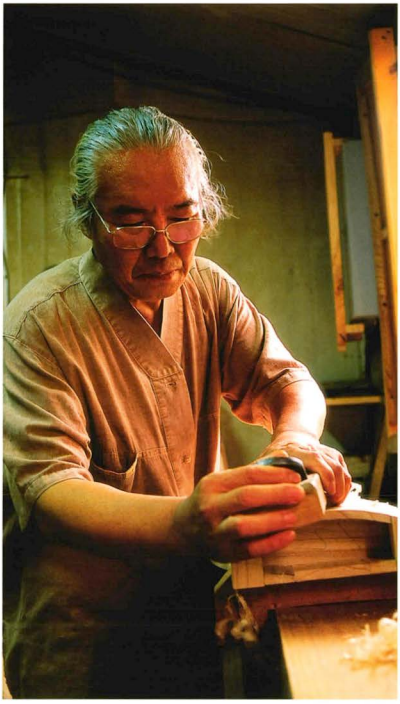
이날 박물관 강연에서 밝힌 클라크박사의 강연요지인 아슐리안형 석기의 개요는 이렇다. "전곡리에서 발견된 아슐리안형 석기들은 1970년대 말까지 이러한 석기의 존재 유무로 동아시아와 아프리카, 유럽으로 구석기문화를 2분하던 모비우스의 학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거로 세계 구석기학계의 고인류의 문화적인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에 새로운 면을 제시한 바 있다. 그리고 동아시아에서도 구석기공작에 대하여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려는 시도들을 불러일으키게 되었다. 한반도 내에서는 빈약한 전기 구석기공작 이해에 풍부하고도 획기적인 자료가 되었을 뿐 아니라 중부 홍적세동안 고인류의 석기양상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였다."경기도 유적으로 세계 구석기지도에 표기되었음을 밝히면서 지구상에 최초로 인류가 생활했던 아프리카 대륙의 아슐리안 구석기유적과 유럽을 통해 전곡리에 이른 구석기 출토지명을 간략하게 열거, 경로를 밝힌다. 아프리카 대륙 최남단의 「살다냐」에서 북상하여 중부에 「보도」「디호다인」영국의 「클락톤」「복스그로브」인도의 「훈스귀」동남아시아의 「보서」그리고 한반도의 중부 경기도 연천의 「전곡리」이다.

끝는 듯한 삼복더위, 필자의 문화유산답사에 동참, 고향의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을 안내해 주신 허일강(경기도 향토사연구회회장)선생의 협조에 감사할 뿐이다. 終

# '소릿고을' 용인에 가얏고 소리 들릴제...

## 악기장 최태진(경기도 무형문화재 제30호)

글 | 곽희석 사진 | 전민조



내면 깊은 곳에서의 울림과도 같이 늘 심오한 듯, 애절한 듯 신비로움을 전하는 소리가 있다. 가야금, 일명 '가얏고' 가 바로 그것이다. 사람의 언어로도 담아 낼 수 없는 만가지 이야기를 풀어 놓는 그 가야금은 어쩌면 수 백년 세월, 아픔의 역사 뒤 언저리에 서서 슬픔을 달래온 어머니의 따뜻한 마음 같기도 하다.

경기도 용인 기흥읍 음촌마을. 소릿고을로 알려져 있는 이 작은 마을에 우리의 전통 소리잇기를 업으로 삼고, 살아가는 이가 있다. 최태진 선생이 바로 그다. 그가 만드는 악기엔 특별한 기술이 적용되지 않는다. 기교를 부리고, 멋을 내는 일엔 아예 관심조차 없다. 오직 영감과 직감, 그리고 감각과 안목만이 그를 감동시킨다. 그것으로 가야금과 거문고 등 한국의 전통악기를 만들며, 50년 세월 악기와 시름했다. 전라북도 전주에서 태어나 14세 되던 해 악기 만드는 기술과 그는 첫 인연을 맺었다. 초대 무형문화재(국가 중요무형문화재 제42호) 였던 김광주 선생(1988년 작고)과의 인연이 현재의 최태진 선생을 있게 했다. 악기장 김광주 선생은 최태진 선생의 고모부로 당시 2대째 전통악기를 만들어 왔다. 손재주가 탁월했던 그는 6.25 무렵 고모부 일가와 한집에서 생활하게 됐고,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악기제작에 대해 흥미를 갖게 됐다. '밥 굶는다' 라고 만류하던 부모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최태진 선생은 그저 그게 좋았단다. 초등학교 시절부터 습작을 시작했고, 초등학교 졸업 후에는 아예 진학도 포기하고 악기제작에 전념했다.

"천직이라 생각합니다. 악기 만드는 일이 지루하고, 지겹다고 생각했다면 그만 둔지 이미 오래일 겁니다. 그것이 일상 생활이고, 재미있기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이지요. 거의 매일같이 새벽에 눈떠 공방으로 나가면 하루종일 작업에 몰두합니다."

그저 좋아서 이 일에 매달린다는 그는 17살 때 처음 가야금을 직접 만들기 시작했다. 19살 되던 해에는 완성품을 만들어

스승인 김광주 선생으로부터 대단한 칭찬을 듣기도 했단다. 그런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찾아온 건 지난 1960년. 당시 전국적으로 전통악기 만드는 곳이 전주 한 곳밖에 없을 정도로 희귀했고, 그 또한 명성을 얻던 시기다. 동란으로 많은 악기를 훼손당한 국립국악원이 김광주 선생에게 악기제작을 의뢰해 함께 서울로 상경하게 된 것이다. 이 일이 인연이 되어 국립국악원에 공방을 마련했다. 가야금 40여대, 거문고 30여대를 제작해 주기도 했다. 66년부터 후배를 양성하기 시작했고, 70년대 그의 명성은 대단했다. 국악고등학교와 단국대, 추계예술대학 등 그의 손을 거치지 않은 작품이 없을 정도로 당시 최태진 선생의 활동은 왕성했다. 국립국악원을 떠나 이곳 경기도 용인에 자리 잡은지는 약 20년 전인 지난 1982년. 한.미 100주년 기념사업으로 미국에 머물던 중 동행한 한국민속촌 관계자의 제안으로 정착하게 됐다. 전통국악기 중에서도 특히 현악기 제조가 주 특기인 그는 가야금과 거문고 등의 대중화된 악기뿐만 아니라 약 20여종에 이르는 전통 현악기를 모두 소화해 낸다. 전통악기 가운데 최태진 선생이 가장 애착을 느끼는 것은 가야금의 청아하고 부드러운 음색. 그 음을 찾는데는 수많은 인내의 시간과 정성을 필요로 한다. 오동나무 공명반과 수십개의 가느다란 명주실을 꼬으고, 그 명주실로 만든 12개의 줄, 12줄을 세로로 받치는 안족(雁足:기러기발) 등 그의 안목과 정성이 손길이 닿지 않으면 도저히 진행될 수 없는 일들이 부지기수다.

악기의 몸체를 이루는 나무는 주로 국산나무를 쓴다. 나무의 질에 따라 소리의 울림이 결정되기 때문에 나무를 고르고 다듬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가야금 상판(울림통)을 고생하여 자란 오동나무를 사용하고, 뒷판(地板)은 밤나무를 사용한다. 대부분 전라도와 강원도 등지에서 자란 오래된 나무를 직접 구해 와 가야금을 만든다. 오래된 나무는 연하면서도 강한 성질을 가지고 있어 소리의 깊이가 더해진다는 믿음 때문이다. 최 태진 선생이 악기제작에 있어 심혈을 기울이는 부분은 통 잡는 일이다. 울림통 안의 소리가 밖으로 나오는 소리의 길목인 울림 구멍의 바탕이 되다 보니 여간 중요한 작업이 아니다. 울림 구멍은 앞에서 조그마하게 표시한 구멍 주위를 수작업으로 일정한 크기로 파낸다. 악기마다 일정한 크기와 간격을 맞춰야 하기 때문에 가장 정밀도를 요구하는 작업이다. 또한 불에 달군 인두로 표면을 태우는 인두질과 좌단장식, 안족 만들기 등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일이다. 가야금은 바로 이러한 여러 작업이 장인의 혼과 결합될 때 비로소 완성되는 예술작품이다. 기능과 혼을 담아내지 못할 때 가야금 소리의 청아함과 깊은 울림은 기대할 수 없다.

가야금의 모든 제작과정은 수작업으로 이루어진다. 나무를 말리고 다듬어 명주를 뜰 대까지 악기 한 대를 만드는데 백번의 손길이 닿는다고 한다. 정성과 솜씨, 미적 감각, 제작기능, 음악에 대한 실기와 이론을 모두 겸비해야 할 정도로 힘든 장인정신을 요구된다.

"정성어린 마음으로 작품을 완성하고, 연주하는 사람으로부터 소리 잘난다는 이야기를 들을 때가 가장 좋습니다. 혼(魂)을 다해 작품을 만드는 정신자세가 가장 중요합니다. 작품을 만들어 전달할 때 자식하나쯤 키워 떠나 보내는 심정이지요."

혼(魂)을 받치는 자세로 작업에 몰두할 때라야만 좋은 작품이 나온다는 최태진 선생은 가끔 몇 십년 혹은 몇 년만에 수선이 들어오는 자신의 작품을 돌려보내지 않는 경우가 있다. 아예 새것으로 바꿔준다. 자신의 손때가 묻은 작품을 다시 갖고 싶은 마음과 작품에 대한 애정 때문이란다. 그럴 때 기분이 제일 좋다고도 했다. 경기도는 그런 그의 독보적인 제작기법과 장인정신, 전승노력의 공로를 감안해 1999년 경기도 무형문화재 30호로 인정하기도 했다. 그런가 하면 최근에는 전라남도 영암군의 전통문화 사업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게 됐다. 가야금의 원고장으로 불리는 이 곳의 맥을 잇기 위한 영암군 측의 배려가 작용했다. 별도의 공방을 영암군으로부터 20여 년 동안 무상으로 제의받고, 20여평 정도의 공간으로 오는 10월 오픈한다. 최태진 선생은 앞으로 이 공방을 많은 학생들이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전통악기에 대한 일반인들의 관심이 사라지고 있고, 제대로 만들고 계승하는 것 또한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쳤다고 생각한다. 무관심한 현실에 대한 비판이자 스스로에 대한 반성도 작용했다고 그는 말한다. 이미 10여명의 제자에게 악기 만드는 기술과 정신을 가르쳤다. 특히 영원한 벗이자 친동생인 최태근(49)씨 그리고 아들인 최정욱씨는 최태순 선생에게는 남다른 존재다. 그의 뒤를 이어 전통악기 제작에 이미 자신을 내던진 수제자들이기 때문이다. 동생 최태근씨는 6살 때부터 36년 간 그의 밑에서 악기 만드는 것을 배웠다. 누구보다도 악기장 최태순 선생이 걸어온 길과 장인정신을 잘 알고 있다. 그런 그에게 최태순 선생은 영암군 문화사업 프로젝트를 전담하도록 했고, 현재 현지에 상주하면서 이 작업을 준비중이다. 가야금 산조의 발상지영암에서 그 문화의 맥을 잇게 하고자 하는 바람에서다. 그런 터라 최태진 선생은 요즘 하루가 멀다하고 용인과 영암 공방을 오간다. 조금한 마음도 그러려니와 경기도의 몇 없는 악기장이자 우리의 전통문화 지킴이로서 전통악기의 원류를 보존하고, 전수하는 작업이 그에게는 남아 있는 큰 숙원이기 때문이다.

진정 사람에게 아름다움이 있고, 향기가 있다면 그건 가치있는 일에 자신의 혼(魂) 태우는 일일 것이다. 그것이 남들이 하지 않는 궂은 일 일지라도 사회적 가치라는 토대위에서 많은 사람들의 정신을 맑게 하는 일이라면 그 아름다움은 더욱 발할 것임에 틀림없다. 옛소리의 맥을 이어가는 최태진 선생의 숨은 장인정신은 그런 의미에서 향기나는 즐거운 일로 기록될 것이다.

# TURKEY

## '관용'이 만들어낸 찬란한 공존의 문화 터키 이스탄불

글 | 유경희 (미술평론가)

이스탄불은 속 깊은 바다 같다. 그만큼 제 속살을 쉽게 드러내 보이지 않는다. 그 장구한 역사의 지층을 그렇게 단 며칠 사이에 보여줄리 만무다. 아가사 크리스티의 '오리엔트 특급 살인'의 무대가 되었던 도시, 육상실크로드의 끝이자 해상실크로드의 시작인 도시, 카펫과 보석의 도시, 동양과 서양이 공존하는 도시 등을 떠올리게 만드는 이스탄불은 왠지 다른 도시보다 훨씬 더 풍부하고 모호한 신비로 무장한 듯 여겨진다.

무엇보다 그 신비한 아우라는 동양과 서양이 혼재한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동서양을 동시에 감상할 수 있는 도시가 거의 유일하게 이스탄불뿐이라는 역사적 사실이야말로 나를 그곳으로 이끈 가장 중요한 이유였다. 도대체 문화의 트기 혹은 퓨전이라니? 이스탄불은 이미 수 천년 전에 이런 포스트모던 예술양식을 소화할 수 있었던 전위적인 너그러움을 지니고 있었던 말인가? 이스

탄불로 떠나기 전 내 마음속의 이스탄불에 대한 호의적인 '편견과 선입견'은 한껏 과장되어 있었다. 그 정도라면 아마 낭만주의적 정조를 가진 유럽인이 페르시아를 '동경'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이제, 만약 이스탄불을 한마디로 정의하라고 한다면 어떻게 말할 것인가? 물론 한마디로 단정지을 수 없다. 그런데도 굳이 얘기하자면, "이런가 하면 저렇고, 저런가 하면 이렇다"이다.

단지 혼합문화라서 이렇게 말하는 것만은 아니다. 어쨌거나 표현이 아닌 '포기'에 속하는 발언을 할 수밖에 없는 나를 용서하시길 바란다. 그리고 직접 가보시기 바란다. 인간이 예술을 통해 도달한 신의 경지는 신(神) 이상이다. 이스탄불과 터키 전체가 그렇다. 종교박해를 피해 동굴 수십 미터 아래 마련한 지하도시에서 우리는 신(神)을 생각하겠는가, 아니다. 신에 대한 경외가 아니라, 신에 도달하려는 인간을 느끼고 배우게 된다. 그것이 아마 이 도시, 이 나라가 존재하는 이유일 것이다. 그러면서 생각한다. 우리 조상들은 뭐하고 있었던 거냐고 말이다. 그러면서 한편으로 몇 백년이 흐른 뒤에 후대의 누군가가 우리를 향해 똑같은 볼멘소리를 해댄다면, 우리는 이런 불평을 말소하기 위해 지금부터라도 실천적인 강박관념을 가져야 한다.

이 글은 이스탄불의 현재의 문화행정과 정책에 관한 내용이라기보다는,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어떻게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세계적 문화유산의 보고가 될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초점이 맞추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터키인들이 타 민족과 문화를 어떻게 포용하고 융화시켜 나갔는지 대해 살펴보는 장이 될 것이다.

## 이스탄불의 역사는 세계의 역사

이스탄불은 하나의 도시가 아니다. 뉴욕이나 로마가 일개 도시가 아니라 국가로 여겨지는 것처럼 이스탄불 또한 하나의 완전한 국가로 느껴진다. 이스탄불의 역사를 이해하는 길은 터키의 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 전체를 이해하는 것과 맘먹는다. 히타이트, 앗시리아 같은 고대 오리엔트 문명에서부터 그리스 로마, 초기기독교, 비잔틴문화 그리고 이슬람문화의 진수들이 이스탄불이라는 한 도시, 그것도 길 하나 사이를 두고, 또는 한 장소에서 만나고 있기 때문이다. 그 이름만 들어도 황홀한 성 소피아, 블루모스크, 톱카프궁전, 지하궁전 등이 몇 분 거리 안에 산재해 있는 곳이 바로 이스탄불이다. 단지 작은 어촌에 불과했던 이스탄불은 BC 660년 전 최초로 그리스인들이 이주 정착하여 상업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그후 AD 196년 로마황제 셉티미우스가 이 도시를 점령, 로마제국의 영토로 편입된다. AD 330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이곳을 로마제국의 수도로 공표, 자신의 이름을 따 콘스탄티노플이라고 부른다. 그러다가 이 도시는 로마 제국이 동서로 분열된 395년 이후 동로마제국의 수도가 되었으며, 476년 서로마 제국이 멸망한 후 동로마 제국은 역사가들에 의해 비잔틴제국으로 불리워진다. 527년부터 565년까지는 비잔틴제국의 최고 전성기로서 이스탄불에 현존하는 대부분의 기독교 유적들은 이 시기에 축조되었다. 그러나 1453년 비잔틴제국의 콘스탄티노플은 동부 아나톨리아 지방으로부터 세력을 팽창해오던 터키 부족의 오스만제국의 침공으로 함락되고 수도 이름은 이스탄불로 바뀌었다. 그 후 이스탄불은 약 450년에 걸쳐 오스만터키제국의 수도가 된다. 1876년 프랑스 혁명의 영향으로 국회를 수립, 입헌군주국을 표방하게 되지만 제1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함께 연합국에 합류했다가 패전한 뒤 서구 열강들의 세력각축장으로 변하고 말았다. 그러던 1919년 '터키의 아버지' 라 불리는 무스타차 케말 파샤가 그리스군의 침공을 물리치면서 독립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결국 독립을 쟁취한다. 드디어 1923년 10월 29일 터키공화국이 선포, 오스만터키 제국은 종말을 고하게 된다. 이렇게 부침이 심했던 이스탄불이 그저 단순한 나라의 수도가 아닌 제국(帝國)의 수도였다는 점은 매우 독특한 유산을 남기게 했다. 로마제국, 비잔틴제국, 오스만터키 제국이라는 3대 제국의 수도로서의 이스탄불이 의미하는 바는 무

엇이며 그 모습은 어떠한가? 세 제국의 수도로서 이스탄불의 역사 지구는 바로 베야지트 광장을 중심으로 반경 1km 내에 모여있다. 이 도시는 로마와 마찬가지로 도시 전체가 유적지로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문화유산이다. 그곳은 진정 토인비의 말대로 '인류문명의 살아있는 거대한 옥외박물관'이라 할만하다.

이스탄불이 이렇게 다양한 문화가 교류되고 혼합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이스탄불이 지닌 지정학적 중요성, 그러니까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접점으로서의 위상과 사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천혜의 환경으로 인하여 항상 다민족의 각축장이 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 하나님과 알라가 공존하는 성소피아

이스탄불이라는 도시가 주는 화두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공존'이다. 그러니까 이스탄불은 한 민족과 문명이 다른 민족과 문명을 만나 어떻게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마치 하나의 교훈처럼 들려주고 있다고나 할까? 그 극단적인 실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세계 8대 불가사의 중의 하나인 성 소피아성당이다. 현재의 성 소피아(소피아는 지혜를 뜻한다)는 하나님과 알라가 공존하고 있다. 비잔틴시대의 첫 황금기를 상징하는 성소피아는 콘스탄티누스 1세에 의해 360년에 완성된 그리스정교회의 총본산이었다. 몇 차례 재건을 거친 성소피아는 오스만터키제국의 치하에서는 500년 동안 이슬람사원으로 사용되었고, 제국이 멸망한 후 1933년에는 박물관으로 지정되어 오늘날에 이르게 된다. 아마 그리스정교와 이슬람이 공존하는 역사의 현장으로서 이만한 규모와 예술성을 자랑하는 곳도 없을 것이다. 이스탄불에 와서 성소피아 성당 한곳만 보고 돌아간대도 별로 후회스럽지 않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이것은 진정 감동의 건축이다. 그렇다면 오늘날까지 성소피아가 남아있을 수 있었던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오스만터키가 이끄는 이슬람은 정복전쟁에서 승리한 후에 약간의 약탈을 감행했지만 콘스탄티노플 즉 이스탄불만은 제외시켰다. 실제로 비잔틴시대의 성당과 궁전내부의 화려한 성화를 파괴한 장본인은 오히려 십자군 원정군들이었다. 그러니까 성화들은 이슬람교도에 의해서가 아닌 기독교도의 우상파괴운동에 힘입어(?) 무참히 파괴된 것이다. 특히 당시 이스탄불을 지배했던 오스만터키제국의 술탄 마흐메드 2세의 행동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을 만큼 관용적이다. 예컨대 오스만제국이 들어선 이후 바뀐 것은 성당이 모스크가 되었고, 따라서 모스크 안에 메카를 향하는 경배당이 추가되었을 뿐이다. 더욱이 그들은 우상을 섬기지 않기 때문에 기독교 유적을 조금도 훼손하지

아야소

않고 그저 자신들의 코란문양을 기존의 성화에 덧입혀 놓기만 했던 것이다. 비잔틴의 성화도 아름답지만 그것을 파괴하지 않은 오스만제국의 포용력은 더욱 아름답게 느껴진다. 이런 흔적이 남아 있는 곳이 바로 성소피아 성당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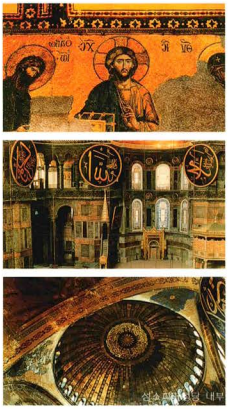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치지가 다르긴 해도 우리는 국립중앙박물관을 역사적 수치의 상징이라 하여 깡그리 부숴버리지 않았던가? 그렇다고 패망의 역사가 영광의 역사로 바뀐단 말인가? 더군다나 오스만터키제국은 치하에 들어온 다양한 민족의 이교도에게 종교와 관습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배려했다. 패자가 노예로 팔려가거나 죽음을 당하던 당시 상황과는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게다가 정책상 이슬람교도가 아닌 사람들에게 주어진 불이익이라고는 세금을 더 내는 것뿐이었고, 이것도 이전의 비잔틴제국 시절보다 가벼운 것이었기에 이교도로서는 당연히 환영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이런 유화정책은 이민족의 종교와 사상과 신화가 이스탄불이라는 용광로 속에 자연스럽게 용해되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는 힘으로만 지배하려던 서구의 방식보다 훨씬 높은 수준의 교화정책이요 세력확장이 아닐 수 없다. 예로부터 이스탄불은 그리스인, 아르메니아인, 유태인, 헝가리인, 이탈리아인 등의 다양한 민족이 별 무리 없이 지내온 것으로 유명하다. 그러니 현대의 터키 공화국은 선조들이 그랬듯이 지금도 여전히 공존과 화해의 문화를 만들어내고자 하는 '관용'을 기본적인 덕목으로 갖춘 지구상에 흔치않은 혼혈의 천국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 유럽과 아시아를 넘나들다

이스탄불은 아시아와 유럽의 양 대륙에 걸쳐있는 유일한 도시다. 이스탄불을 유럽과 아시아로 분리하는 것은 보스프러스 해협이고, 유럽 이스탄불을 오스만제국의 구도시와 갈라타 항구로 분리하는 것은 골든혼이다. 유럽 이스탄불은 예술과 상업의 중심지로, 아시아 이스탄불은 거주지로 활성화되었다. 유럽지구와 비교해 아시아 지구는 다소 조용하다. 그만큼 소박한 맛이 있고, 땅값도 싸서 아시아지구에서 유럽지구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다.

보스프러스 해협에는 현재 두 개의 다리가 세워져있는데 이것으로 인구 천만 이상을 실어나르기에는 역부족이다. 서울의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가 몇 개인가를 생각하면 이스탄불의 교통체증의 심각성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스탄불 시민은 교통체증을 피해 페리보트(Feribot), 바다버스(Deniz Otobus), 단거리 여객선 등 수상교통수단을 적극 활용하고 있다. 바다버스는 이스탄불 시에서, 여객선과 페리보트는 터키해운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이용료는 저렴한 편이다. 이러한 수상교통수단은 두 대륙의 여러 선착장에서 출발, 시간 안에 목적지에 안전하게 모셔다준다. 서울시민의 발이 지하철이라면 이스탄불 시민의 발은 수상보트라고 할 수 있다. 다른 것이 있다면 배에서 아침식사 대용으로 간단한 샌드위치와 차를 판매한다는 점이다. 이스탄불의 심각한 교통난을 신속히 해결하지 못하는 이유는 사방이 모두 유적지로서 도로를 확장하지도 새로 만들지도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예산부족으로 문화재의 이전 혹은 도로정비 마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분명 이스탄불은 복잡하고 깨끗하지 못한 도시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서울처럼 쭉쭉 뻗은 4차선 이상의 도로를 그곳에선 찾아볼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탄불에 와서 감히 교통과 도로사정을 탓하거나 깨끗하지 못한 거리환경을 탓하는 관광객은 거의 없다. 지나친 개발과 전쟁 등으로 문화재가 훼손되어가는 요즘 이스탄불의 문화재보호정책은 오히려 불편한 교통, 낙후된 시설쯤은 아무렇지도 않게 견디도록 여행자를 너그럽게 만드는 것이다. 유럽 이스탄불 구시가지의 미로처럼 얽힌 골목을 걸어 보라! 로마제국 시절에 포장된 것으로 보이는 반질반질한 돌길이 너무도 정겨우며, 심지어 지난날의 영광과 향수를 느끼게 하지 않던가. 어쨌거나 관광의 대부분이 이스탄불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만큼 시정부는 심각한 교통난을 해소하기 위해 시내 지하철을 건설하고 있으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보스프러스 해저 전철건설을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 관광산업과 EC가입

터키 정부는 수도인 앙카라에 행정 · 외교 등을 떠맡기고 있지만, 구수도인 이스탄불은 지금도 여전히 수도 이상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현재 이스탄불은 경제, 문화, 관광, 통신의 중심지로, 대부분의 국제 회의, 박람회, 음악회, 패션쇼, 체육경기 등이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다. 제반시설이 집중되어있는 데다 세계적인 인지도 또한 갖추고 있어 도시는 늘 활기로 넘친다. 매년 6, 7월에 개최되는 〈국제문화예술제〉는 세계적으로 유명하다. 이 예술제는 유럽 이스탄불의 탁심광장 및 아타투르크 문화회관에서 열린다. 보통 이곳에서는 클래식 음악, 오페라, 발레, 영화, 전람회, 회의 등 다양한 이벤트가 개최된다. 입장료도 저렴하여 대중들이 접근하기 쉽다는 것이 큰 장점이다. 이스탄불은 3,500㎢의 면적에 전 인구의 1/6인 1,200만 명이나 되는 메트로폴리탄이다. 이 말은 당연히 터키 산업의 1/6이 이스탄불과 인근 도시에 집중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개발도상국형 인구 밀집이 실업, 주택, 교통 등의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게다가 지난 1999년에 이스탄불 근교에서 발생한 대지진은 터키산업 전반에 커다란 위기를 가져왔다. 터키의 낙후된 경제력은 이스탄불을 필두로 한 관광산업으로 보강하고 있다. 터키는 1980년대부터 관광산업에 관심을 갖고, 외국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치고 있다. 실상 터키는 에게해, 지중해, 마르마라해, 흑해 등 사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천혜의 자연은 물론이고, 에게해와 지중해 연안을 따라가면 에베소, 트로이 등 고대유적이 즐비한 보기 드문 관광자원을 가진 나라이다. 이러한 터키의 유적을 보려는 관광객이 해마다 크게 늘고 있다. 아직까지 관광객의 대부분은 유럽인인데, 어찌 보면 유럽인들은 자신들의 뿌리를 확인하기 위해 터키를 방문한다고 볼 수 있다. 터키 정부는 문화도시로서의 이스탄불을 거듭나게 하기 위해 EC 가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있는 듯 하다. 얼마 전 동유럽의 몇 나라가 EC에 무난히 진입했지만 이스탄불은 고배를 마셨다고 한다. 물론 터키는 문화적 유산으로 보아 세계 그 어느 나라에 뒤지지 않는다. 그러나 아직까지 타 유럽 국가에 비해 국민소득이 매우 낮고, 인플레가 극심하며, 교통문제와 환경위생 문제 등 제반 관광시설이 취약하다는 점이 번번이 EC의 가입을 수월치 못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모양이다. 실제 이스탄불을 여행하면서 인플레로 인한 화폐가치의 하락으로 물건을 사고 택시를 타는 데 어려움을 겪어야했다. 관광객에겐 환전하는

일만 없어도 훨씬 부담없는 여행을 즐기기 마련이다. 나 역시 1달러가 백만 리라가 넘는 그들의 화폐단위가 여행이 끝나갈 즈음에도 익숙해지지 않아 애를 먹었던 기억이 난다. 돈 계산을 못해서 벌어진 황당한 일이 한둘이 아니었다. 괜찮은 식당에서 서너 사람이 식사를 하면 1억 리라가 넘는 계산서가 나온다. 게다가 택시를 탈 때마다 요금을 계산하지 못해 쩔쩔매면서 택시운전사한테 적당히 알아서 가져가라고 돈을 내민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정말 웃지 못할 해프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그들은 모두 백만 장자들이었다.

이 나라가 EC 가입이 성공하게 되는 머지 않은 미래에, 이스탄불 여행은 보다 수월한 일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로마가 관광자원으로 이탈리아의 재정을 담당하는 것처럼 이스탄불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외화를 벌어들이게 될 것 또한 자명한 사실이다.

## 술(酒)이 아닌 차 권(茶)하는 사회

터키는 차(茶)의 나라다. 그들은 차 한잔으로 장사를 한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모든 거래는 차로 시작하여 차로 끝난다. 담배와 차를 즐기는 터키남자들은 담배로 절은 몸을 순화하기 위해서인지 늘 차를 입에 달고 산다. 우리는 그들의 차 대접을 일종의 에티켓처럼 부담스럽지 않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차와 함께 시작되는 그들의 상술은 진정 세계적이다. 예를 들어 이스탄불 거리를 걷는 사람들 중 십중팔구는 카펫과 관련된 사람들이다. 아주 어린 꼬마들까지 거리에서 친절하게 접근, 자기네 삼촌이 운영하는 카펫가게에 사과차를 마시러 오라며 명함을 건낸다. 그런데 그런 집요한 장삿속이

이스탄불은 바로 이 광장을 중심으로 1km반경에 모든 유적지가 모여있다

그렇게 밉지 않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아마 그것은 그들의 태생적인 마초기질과 겉치레가 아닌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친절, 그리고 6.25 참전국으로서 우리를 형제로 여길 만큼 감동적으로 좋아한다는 사실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아마 그들의 눈빛에는 여러 문명과 문화를 포용했던 관대한 조상들의 시선이 배어있기 때문은 아닐까? 나는 이스탄불 여행을 통해서 그리고 그 여행을 환기하는 이 글을 쓰면서, 무엇보다 오늘날의 이스탄불이 될 수 있었던 이유를 명료히 깨닫게 되었다. 바로 누누히 언급했던 '관용'이다. 관용이란 자기와 다른 것, 자기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애정이다. 나는 "우리 것은 좋은 것"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을뿐더러 믿지 조차 않는다. 그것은 문화에 대한 우열의식에서 나온 콤플렉스로밖에 여겨지지 않는다. 문화는 그 어느 것이든 동등한 존재가치를 부여받아야 한다. 나는 이런 사실을 이스탄불을 통해 새삼 배우게 되었다. 잠시 이슬람의 술탄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싶은 맘이다.

日本

Japan

# 일본의 지역문화예술진흥 체계와 문화재단

글 | 추미경 (사)다움문화예술기획연구회 기획실장)

일본 지역문화예술진흥 체계에서 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은 우리나라의 문화재단이 지역에서 부여받고 있는 것과 유사하다. 일본의 경우, 미국이나 유럽 국가들에서 볼 수 있는 지역 단위 아츠 카운실(Arts Council) 대신에 지자체가 설립한 문화재단이 지역에서 문화예술진흥을 전담하는 기구로 설립 · 운영되고 있다.

1997년 경기문화재단의 설립 이후, 각 지자체가 지역 문화예술진흥을 전담할 수 있는 문화재단을 설립하였거나 설립추진 중에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의 문화재단 체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현(懸)단위(우리나라 도 단위 규모와 유사한 일본 행정구역)의 문화재단에서부터 작은 시의 문화재단에 이르기까지 행정 단위별로 다양하게 설립되어 있는 일본의 문화재단이 지역사회에서 수행하고 있는 역할과 기능을 살펴보는 것은 국내 문화재단의 전망을 모색하는데 선험적인 사례로서 의미가 있을 것이다.

## 일본 문화예술진흥체계에서 지역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

지자체가 설립한 지역문화재단의 위상과 역할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일본의 전반적 문화예술진흥체계 속에 문화재단을 위치시켜 볼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을 진흥하기 위한 일본의 문화행정체계 속에서 지역의 문화재단이 부여받고 있는 역할을 객관적으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문화관련 중앙 행정부서로는 교육, 문화, 스포츠, 과학기술을 포함한 문화관련 정책을 포괄적으로 관장하는 문부과학성(文部科學省, Ministry of Education, Culture, Sports, Science and Technology)이 있고, 그 산하에 '문화'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문화청(文化廳, Agency for Cultural Affairs)이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과 같은 전국 차원의 문화예술진흥기구로는 일본예술문화진흥원(日本藝術文化振興院, Japan Arts Council)이 있는데, 일본예술문화진흥원은 일본예술문화진흥기금(日本藝術文化振興基金, Japan Arts Fund)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예술문화진흥원은

요사코이마쓰리

서 설립되었고, 그 역할과 위상에서도 차이가 있다. 일본예술문화진흥원의 전신은 1966년 설립된 일본국립극장(日本國立劇場)이다. 일본국립극장은 설립 이후 일본 전통예술을 보존하고 장려하기 위한 몇 개의 국립극장으로 확대되어 1979년에는 국립공연예술극장(國立演藝場, Performing Arts Hall)이, 1983년에는 국립노가쿠극장(國立能樂堂, National Noh Theatre)이, 1984년에는 전통인형극인

과는 다른 배경에

분라쿠의 활성화를 위한 국립분라쿠극장(國立文樂劇場, National Bunraku Theatre)이 설립되었다. 여러 개의 문화시설로 확장된 일본국립극장은 1990년 일본 중앙정부의 문화예술진흥 정책과 맞물려 일본예술문화진흥원으로 재구성되었고, 1991년 중앙정부가 500억 엔을 출자하여 일본예술문화진흥기금을 설립하게 된다. 일본예술문화진흥원의 주요 활동은 세 가지로 요약되는데, 일본예술문화진흥기금의 운용, 5개의 극장으로 구성된 국립극장의 운영, 1997년 현대연극작품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립된 신국립극장(新國立劇場)의 운영이다. 일본의 예술문화진흥원은 서구의 아츠 카운실과 달리 국립문화예술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주요한 업무이며, 예술문화진흥 기금운영 사업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약하다. 이는 국립극장이라는 국가문화시설이 전신이 되어 문화예술진흥기구로 전환된 일본예술문화진흥원의 역사 속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후 설립된 지역문화재단이 기본적으로 지역의 문화관련 시설을 위탁 운영하는 것과 연관된 역사적 맥락이라 하겠다. 일본의 지역문화진흥 체계는 현재 지자체의 문화관련 부서와 지역단위의 문화재단이

가은마츠리

다. 일본에서 지역단위 문화예술진흥 기구로 문화재단이 설립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이지만 본격적으로 지역에 확장된 것은 1990년 초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세계대전 이후 1950~60년대의 급속한 경제발전을 바탕으로 세계적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일본은 1980년대를 즈음해서 경제적 풍요로움을 넘어서는 문화적 삶의 질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전반적으로 확산되기 시작하였다. 경제성장의 논리 속에서 중앙과 지역의 분화나 격차가 매우 심해지고, 또 지역적 차이가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인식되면서 지역문화 활성화 정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속에서 지자체는 지역문화진흥을 전담할 수 있는 독자적인 기구로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지자체와의 긴밀한 관계 속에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현재는 우리나라의 도 단위와 유사한 현(懸) 단위별로 문화재단이 거의 있는 편이며, 토쿄도와 같은 광역 단위의 도시에서부터 수십만 규모의 작은 시에도 문화재단이 설립되어 지역별 문화예술진흥을 전담하는 기구로 운영되고 있다. 각 지역의 문화재단이 주로 맡고 있는 것은 지역 단위의 문화시설을 재단으로 묶어서 위탁 운영하는 것이며, 그 외에 전통예술이나 문화재를 보존하기 위한 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기금운용사업,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정보화사업, 지역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 기획사업 등을 지역에 따라 비중을 달리 하며 추진하고 있다.

### 현(懸) 단위 문화재단 사례

에히메현 문화진흥재단(財團法人 愛媛懸文化振興財團)

에히메 문화재단은 일본에서 지역문화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활발해지기 시작한 1980년 12월에 만들어져 사무국이 구성된 1981년 4월부터 운영되기 시작한 현 단위의 지역문화재단이다. 재단운영의 재원은 설립시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익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재단의 기금조성은 설립이후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왔다. 재단기금 조성목표액은 1조 5천억 엔이며,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15억 1천 7백만 엔이다. 현재까지 조성된 기금은 에히메 문화재단이 초기에 조성한 기금 79%, 시지원금 3.3%, 민간기부금 17.7%로 구성되어 있다. 에히메 문화재단은 문화적 인지 촉진사업, 문화정보 제공사업, 문화활동 추진사업,

요사코이마츠리

문화정보의 확산과 촉진사업, 전통문화의 보존과 계승사업, 에히메 현 컨벤션 홀 운영사업, 에히메 현 시민문화센터 운영사업 등을 하고 있다. 문화정보제공을 위한 출판물로 '文化愛媛' 라는 정기간행물을 발간하고 에미메 현의 문화사업과 관련된 책자를 출판한다. 에이메 현의 문화예술활동을 촉진하기 위한 기금운용사업도 부분적으로 하고 있으며, 독자적으로 에이메 현 컨벤션 홀이나 시민문화센터에서의 문화공연이나 전시를 기획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에미헤현 문화재단의 주요한 사업영역은 컨벤션 홀의 운영과 시민문화센터의 위탁 운영이다.

코치현 문화재단(財團法人 高知懸 文化財團)

코치현 문화재단은 1990년도에 설립된 120명 직원 규모의 현 단위 문화재단이다. 코치현 문화재단이 추진하는 사업은 주로 코치현 관할 문화시설인 역사민속자료관, 미술관, 문학관, 현민문화회관, 이장문화재센터, 坂本龍馬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것이며, 그 외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사업, 문화진흥 추진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코치현 문화재단의 연간 운용예산은 약 23억 엔인데, 이중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이 1천만 엔으로 사용되고, 자체 문화진흥 추진사업으로 1억 4천만 엔이 사용되며, 나머지가 위탁 운영하는 문화시설의 운영비로 사용되고 있다. 직원 120명 중 위탁 운영하는 문화시설에 속한 직원이 96명이며, 이사회 임원이 15명, 재단사무국 직원은 9명이다. 코치현 문화재단은 코치현의 문화환경부 문화추진과 산하기구로 편제되어 있으며 이사장은 현의 지자체 단체장이 맡고 있다. 전체 120명의 문화재단 직원 중 현 파견 공무원은 35명이고 재단 자체 직원이 26명, 그 외 프로젝트로 결합된 위탁 인력이나 비상근 인력이 59명이다. 코치현 문화재단의 사업예산과 인력의 대부분은 관련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에 배치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일본의 대다수 지역문화재단의 인력 및 예산운용 구조가 이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 시 단위 문화재단 사례

#### 토쿄도 역사문화재단(東京都歴史文化財團)

토쿄도 역사문화재단은 토쿄도의 문화예술진흥 및 역사적 유산의 계승과 보존을 위해 1982년 설립되었다. 토쿄도 역사문화재단은 일본 지역의 다른 문화재단과 마찬가지로 가장 주요한 업무가 토쿄도 산하 문화관련 시설의 위탁 운영이다. 토쿄도 역사문화재단이 운영하고 있는 시설은 총 8개로 토쿄도 테이엔(정원) 미술관, 에도 토쿄 박물관, 에도 토쿄 건축박물관, 토쿄도 사진박물관, 토쿄도 현대미술관, 토쿄도 미술관, 토쿄 문화회관, 토쿄 예술극장이다. 토쿄도 역사문화재단은 문화시설의 운영 외에 지역문화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사업, 국제적 도시 토쿄를 만들기 위한 국제문화교류의 추진, 적은 액수의 문화예술진흥 기금사업, 문화정보 보급사업, 문화활동 기획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2년 토쿄도 역사문화재단의 직원 293명 중 재단사무국에 배치된 인력은 30명이며, 나머지 263명이 8개 문화시설의 기관장 이하 직원들이다. 즉 토쿄도 역사문화재단의 인력은 주로 위탁 운영하는 토쿄도 문화시설에 속해 있는 인력이며, 재단 사무국의 기획인력은 사무국 인력 중 총무 및 시설국 인력을 제외할 경우 실제적으로 매우 적은 비중이다. 이러한 인력구조는 문화재단의 주요한 임무가 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독자적인 사업의 추진보다는 토쿄도 산하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임을 알 수 있다. 예산구조에서도 마찬가지의 구조를 보이는데, 2002년 현재 연간 약 100억 엔을 운용하고 있지만 예산의 대부분이 관련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에 사용되고 있고 적은 예산으로 문화진흥을 위한 그 외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 나고야시 문화진흥사업단(財團法人 名古屋市 文化振興事業團)

나고야시의 문화진흥사업단은 다른 도시의 문화재단과 동일한 기능을 하고 있지만 명칭을 문화진흥사업단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단법인 나고야시 문화진흥사업단은 1972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나고야시 시민회관관리공사와 1983년에 설립된 재단법인 나고야시 문화진흥사업단이 별도로 활동하다가 1999년에 재단법인 나고야시 문화진흥사업단으로 통합된 것이다. 일본예술문화

진흥원과 마찬가지로 나고야시의 문화재단인 문화진흥사업단도 시민문화회관이라는 문화시설을 전신으로 하여 문화진흥사업단의 기능으로 전환함으로써 지역문화시설의 위탁 운영이 자연스럽게 사업단의 주요 업무로 배치되었다. 현재 나고야시 문화진흥사업단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시산하 문화시설은 시민회관, 시민예술 창조센터, 청소년 문화센터와 같은 주요 문화시설에서부터 나고야시의 지역별로 위치해 있는 작은 극장에 이르기까지 총 23개이다. 나고야시 문화진흥사업단은 6천만 엔의 연간 예산규모로 운영되고 있는데, 수입원은 기금의 이자수입, 나고야시의 위탁 보조금, 기부금, 그 외 기타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고야시 문화진흥사업단이 문화시설의 위탁운영 외에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현대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투자사업, 전통문화 보급사업, 나고야시 문화사업의 위탁 운영 등인데, 사업단의 주요 업무는 나고야 시의 문화관련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다.

일본 사례의 시사점

일본의 문화재단은 지역별로 규모의 차이가 있지만 대동소이한 운영구조를 가지고 있다. 대체로 해당 지역의 지자체와 긴밀한 관계 속에서 지자체 산하 문화시설의 위탁운영이 지역문화재단의 주요한 업무 영역이며, 그 외 지자체 문화사업의 위탁운영, 문화예술진흥 기금사업, 자체 문화예술진흥 추진사업 등이 부분적인 업무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전체 문화재단의 인력구조 역시 재단이 위탁 운영하는 문화시설에 속한 인력이 대다수이며 문화재단의 독자적인 일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전담 인력은 매우 적다. 예산운용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예산이 문화시설의 운영비용으로 책정되어 있어, 문화재단이 지역문화예술진흥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한계가 따를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는 지역의 문화예술진흥을 전담하는 독자적 기구인 문화재단이 외형상으로는 상당한 예산규모 및 인력구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실제적으로는 지자체 관할 문화시설의 운영에 집중되어 있어, 민간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양성하기 위한 지원 기금이나 촉진 프로그램을 운영하기에는 매우 어렵게 된다. 즉 지역의 문화재단은 거대한 지자체 관할 문화사업단의 기능을 하게 된다. 현재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거나 향후 설립될 국내 지역문화재단 역시 일본의 지역문화재단과 유사한 운영구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지자체 관할 문화시설의 인력 및 운영구조가 문화예술행정의 전문 인력구조가 아닌 관료적 행정구조에 의해 운영되고 있어서, 그 시설을 그대로 문화재단이 포괄하였을 경우 문화재단의 덩치는 커지지만 지역문화진흥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문화행정 구조의 정립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될 것이다.

# 경기도는 지금


경기도를 움직이는 문화인맥(음악편)
- 오케스트라와 함께하는 경기음악

작품 Review
- 거리에서 만난 조각품 제2회 고양야외조각축제
- 경기도에서 만나는 캣츠의 감동

통신원소식
- 의정부 토요문화가 사랑
- 평택역사문화학교 향토기행
- 제9회 수원시민통일한마당
- 과천 한마당축제

# 오케스트라와 함께 하는 경기음악

글 | 오현규(경기도음악협회 회장)

## Orchestra

음악이 발달하면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더 승화되고, 그 다음 단계로 오페라가 무대에 올려지게 된다. 지금 경기도내 곳곳이 오페라와 더불어 오케스트라의 열정적 화음이 용트림하며, 경기도의 예술적 세계를 꽃을 피우고 있다. 경기음악의 뒤안길을 찾아 거닐어 본다.

예술의 세계에서 인맥과 학풍은 매우 끈적하게 연계된다. 그러나 음악은 인맥이라기 보다 장르에 따라 발성기법, 연주법, 건반테크닉, 지휘법 등에 따라 그 맥을 같이 하게 된다. 현대에 와서는 기획력 있는 이벤트에 따라 연주 단체의 음향이 장중하거나 여리어 지는 것과 같이 오페라의 무대까지도 장르에 따라 그 맥을 달리하는 표현의 세계가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합창세계를 예로 들면, 미국 웨스트민스터 합창 양식과 유럽 동구권의 합창 양식이 양대 산맥으로 공존하는데 한동안 경기지역 합창단들은 미국 양식의 발성법만이 정통인양 만능이 되었으나 그후에 러시아 등 동구권 음악이 시대적 조류에 따라 점목되니 이제는 합창 지도법 또는 발성 자체가 다르게 연주되어 표현되는 것이다. 미국양식은 두성에 의존하지만, 러시아와 유럽풍은 가슴과 몸통을 울리는 중후한 소리에 합창의 새로운 연주법이 우세하게 되는 것이다.

국내 합창단들의 양식을 미국양식은 수원시립합창단(이상길) 또는 윤학원 스타일이라고 하며, 러시아적 양식은 안산시립합창단(박신화)와 성남시립합창단(이기선)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고인이 된 전평화 스타일의 안양시립합창단은 오페라적 발성으로 단원40~50명이 국립경찰관악단 60인조의

난파예선

반주 소리를 능가하는 괴력을 발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음악의 인맥과 장르는 서로 연계된 상태에서 기획력 있는 공연에 따라 이합집산 되기도 한다.

## 1단계- 경기음악의 샘(泉)

경기음악은 그 원천이 난파음악제라 할 수 있다. 수원시 팔달산 중턱에 1968.10.15 난파노래비가 건립되면서, 난파음악제가 1969년 홍난파 추모일인 8월 30일 제1회 난파음악제가 수원 국제극장에서 개최되면서 음악의 샘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그 당시 양악의 음악은 교육계의 학교에서 음악시간을 통하여 이루어지면서 겨우 양악의 씨를 뿌려 터 밭을 일구고 있던 시절이었다. 따라서 경연대회도 중·고등부와 일반부가 함께 하며, 북부지역(의정부 근교)과 서부지역(인천지역), 그리고 수원지역(경기남부권)으로 나누어 예선을 거쳐 추모일을 기점으로 난파음악제가 개최되어 그 당시에는 음악도들의 유일한 등용문이었다. 이제는 35회째를 맞이하며 대학과 일반을 위주로 전국 규모의 대회로 성장하며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난파의 친일 시비에 휘말려 흑백 논리의 이념 논쟁을 거치면서 급기야 2003년 3월 홍난파를 재조명하는 심포지엄이 열려 서양음악의 선구자로 자리매김 하는 역사적 사실도 있었다.

어쨌든 제1회 난파음악제부터 입상한 음악인들이 이를 발판으로 하여 지금은 불혹의 나이지만 후진양성과 연주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성악은 한규용, 김미자, 박승란, 지재선, 유영애, 이영숙, 이윤정, 오경자 그리고 재미 음악가 손효숙 등이 있다. 피아노에는 송향지, 신명원, 진미화, 남기옥, 박미영, 김혜라, 김명신 등이 있다. 지휘분야에는 합창부문 임상팀을 지휘한 이상길 오현규 이병직 임창배 최홍민 등이 합창지휘자로 활약하고 있으며, 15회 난파음악제에 처음 실시된 작곡부문 대상 수상자인 유건주는 한국예술종합학교에 교수로 출강하고 있다.

## 2단계- 앙상블의 향연

경기음악의 중흥기는 연주단체, 특히 합창단들의 활발한 무대가 이를 뒷받침하여 주었다. 난파음악제의 샘(泉)이 불씨가 되어 음악제를 거쳐간 많은 음악도들이 각처에서 실크로드 같은 음악 활동과 보급으로 파급효과가 배가되기 시작하였다. 수원지역을 중심으로 60년대에 최초의 현악 4중주단 (송태옥, 조용환(작고), 이석기, 이명재)은 초기 단계의 도화선이 되였으며, 1966년 난파합창단의 창단은 그 의의가 경기음악계에 역사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고 하겠다. 따라서 슬람미여성합창단, 경기도청합창단, 선경선영회합창단, 안양쌍투스, 안성산내들, 평택단비합창단 등의 창단과 활동은 그 파급효과를 볼 때, 수원중심에서 점차 지역이 확대됨을 알 수 있었다. 기악 앙상블도 수농향음회와 수원대학생의 향예회의 활동은 기악연주의 기지개를 펴기 시작한 동기가 된 것으로, 무엇보다도 1982년 수원교향악단(송태옥, 박훈)등의 활동은 경기지역에 교향악단 불모지에 그 효시가 되어 경기도에 최초로 시립 단체인 수원시립교향악단이 창단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난파합창단을 모체로 수원시립합창단(이상길)이 창단 되며, 새마을 운동의 시대적 배경에 난파어린이합창단(김정자)의 재 창단으로 현재 성정문화재단의 모체가 되었으며 수원콘서트콰이어, 선경선영회, 대한어머니 등 합창 단체들의 용트림이 시작 되었다. 각 자치단

체들이 지원하는 어머니합창단이 83년 수원시어머니를 필수로 84년 광명시, 85년 부천시, 87년 안산시, 88년 성남시, 고양시, 광주군의 어머니 합창단의 창단으로 경기음악을 대변하였다. 이 때에 경기합창단들은 그 실력이 대단하여 경연대회에서 85년 수원콘서트콰이어(오현규)가 대통령상을 수상하면서 수원시어머니(이병직), 부천시어머니(최홍민)의 연속적인 수상의 쾌거가 있었다. 그 후 90년대와 2000년대에 안산시여성합창단, 이천콘서트콰이어(임창배), 수원여성합창단(최득남), 광명참빛남성합창단(김성강), 안양소년소녀(김영생)등이 합창올림픽에서의 우수한 성적의 입상도 경기음악의 수준이 타 시도보다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경기도에 수원시향만이 유일하게 활동하던 차에, 88년 부천 필하모니오케스트라(임헌정)의 창단은 서부지역의 음악을 자극하는 계기로 같은 해에 부천시립합창단(최병철)도 창단하게 된다. 그러나 이미 83년 수원시립합창에 이어 86년 성남시립(서북진), 87년 안양시립의 합창단(전평화)의 창단은 전문성을 높이면서 음악단체들의 앙상블의 꽃을 피우게 되었다. 그 예로서 90년 11월 3일~4일의 경기합창연합회의 합창제 출연팀의 공연 내용을 알아본다.

| | |
|---|---|
| 안양문예회관 | 수원시립(이상길) 계원예고(민매라) 수원아카데미남성(김창석) 참빛선교단(박순자) 성남시 어머니(이용준) 수원콘서트콰이어(오현규) 안양시립(전평화) |
| 부천시민회관 | 부천시어머니(최홍민) 서울삼육고(임형준) 안산시어머니(지영일) 안양쌍투스(장일형) 새성남어머니(이복녕) 성남시립(서북진) 부천시립(최병철) 등 |

이상의 연주 단체를 볼 때 경기음악의 중반기는 합창을 위주로 한 앙상블로 대변하고 있다.

### 3단계– 교향악의 축제와 오페라의 서막

수원시립교향악단(금난새) 부천 필(임헌정)에 이어 성남시립이 시립단체로 창단되는 동안에 경기도에서도 경기도립팝스오케스트라(최선용)의 창단으로 경기도내 각 지역에 순회 연주를 통하여 불모지에 있는 음악인들에게 자극을 주어 기악의 앙상블에 대한 불씨를 북돋아 주었다. 수원시향은 완숙한 연주로 그 능력을 인정받으며 금난새에 이어 박은성 지휘자로 이어져 오고 있으며, 부천 필은 임헌정 지휘자의 아집으로 이벤트성 있는 완벽한 연주로 평가받고 있다. 또 경기도립팝스는 클라식일 경우 도립오케스트라로 경음악일 경우 도립팝스로 활용하는 2중적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한편, 경기음악계의 꽃인 아마추어적인 오케스트라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어 그 지역의 문화예술 발전에 높이 기여하고 있다. 음악의 불모지에서 시흥시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는 서훈 지휘자, 지역적 어려움에 난제를 풀고 가는 구리교향악단의 강창우, 창작 음악에 도전하는 용인심포니의 조재식, 시립단체를 방불케 하는 과천필하모닉의 유세종, 경기남부의 음악을 대변하고 있는 평택시오케스트라의 이창녕 등 많은 지휘자와 단장들이 2관, 3관, 4관 편성에 도전하며 활동하고 있다. 가장 관심을 갖게 하는 단체는 군포의 프라임교향악단(김홍기)으로 가장 안정되게 성장하며 연습을 꾸준히 하는 팀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경기도에는 청소년 오케스트라의 활동도 다른 시도보다 활발하다. 광명청소년(송영주), 성정필하모니(신동렬), 성남청소년(박용준), 용인청소년(신민용), 수원청소년(박인규), 구리청소년(조영숙, 김유강), 평택청소년(김선관)등 경기도내의 소년소녀합창단 활동이 소원한 반면, 오케스트라는 지금도 여러 단체가 창단 작

업에 들어가고 있으며 그 활동 반경도 높이 평가된다. 결과적으로 청소년 오케스트라부터 아마추어, 시립단체까지 현재의 경기음악을 주도하고 있다고 하겠다. 관악기를 위주로 한 앙상블도 그 활동이 활발한데 이병훈이 이끄는 파주윈드와 안양윈드의 강철호, 수원윈드의 김연근, 소외 지역을 대변하는 가평군의 모던팝스의 홍성용 등의 활약도 대단하다. 소규모 앙상블인 수원챔버(도부민), 안산챔버(김희송) 등의 챔버들도 연주회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대표적 단체인 수원시립합창단은 민인기 지휘자로 새로움의 무대를 연출하고 있으며, 도립팝스는 유광 지휘자로 바뀌며 젊음의 감각이 창출되리라 믿는다. 용인시에 있는 국립경찰교향악단은 정철주적인 완벽한 연주를 고집하는 정통음악단체이며, 특이하게 피아노에서도 송피아노 앙상블은 송향지의 제자들과 후진들이 매년 연주회를 하는 인맥을 통한 피아노음악의 새로운 장르도 있다. 그러나 경기음악을 가장 고무시키는 것은 예술의 꽃이라는 오페라가 경기도내 음악인들에 의하여 무대가 올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김영철은 오페라에 미친 사람이라고 할 정도로 그 열정이 대단하다. 현재 군포의 수리오페라를 이끌고 있는 그는 이번에도 〈인어공주〉를 무대에 올린다. 안양오페라 이경애는 〈까발레니아 루스티까나〉를, 협성대교수인 김미미는 화성오페라를 창단하여 〈여자는 다그래〉를 무대에 올린다. 또한 과천의 최정석은 중앙오페라단을 이끌며 그동안 많은 오페라를 무대에 올렸으며 〈나인칸타떼〉라는 남성중창단을 이끌고 있다. 반면 여자중창단인 "노래하는 여자들"이라는 이름의 팀이 수원 출신 성악전공자들을 중심으로 전애리가 이끌고 있다. 이색적인 음악제로 평론가 탁계석이 주창하는〈경기아버지합창제〉가 있는데 어깨가 처진 아버지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불어 주자는 모토아래 창단을 유도하여 현재 각 시 · 군에 20여 개팀이 구성되었다. 남성의 중후한 화음을 특징으로 한 경기아버지합창제가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음악협회에 의해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다.

경기도내 작곡분야의 활동에도 그 인맥이 경기창작학회로 모여 있다. 2000년도에 대학 강단의 현대기법의 창작 교수들로 주용수(한국재활복지대), 이미혜(협성대), 이문승(서울신대), 이운석, 유경선, 김의용, 박창원 등이 중심이 되여 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 기억 될 상징적 기획 무대

난파음악제에서 시발된 경기음악의 샘(泉)에서 앙상블의 향연으로 이어져온 경기음악은 오케스트라의 축제와 오페라 개막까지 창출되게 되었다. 그러나 정통 클래식이 관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고 있는 현 시점에 이벤트성과 기획력 있는 무대로 지역예술계에 기억될 몇 가지를 소개하여 본다.

### 모스코바 필하모닉오케스트라 초청공연

2002년 10월 21일(월) Pm.7:30 경기도 문화 예술회관에서는 회관 건립 후 처음으로 순수 러시아인의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있었다. 경기도음악협회에서 주최한 이 공연은 〈모스코바필하모닉 오케스트라〉로써 유리시모노프의 지휘로 시작된 연주회는 피아니스트 미하일 페투로프의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의 피아노협주곡 제2번 C단조 op.18이 연주되었다. 통상적으로 연주회 중간의 협연자에게는 따뜻한 격려 박수로 대신 하지만 이날은 페투호프에게 앙코르가 연주되는 감격적인 장면이 연출되었다. 2부의 연주

에서는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6번 "비창" B단조 op.74는 지휘자 유리시모노프의 지휘봉이 내려온 순간에서 정적만이 감돌뿐 관객의 박수소리가 없었다. 아마 이는 이미 마지막 악장에 콘트라베이스의 5박자의 여음에 모든 관객이 희열을 느끼고 있던 순간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 날 몇 가지 진기록이 있었는데, 첫째 정통클래식 음악회 입장료가 가장 비쌌다는 점, 둘째 2천여 명의 관객이 숨소리 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감상 태도를 보여 준 점, 셋째로 순수 러시아 인들로 구성된 현지인들의 악단이었다는 것. 마지막으로 최초로 공연나레이터가 도입되었다는 점이다.

모스크바 필 하모닉 오케스트라 초청공연

### 베르디 레퀴엠 공연

지역 출신의 음악인들을 대거 등용시키는 향토음악제의 연주회에서의 〈베르디레퀴엠〉이 2002년 11월 16일 경기도 문화 예술회관에서 열렸다. 레퀴엠은 죽은자의 영혼을 기리는 진혼미사곡이지만 베르디는 극적 효과와 멜로디를 동양적으로 작곡하여 우리에게 매우 친근감을 주며 오페라적이다. 출연진은 수원출신인 지휘자 오현규, 소프라노 이명희, 메조소프라노 이은미, 베이스 한규용, 수원대 출강하는 테너 이광순이며 합창에는 수원시립과 천안시립이, 교향악 반주에는 용인시에 소재하고 있는 4관 편성으로 그 규모나 연주 능력이 우수한 국립 경찰교향악단이 맡았다. 경기음악의 무대에 관객을 매료시키는 79분 42초의 대곡이었다.

### 심포지엄

경기도 남양, 활초리 출신이며 경기음악의 샘을 이룰 수 있도록 한 난파음악제의 주인공인 홍난파의

베르디 레퀴엠 공연

친일시비에 휘말려 매도되는 여론 속에 음악인들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음악협회(오현규, 박춘식)와 화성시에서는 그대로 묵과할 수 없는 공감대가 이루어져 국제회의장에서 2003년 3월 28일 "홍난파의 재조명"이라는 주제로 심포지엄을 개최하였다. 논제를 놓고 난파측에서는 음악평론가 이상만, 탁계석, 난파재단이사장, 정희준과 친일을 주장하는 대표 노동은, 민족문제연구소 연구원 김민철, 민예총 경기회장 김영기 등과 토론이 열렸다. 이날의 패널리스트는 중부일보 홍승원과 논설실장이 하면서 갑론을박 심층부까지 시비 논란을 벌였다. 마지막 모아진 중지는 서양음악의 선구자로는 인정하나 민족음악이라는 단어는 사용하지 않으며 군가작곡은 작곡한 대로 봉선화 등 한국가곡 등은 그 업적을 그대로 남겨 역사의 판단에 맡기자는 것으로 결론 지었다. 따라서 난파의 친일시비에 광복회에서는 친일명단에서 이미 제외하였으며 북한에서 조차 면제부를 주었다고 하는데 경기음악 가족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이제 난파는 어엿한 경기음악인으로 그 터전에 씨를 뿌렸으며 서양음악의 선구자로 재조명 된 것이다. 마치 흑백논리로 이 문제를 생각하려는 행정가들이나 혹자들은 무한적 판단(無限的 判斷)의 생각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敬句

홍난파의 재조명 심포지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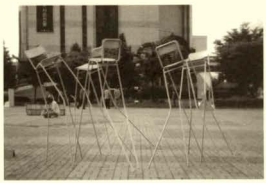
Review

## 거리에서 만난 조각작품 – 고양야외조각축제

도심을 걷다 우연히 조각품을 마주치면 왠지 기분이 좋아진다. 평면회화와 달리 조각품은 360도 어느 방향이라도 감상이 가능하다. 다소 미술에 문외한이라도 부담없이 감상할 수 있는 것이 조각품 아닐까.

지난 7월15일부터 8월20일까지 고양시 일산호수공원 건너편에 자리한 미관광장에는 아이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킬 만한 조각품들을 만날 수 있었다. 고양조각가협회(회장 최승호) 회원들이 주축이 된 '제2회 고양야외조각축제' 현장에는 올라 탈 수 있는 조각품들과 편안히 앉아 담소를 나눌 수 있는 작품들이 관람객을 맞았다. 주말이면 인라인스케이트와 가족단위 인파로 발 디딜 틈 없는 이곳에 일반인들에게 친숙한 조각품을 감상할 수 있다는 것은 고양시민들에게 큰 행복이다. 이번 전시에는 40여점을 선보였다. 서송의 '3인의 대화'는 스테인리스로 만든 의자와 파라솔 모양의 지붕을 얹은 것으로 작품을 감상하다 지친 다리를 잠시 쉬어 갈 수도 있다.

아마 작가는 눈으로만 감상하는 것이 아니라 앉거나 만져보면서 몸소 느끼기를 원했던 것 같다. 예닐곱 여자 아이는 마천석으로 만든 서옥재의 '고양이'에 올라 앉아 연신 행복한 미소를 보낸다. 또 작가 전신덕이 선보인 아이들 10여명이 탈 수 있는 자전거 모양의 대형 조형물과 호해란이 내놓은 화강석으로 만든 말 모양은 관람객의 상상력을 끌어내기에 충분했다. 아이들의 놀이터를 방불케 하는 이들 조각품들은 이 지역의 조각가 37명이 모여 지난해 이어 두 번째 열리고 있다. 고양시에는 넉넉한 작업공간과 각종 주물공장이 산재해 있고 서울과 인접한 거리라는 장점 때문에 현재 조각가만도 100여명이



작업을 하고 있다. 이들이 모여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를 위해 고민하고 있다. 사람들의 발길이 빈번한 신도시 한복판에 자신들의 작품을 들고 미술품과의 거리감 좁히기에 나선 것도 이 때문이다.

거리로 나온 이번 전시는 환경과 조각, 그리고 디자인이 결합됐으며, 미술품과 관객의 거리를 좁혔다는 긍정적인 취지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참여와 관심을 끌만한 요소의 부재가 아쉽다. '도시 속 상상력의 발견'이란 전시부제에 벗어나 작가 취향이 그대로 반영된 작품들은 일반 전시장 안의 작품과 비슷한 느낌을 주었다. 또 '찾아가는 미술관' 형식으로 시민들의 발길이 닿는 곳에 작품을 설치했다면 그들의 발길을 좀더 오래 잡아 놓을 수 있는 기획의 부재가 아쉽다. 당초 사업계획 중에 하나였던 외국작가를 초청해 조각 시연을 보여주는 '조각 심포지엄'과 '개막 퍼포먼스', 그리고 아이들이 참여하는 '조각교실' 등의 행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보다 알찬 전시가 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열악한 지역미술의 한계는 예산과 문화 인프라 등 다양하지만 시민과 함께 한다는 전시 취지에 작가들의 좀더 깊은 애정과 배려가 필요하다. 이형복(경기일보 문화부기자)

## 경기도에서 만나는 「캣츠」의 감동

오는 17일까지 경희대 수원캠퍼스에서 펼쳐지는 뮤지컬 캣츠는 세계적인 뮤지컬 작품들이 매번 서울 무대 위주로 올려졌던 이유로 아쉬움을 달래야 했던 도내 팬들의 가슴을 모처럼만에 시원하게 뚫어주었다. 세계 4대 뮤지컬로 꼽히며 이미 20년 흥행이라는 세계 최장기 공연에 빛나는 감동의 신화로 기록되고 있는 캣츠. 뮤지컬 음악의 귀재인 앤드류 로이드 웨버와 제작의 마술사 카메론 매킨토시 콤비가 이루어낸 최고의 역작으로 평가 받고 있는 이 작품은 1981년 런던에서 초연된 이래 82년 뉴욕에 진출하여 83년 토니상 7개 부문을 수상했다. 현재 10여 개국에서 공연중에 있으며, 무려 100여 억원의 제작비를 투입하는 대형작품. 지난달 31일을 시작으로 수원에서의 캣츠 공연은 현재 10~40대 젊은 팬층을 확보하며 매회 매진이라는 성적을 거두고 있다. 가변 극장 '빅탑 시어터'의 국내 첫 등장으로 가변 극장에서 뮤지컬 캣츠의 진수를 만끽할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불식시키며, 단숨에 지방 공연문화의 시장 성장에 대한 가능성을 점치게 했다. 특히 서울과는 인접해 있기는 하지만 서울에 반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도내 문화환경에 맞서 대학이 장소를 제공하고 도내 문화적 토양을 만들어 나가는데 적극 동참했다는 의의를 갖는다. 또한 대학은 학생들에게는 문화적 욕구를 직접적으로 채워주는 기회로 삼았다. 스펙터클한 무대, 정교한 분장과 의상, 한치의 오차없는 움직임, 전용극장에 손색없는 음향효과 등은 다채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며 작품 완성도를 이동식 극장에 고스란히 옮겨놓았다. 관객들은 2시간 20여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각양각색의 고양이들이 펼치는 향연에 무방비로 도둑맞고 만 것. 세계 어디에서나 사랑받는 작품들은 하루아침에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제1막이 끝나고 휴식 시간에는 무대에 한 캐릭터가 남아 무대 위로 줄을 서는 열성팬들에게 사인을 해주었고, 나머지 캐릭터들은 객석 구석구석을 파고들어 갖가지 재주를 선보이며 관객들을 놀라게도 하

고 웃음보를 터뜨리게 하는 등으로 단순히 보여주는 무대를 떠나 보다 가까이 관객에게 다가가는 팬서비스를 아끼지 않았다. 그러나 아쉬움도 남겠다. 줄을 서고 있었으나 공연이 시작된 관계로 채 티켓팅을 마치지 못한 일부 관객들이 서막부분이 끝나기까지 공연장 입구에서 마냥 기다려야 했던 것. 출입구 안쪽에 설치된 공연실황 중계 화면이 관객들이 대기하고 있는 바깥쪽에 설치되었더라면 적잖은 관람료를 지불하고도 10여분 이상의 공연을 놓쳐야 했던 관객들의 아쉬움을 조금이나마 달래줄 수 있었을 것이다. 작은 불편 요소들은 국내 공연물과 달리 '해외 유명 공연물'이라는 이유로 자칫 편향된 거부감을 살 수도 있기 때문이다. 출연진에서부터 스태프에 이르기까지 오리지널팀이 참여해 뮤지컬의 진수를 선보인다. 출연진에서부터 스태프에 이르기까지 브로드웨이 오리지널팀의 참여한 이번 수원 공연은 국내 사상 첫 지방나들이로 이어 부산, 광주, 대구 지역을 순회하게 된다. 김순화(중부일보 문화부기자)

Review

의정부 토요문화가 산책

## 판굿 · 택견 · 은률탈춤선보여

리포터 | 김병현

의정부 문화원이 8월 한 달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6시부터 의정부시 신곡동 의정부 문화원 앞 잔디광장 야외특설무대에서 '토요 문화가 산책'을 마련했다. 군사도시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의정부시가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서울 북단의 주요 거점도시로 거듭나려는 모색의 일환으로 경기도 제2도청 옆에 새롭게 의정부 문화원 건물을 신축하여 여는 개관기념 공연의 성격이다.

그동안 의정부의 공연문화는 시청중심의 예술의 전당중심으로 운영되어왔으나, 경기도 제2도청과 그 인근 신도시에 대규모 주민이 유입됨에 따라 이 지역에도 시급한 문화의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행사라 할 수 있겠다. 첫 공연인 2일에는 의정부 시립무용단의 '우리 춤의 멋과 흥'이 열렸다. 200여명정도 운집한 관객들의 열띤 호응 속에서 태평성대, 춘목, 부채춤, 장고 춤, 진주교방 굿거리 춤, 풍무악 놀이 등이 펼쳐졌다. 시원하게 탁 트인 전망 속에서 우리 전래의 춤사위는 때로는 애련한 몸짓으로 때로는 격정의 춤사위로 다가 왔다. 공연말미에는 김문원 의정부시장이 참여하여 문화,예술에 대한 의정부시의 애정과 관심을 표명하기도 하였다.

9일에 펼쳐진 두 번째 산책은 난타와 함께 논버벌 퍼포먼스의 대표주자인 두드락의 타악 연주가 이어 받았다. 강렬한 열정의 타악연주를 기본으로 무용, 랩, 마임, 힙합 등이 종합적으로 연출된 무대였다. 첫 번째 공연의 성과를 입증하듯 더 많아진 관객들은 흥겨운 리듬과 율동을 즐기며 여름밤의 더위를 날려 보내는 모습이었다. 국악으로 듣는 영화음악, 신명과 열정이 함께 하는 사물과 관현악 협연의 무대, 화려함과 역동적인 춤이 가득한 퓨전 예술무대 한마당인 정동극장 예술단의 세대유감 퓨전 예술무대가 16일 준비됐다. 23일에는 칼리오페 댄스단의 셸위댄스와 코리아 스포츠센타내 댄스 스포츠 팀의 탭과 재즈댄스 그리고 라틴댄스를 선보이게 되며, 30일에는 남미 안데스민속음악의 대명사 그룹 시사이(Sisay)가 제3세계 음악을 연주하며 문화가 산책의 마지막 대미를 장식하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야외무대의 성격상 완성도 있는 공연이라 할 수는 없지만, 의정부가 규모 있는 도시로 바뀌어 가면서 그 속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욕구에 부응하는 행사가 될 것 임에는 틀림없어 보인다. 그동안 문화적으로 소외되었던 지역주민들 역시 처음에는 낯설어 하다가, 차츰 공연이 진행되는 동안 그 안에 자연스럽게 몰입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다. 의정부문화원은 9월에도 '토요문화가 산책'은 계속 이어 나갈 계획이다. 공연의 수준과 지역문화에 대한 열정이 오래 동안 이어지고, 또 더욱 확대 되어 가기를 지역민의 한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기대해 본다.

평택역사문화학교 운영, 향토기행

## 옛 핑택의 '삼남대로'를 따라

리포터 | 강정미

평택의 역사와 문화를 시민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탐방하는 역사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돼 화제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공동대표 황재순 윤현수)가 지난 5월30일부터 오는 10월11일까지 약 4개월간 실시하는 평택의 역사와 문화를 찾아서 라는 역사문화학교가 바로 그것이다. 자칫 역사 강의가 딱딱하고 지루해 지는 것을 감안, 참가자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해 이론 강좌와 함께 진행하고 향토 문화답사는 아이들은 물론 어른들에게도 큰 호응을 얻

고 있는 프로그램으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마련한 행사다. 현재 지역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김해규(평택 향토문화 동호회), 김만제(생태환경연구가), 김호환(평택농악보존회) 선생이 강사로 참여하고 있는 이번 역사문화학교는 강의와 답사를 통해 지역 정체성을 찾아보는 기회로 총 10회로 진행되고 있다. 평택역사문학학교에서는 지난 제3강좌 시간에 '평택의 역사유적과 옛 도시의 길을 따라 평택의 지리'를 배워보는 기회로 충청도에서 평택으로 들어오는 봉선 홍경사(충남 성환)를 시작으로 소사동, 칠원동을 지나 동막마을까지 삼남대로를 따라 답사를 했다. 원래 삼남대로는 조선시대 한양에서 수원, 오산(신점), 천안, 공주, 전주, 남원을 거쳐 경상남도 삼랑진까지 가는 도로다. 부산에서 한양까지 연결된 영남로, 한양에서 의주까지 연결된 의주로와 함께 가장 큰 도로로 알려져 있다.

평택의 경우 진위면 갈곶리→견산리(산직촌)→봉남리(진위현)→진위목교→샛뚝거리→마산리 숨안말→염재(장고개)→백현원(염재와 동막사이)→흰치고개→감주거리(한국재활복지대 부근)→칠원동(갈원)→쇠물뿌리 마을→가내(주막)→재빼기(죽백1동)→배다리(배다리방죽)→소사동(소사원, 소사점)→유천동 아교다리→성환읍 가룡리→홍경원을 지난다. 특히 충청도에서 평택으로 들어오는 평택의 관문인 소사동은 그 옛날 사람과 물자의 통행이 많아 역원(여관)이 설치되고 5일장이 서는 등 장터가 번성했으나 삼남대로다 보니 정유재란과 동학농민 전쟁 때에는 치열한 격전지가 되기도 했었다. 이날 참가자들은 그 때 평택의 모습과 옛 길에 대한 얽힌 이야기를 들으며 '평택'이 지리적으로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뜻 깊은 시간을 가졌다.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이은우 사무국장은 "역사문화학교를 통한 향토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지역사회의 정신적 바탕이 되어 지역정체성 찾기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성남사당바우덕이축제 설명회 개최

## "시민이 주인공인 축제로 만들자"

리포터 | 강정미

오는 10월 2일부터 5일까지 열리는 남사당바우덕이축제에 대한 설명회가 지난 8월 7일 안성시민회관 대강당에서 각 단체장과 시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이동희 안성시장은 이 축제의 홍보대사로 안성출신의 방송인 이상벽씨를 위촉, 위촉장을 수여했다. 홍보대사로 임명받은 이상벽씨는 "이번 축제가 안성의 대명사인 대표적인 축제로 커나가는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주최측은 또 안성남사당의 실존 인물 여자 꼭두쇠 바우덕이를 소설로 집필, 출간을 앞두고 있는 작가 이재운씨를 초청해 당시 바우덕이의 위치와 그녀가 남긴 지역적 의미에 대한 설명회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번 축제의 총 연출을 담당하는 이영식(방송 프로듀서)씨는 '축제란 시민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 스스로가 취하고 즐기는 것이다'라는 괴테의 말을 인용하면서 "이번 안성남사당바우덕이 축제 또한 지역 주민들이 주인공이 되어 함께 만드는 축제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사전 설명회에서는 본행사에서 선보일 마당놀이극 '흥부전'과 '자메이카 타악연주'가 시연되어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으기도 했다.

대동줄고기를 중심으로

# 한반도에 이는 전쟁의 바람을 평화의 바람으로

리포터 | 이성호

지난 8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수원 만석공원에서는 수원지역 37개 시민, 종교단체가 모여 '제9회 수원시민 통일한마당'을 진행하였다. 전세계의 유일한 분단국가인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위하여 1995년부터 진행하여 온 수원시민 통일한마당은 수원지역에서 시민단체가 연합하여 치루어 내는 가장 오래된 축제로 그 의미가 크다 하겠다. 7월 22일 수원에 있는 미군시설을 돌아보는 여성평화기행을 시작으로 한 이번 통일한마당은 8월 8일 만석공원에서 대동줄고기(몸줄, 결줄 꼬기)를 거쳐 8월 9일 오후 6시부터 진행한 본행사 줄당기기에서 절정을 이루었다.

남북측 교과서 비교전시, 북측 바로알기 사진전, 청년학생 한마당, 수원 열린교실 어린이 합창, 매원교회 청년회 합창 등의 행사에 이어 수원지역 원불교, 기독교, 천주교, 불교 대표들의 종교인 통일선언문 낭독과 "함께 가자 이길을" 합창은 이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나서면 통일이 이루어 질 수 있다는 확신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행사의 대미는 대동 줄다리기.

줄다리기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였다.

수원시민들이 힘을 합쳐 줄을 꼬며 막걸리 한잔에 웃던 전날.줄

을 드린 후 고사를 지낼 때 너도나도 나와서 남북의 통일을 기원하던일, 누가 이기든 상관없지만 이긴팀 결줄을 잘라 가면 만사형통이라는 말에 힘껏 당기고 진팀은 결줄이 끊어져 그렇다는 등의 항의가 들어올 정도로 혈전이었다. 줄당기기가 끝난후 뒷굿을 해야하는데 이긴팀에서 결줄을 자르느라 진행하기 힘들었던 진풍경은 우리의 전통문화가 얼마나 사람들을 한마음으로 묶어주는지 단적으로 알 수 있었다. 이날 모인 사람들의 염원은 말 그대로 평화와 통일이었다. 이를 위해 힘차게 다시 한번 외쳐본다.

"한반도에 이는 전쟁의 바람을 평화의 바람으로"

| | | |
|---|---|---|
| 길놀이 | 여러 풍물패가 깃발(남, 북기)을 앞세워 함께 하는 길놀이 | |
| 몸줄꼬기 | 남, 북기를 중심으로 두패로 나눠어 각 팀이 돌아가며 풍물한마당을 벌이면서 각기 몸줄을 꼰다. | |
| | 풍물놀이 한마당 | 남, 북팀 풍물패가 줄을 꼬는 사람들을 위하여 풍물놀이 한마당을 벌인다. |
| | 몸줄 꼬기 | 남,북팀 모두 순서를 정해 몸줄을 각기 4가닥씩 꼰다. |
| | 결줄 꼬기 | 몸줄을 완성한후 새끼줄을 이용해 결줄을 20가닥을 만든다. |
| | 몸줄 말아 모시옵고 결줄을 드려 대동줄을 만드세 | |
| 줄드리기 | 줄 드리기 | 완성된 몸줄을 둘둘 말아 기다란 암,수 줄을 드리운다. |
| | 고 만들기 | 기다란 몸줄을 반으로 접어 버팀목을 이용해 암,수를 구분하여 고를 만들어 줄당기기에 쓸 대동줄을 완성한다. |
| | 결줄 드리기 | 기다란 몸줄에 결줄을 여러가닥 드리워 많은 사람들이 참여 할 수 있도록 한다. |
| 줄고사 | 암줄 숫줄 합일 대동. 소원성취 발원이요. | |
| | 줄고사 | 우리의 소원을 줄을 통해서 빌어보고 남북이 하나되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소원을 빌어본다. |
| 줄당기기 | 영차 영차 영치기 영차! | |
| | 줄나가기 | 양팀의 줄을 들고 기세등등하게 입장한다. |
| | 진잡이 | 수 많은 깃발을 들고 좌우로 돌며 기세싸움을 한다. 이때 대나무를 들고 가운데로 모여 기싸움을 한다. |
| | 비녀목 걸기 | 암수줄을 가운데로 모아 비녀목을 걸어 줄을 당길수 있도록 완성한다. |
| | 결 전 | 3회에 걸쳐 줄을 당긴다. |
| 뒷굿 구정놀이 | 내 놀테니 너도 놀고, 네가 놀면 우리가 놀고 네, 나 없 이 한 덩어리 | |
| | 뒷굿 | 누가 이기든 다 함께 뛰어놀고 통일을 기원한다. |

살아있는 야외공연

# 『과천한마당축제』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9일간 과천에서 열려

과천한마당축제

글 | 곽희석

올해 7회째를 맞는 '과천한마당축제'가 9월 23일부터 28일까지 6일간 시민회관 인근 주행사장을 비롯 과천시 전역에서 열린다.

'어울림'이라는 주제로 펼쳐지는 이번 한마당축제는 국내 우수 작품과 〈타이타닉〉을 비롯한 해외 5개 작품 등 총 37개 작품이 초청됐으며, 야외극과 거리극, 마당극 등의 다양한 공연예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올 축제 시작은 개막식이 아닌 개막공연으로 시작한다. 개막공연은 관습적인 개막식의 형식을 탈피해 과천지역 예술인과 과천 시민 100여명이 사회적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만드는 집단 퍼포먼스로 펼쳐진다. 꼭 필요한 의례적인 행사들의 경우 이 공연 속에 마치 꼭지 장면처럼 삽입되도록 했다. 집단 퍼포먼스는 2년 전 과천에 소개된 바 있는 미국의 연출가 샌드라 스필러의 총지휘 하에 한국의 색채를 부여해 줄 극단 작은 신화의 대표 최용훈씨가 맡는다.

## 한마당축제의 야심작 – 대형 야외극의 진수 〈타이타닉〉

초청작중 눈에 띄는 작품은 바로 초대형 야외극인 독일의 〈타이타닉〉. 유럽과 북·남미 그리고 호주 대륙에서 열렬한 찬사를 받은 야외극〈타이타닉〉이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과천한마당축제를 통해 소개된다. 국내에 소개되는 최대의 야외극이 될 〈타이타닉〉은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실화를 바탕으로 타이타닉호의 건조부터 침몰에 이르는 과정을 통해 현대문명의 위기에 대한 경고를 담은 작품이다. 특히 이 작품은 소방차 3대를 동원, 30톤에 이르는 물

사용과 관현악의 라이브 공연, 신들린 듯한 배우의 연기를 통해 침몰에 이르는 과정을 실감나게 표현하여 현대 야외극의 정수를 보여줄 예정이다. 극단 여행자의 〈한 여름 밤의 꿈〉도 주목할만하다. 셰익스피어 원작을 모티브로 등장인물들을 한국의 전설에서 차용한 이 작품은 도깨비들과 항, 벽, 루, 익 등 별자리들이 사랑하는 연인들로 등장하여 사람과 도깨비들간 한바탕 소동을 벌이는 내용이다. 형식과 내용의 독창성을 인정받으며 주목받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올 한마당축제의 폐막공연으로 선정됐다. 연극원 돌꽃이의 〈우리나라 우투리〉는 남사당패의 '꼭두각시 놀음'과 우리 전래의 아기장수 설화인 '우투리 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이다. 배우들의 등 퇴장이 없는 열린 공간의 활용, 우리말의 음악성이 살아있는 새로운 화술의 개발 등 새로운 한국적 연극양식은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 극단 민들레의 〈똥벼락〉도 올려진다. 김희경의 '똥벼락' 그림책을 원작으로 판소리, 민요, 탈춤, 꼭두극, 길고냉이 등 전통민속놀이가 결합된 작품이다. 판소리와 민요를 축으로 탈춤과 꼭두극 그리고 길고냉이등 민속놀이를 온 가족이 체험할 수 있다. 극단 수레무대의 〈꼬메디아〉는 꼬메디아 델 아르떼의 원류를 찾음과 동시에 우리 마당극의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작품으로 평가된다. 이탈리아의 마당극이라 불릴 수 있는 '꼬메디아 델 아르떼' 이탈리아 르네상스기 의 연극양식인 '꼬메디아 델 아르떼'는 거리의 시장판에서 판을 벌려 반은 약속으로

반은 즉흥으로 관객과 어울려 공연이 이뤄진다. 자유 참가작인 극단 코티의 〈신배비장전〉은 해학과 풍자의 백미인 한국고전문학 '배비장전'을 가진자와 못가진자의 관계로 바라보고 현대적으로 재구성했다. 배우들의 춤과 노래, 풍자와 비판의 정신을 통해 더불어 사는 삶을 고민했던 선인들의 정신을 풀어놓고 있다.

## 축제의 감초 – 거리에서 만나는 공연들

각종 곡예와 거리공연들이 과천 중앙공원의 분수마당과 별양동 쉼터 등 거리 곳곳에서 펼쳐진다. 프랑스 뤼 삐에톤 극단의 〈까밀라〉는 움직이는 애벌레 모양의 장치물에 공연자가 들어가서 조종을 하는 독특한 공연이다. 단순한 볼거리를 뛰어넘어 간단한 소품으로 환경파괴에 대한 경고 메시지를 인상적으로 전해준다. 또한 저글링, 신체곡예, 줄타기와 같은 써커스적인 기예를 중심으로 코믹하게 연출된 스페인 씨르코 임페르펙토 극단의 〈엉터리 서커스〉의 독특한 제스쳐와 안무를 만날 수 있다. 배우이자 마임, 즉흥연기, 마스크 만들기 등을 가르치는 선생님이기도한 캐나다 션 킨리의 〈마스크, 마임 그리고 광기〉는 한 마디의 대사 없이도 유머 넘치는 연기로 관객과 조화를 이루는 공연을 보여줄 예정이다.

국내작품으로는 바디아트그룹 단무의 〈다섯 가지 이야기〉이 소개된다. 색을 입히고 그 색에 어우러진 소리들을 만들어 가는 과정을 통해 소리와 색의 아름다움을 느끼게 해 준다. 하루에 한 가지씩 다른 모습으로 펼쳐진다. 윤효중의 목조작품 '물동이를 인 여인'을 바탕으로 만든 극단 유정의 〈정〉은 목조작품 역의 연기자가 삶의 여유와 건강, 행복을 기원하는 물 한 바가지를 관객에게 주면서 미술작품과 관객간의 경계를 없애 줄 작품이다.

| 분 류 | 세부 프로그램 | 내 용 |
|---|---|---|
| 초청공연 | 해외 초청공연 | 독일 〈타이타닉〉 외 4개국 4개 작품 |
| | 국내 공식참가공연 | 여행자 〈한 여름밤의 꿈〉 외 10개 작품 |
| | 국내 자유참가공연 | 대한사람 〈新〉처용가〉 외 5개 작품 |
| 개 · 폐막행사 | 개막 공연 | 미국 샌드라 스필러 · 한국 최용훈 공동 연출, 과천공연예술인, 과천시민, 문화마을 '들소리' 등 100여명 |
| | 폐막 행사 | 오은명 연출, 과천 공연예술인, 과천시민, 과천 초등학교 학생 60명, 축제참가자 |
| 문화체험 행사 | 축제 탐방 체험 | · 무대탐방 · 공연따라배우기<br>· 축제 현장 돌아보기 |
| | 놀이 체험 | · 가을걷이체험 · 종이접기<br>· 짚 인형 연극놀이 체험 · 종이접기 |

### 다양한 체험의 장

① 주막거리 재현

한마당축제의 행사장 안에는 옛 풍취를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주막거리가 재현된다. 내부장식부터 복장과 음식 종류에 이르기까지 기존 축제에서 보이던 단순한 먹거리 장터에서 벗어나 과천의 역사를 되새기는 경험의 장(場)으로 마련될 예정.

② 가을걷이 체험

쟁기, 탈곡기, 홀태, 키 등을 이용해 준비해놓은 벼나 보리, 수수 등을 재래식으로 탈곡하는 과정을 맛볼 수 있는 추수마당에 수확한 곡식으로 떡을 만드는 과정, 남은 볏단으로 인형을 만드는 과정 등 체험의 장이 마련된다.

③ 축제 탐방 체험

어린이들이 실질적으로 축제를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단순히 보고 즐기기만 하는 행사가 아닌 예술과 축제에 보다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축제탐방체험, 무대탐방(Back Stage Tour)과 공연의 숨은 비밀을 깨닫게 될 공연 따라 배우기 그리고 축제 현장 돌아보기로 구성된다.

④ 축제마당에서의 공연

전통문화를 재해석해 화려한 무대 연출이 돋보이는 타악퍼포먼스 대한 사람의 〈新처용가〉를 비롯하여, 쭉쭉빵빵을 연상시키는 무용의 선입견을 뒤집어 버리는 똥자루 무용단의 〈가지각색〉, 국내 최초 여성 전자현악 4중주단 Belatrix의 매력적인 음악 등 축제 기간 내내 펼쳐진다.

REPORT

# 문화재단

재단백서, 무엇을 담았나

백남준미술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경기아트센터 MIX & MATCH 展

사이버도서관은 어떤 곳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지평
– 왜, 기전문화대학인가 – ②

뉴스라인

경기도의 문화행사

# 白書

## 경기문화재단 백서, 무엇을 담았나?

글 | 황순주 (문예진흥팀 전문위원)

###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백서 발간을 위해 야간작업을 하던 8월 어느날, 인터넷 검색을 통해 읽은 한 기사가 필자의 눈에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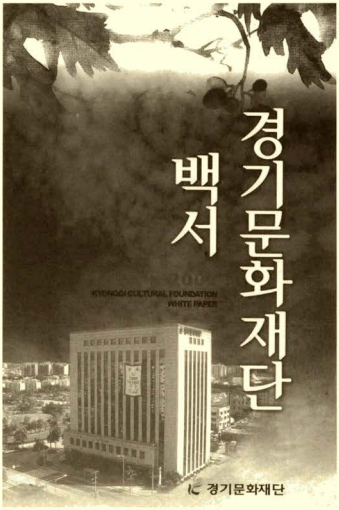
"20세기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공공기록은 국가의 무관심과 방치, 조직적 폐기의 악순환 속에 사라졌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 국가기록 관리체계를 변혁하는 역사적 과업은 기록관리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는 '천형(天刑)'으로 다가오는 일이다."

– 문화일보 8월 7일자, 곽건홍(정부기록보존소 학예연구관)

한 근대사 전공 소장 학자의 이 글은 서평을 쓴 기자 못지 않게 필자에게도 상당한 긴장감으로 다가왔다. 공공기관 혹은 그에 준하는 기관이나 단체의 기록은 역사를 쓰는 사초가 된다. 경기문화재단 백서를 발간하기 위해 공동 작업을 하고 있던 필자로서는 늦게서야, 그것도 아주 우연히 경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쓰여질 경기도 문화예술정책과 사업의 5년사에 대한 중요성을 깨닫게 된 것이었다. '기록이 없으면 역사도 없다'는....

### 백서(White Book)의 의미

백서란 사전적 의미로는 '정부가 정치 · 경제 · 외교 등에 관한 실정이나 시책을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발표하는 보고서'이다. 이는 영국 정부가 공식 보고서에 흰 표지를 씌운데서 유래한 말이라고 한다. 각 공공기관들이 정책 보고서나 사업을 정리한 내용들을 연단위 혹은 사업 단위로 묶어 백서를 발간하기도 하는데 일종의 보고서와 자료 묶음으로 이해하면 될 것 같다. 문화 공공재를 다루고 사업을 추진하는 단위인 경기문화재단도 연간 사업 내용과 평가를 담은 백서 발간에 대한 제기가 꾸준히 되어 오다가, 2003년에 이르러 1997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의 역사와 사업 내용을 담은 내용의 백서를 발간하게 되었다. 당초에는 경기문화백서로 추진되었다가 내용이 포괄적이고 방대하여 경기문화재단의 백서로 방향을 바꾸어 추진하였다. 뒤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일정 기간의 역사를 정리하고 성과와 과제를 도출한다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 아닐 수 없고 또한, 향후 재단의 사초로서의 백서를 기록하는 것 또한 역사적일 수밖에 없다. 경기문화재단의 역사는 경기도의 성장과정과 함께 해 왔고, 경기도의 변화와 발전이 경기문화재단과 함께 했고, 도민의 희망과 비전 또한 경기도의 역사속에서 공유되어 왔기 때문이다.



## 백서의 추진과정과 원칙

백서는 경기문화재단의 편집위원회(위원장 윤한택 문예진흥실장)가 추진하고, 문예진흥팀(팀장 양원모)이 주무를 맡아 진행되었다. 편집위원회는 강대욱 기전문화예술 편집위원을 주필로 위촉하여 원고 목차 작업과 자료 수집을 시작으로 백서 집필에 착수하였다. 편집위원회는 백서를 발간함에 있어 다음의 기준을 세웠다.

첫째, 백서란 기본적으로 그동안의 발자취를 가감 없이 정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무엇보다 설립 이후 지금까지 재단이 펼친 사업의 모든 항목에 걸쳐, 기초적인 자료를 수록하기로 하였다. 사업의 목적, 주체, 재원 그리고 그 진행과정에 대한 자료를 남김없이 수록함으로써 그 자체로서 하나의 역사적 일차 자료의 의미를 갖도록 노력하였다.

둘째, 백서란 그럼에도 단순히 자료를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료에 근거하여 지난날을 되돌아보고 현재의 자리를 밝히는 작업이며 그럴 때에만 비로소 백서 발간의 의미가 있음을 편집위원회는 동의하였다. 그것을 '평가' 라고 한다면 그 평가는 언제나 그 당대의 조건을 십분 고려하되 '오늘' 의 관점에서 시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점을 또한 편집위원회는 판단하였다.

셋째, 편집위원회는 이 백서가 단순한 자료의 열거나 과거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재단이 어떤 조직적 전망을 해야 하는가에 대한 일종의 '좌측 선두 기준' 의 기능을 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물론 앞으로 재단의 향후 조직적 전망과 중단기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는 것은 별도의 긴요하고도 진지한 작업을 필요로 한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라도 백서는 그 일차적 정리의 몫을 해야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강대욱 주필이 정윤수(문화 평론가)씨로 변경되고, 사업 담당자가 부서이동을 하는 등의 우여곡절들이 있었으나, 부서간 업무협조를 통한 자료수집과 사업 항목화 작업은 꾸준히 진행하였다. 5년간의 역사를 단기간에 정리한다는 것은 무척 난해하고 복잡한 일이었고, 사료가 될만한 자료들 또한 최종결재가 된 형태(사업계획보고서, 사업추진 실적보고서)로 남아 있어, 당초 사업 기획의 의도나 진행 상황을 자세히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그러나 재단 설립초기부터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의 증언과 기획협력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통계자료들로 인해 그 갭(Gap)은 일정정도 해소되었고, 상당한 객관성과 근거를 확보한 백서가 될 수 있었다. 편집위원회는 백서의 항목을 총 3편 10장으로 구성하고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 제1편 냉철한 자기반성과 새로운 전망을 위하여
· 제1장 – 경기문화재단 반(半)십년 회고와 성찰
· 제2장 – 경기문화재단, 그 5년의 역사
· 제3장 – 문화환경의 변화와 경기문화재단의 새로운 전망
□ 제2편 주요추진사업
· 제1장 – 전통문화의 발굴계승
· 제2장 – 문화예술진흥
· 제3장 – 국제교류, 남북교류
· 제4장 – 문화관광 및 문화산업
· 제5장 – 문화예술정보화
· 제6장 – 부설기구
· 제7장 – 도 수탁사업
□ 제3편 부록


## 백서의 내용

1편 '냉철한 자기 반성과 새로운 전망을 위하여' 에서는 재단 출범의 의미와 역사 그리고 전망을 다루었다. 재단의 출범의의에 대하여 ① 도민의 문화적 삶의 향상 ② 변화하는 21세기 문화환경에 대응하는 경기도의 문화예술진흥 ③ 문화민주주의 실현 ④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시대적 과제 수행 등으로 나누어 기술하였다. 재단의 역사는 크게 네 단계로 구분하여 기술하였는데 정초기, 정착기, 조정기, 성장기로 구분하여 연도별 사업구분이 아닌 재단의 성장과정 단계에 맞추어 나누었다. 이는 재단이 설립되어 현재까지 진행되어온 역사속에서 조직과 사업의 방향이 크게 변화하였던 특징적 시기들로 구분하여, 연도별 기계적 대입이 아닌 내용적 구분이 가능하게 하려고 한 것이다.

| | |
|---|---|
| 정초기 | (1997년~1998년)<br>재단의 진로 모색 및 문화예술진흥 중단기 종합계획 수립 |
| 정착기 | (1999년~ 2000년 상반기)<br>문화예술진흥사업 촉진과 경기도 정체성 확립 |
| 조정기 | (2000년 하반기~ 2001년 상반기)<br>문화예술 진흥 사업의 내실화와 재단 정체성 굴절 |
| 성장기 | (2001년 하반기~현재)<br>재단과 경기문화의 정체성 재확립 및 문화사업 강화 |

또한, 전망에 대해서는 문화환경의 변화에 대응하는 경기문화재단의 새로운 과제들에 대하여 논하였는데, 주필은 세계적 규모의 문화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현재, 시대 감수성의 흐름이 달라지고 있고, 정보화를 바탕으로 하는 다양한 창작방식들이 대두되고 있다면서 재단에 다음과 같이 주문한다.

"문화의 세계화와 동아시아 문화 연대, 젊은 세대의 문화적 욕망과 새로운 문화적 실험들, 정보화 시스템의 발달과 주 5일 근무제에 따른 삶의 양상 변화 등 오늘날 벌어지고 있는 이와 같은 다양한 변화의 요인을 세밀히 연구하여, 재단의 향후 사업 설정에 있어 요긴한 잣대로 써야 한다. 재단은 늘 변화하는 사회의 객관적 조건을 섬세하게 분석하고, 그에 따른 문화예술가들의 도전적이고 야심찬 창작 방식을 적극 검토하며,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수용하는 문화 소비자들의 양상을 항상 예민하게 검토해야 한다. 그것에 기반한 좀더 생산적이고 진취적인 사업을 재단은 추진해야 한다. 그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막중한 의무이다. 재단은 '경기' 의 문화예술을 위해 존재하는 기구다. 재단은 문화예술 창작자들보다 더 젊고 싱싱하기 위하여 늘 긴장해야 한다."

재단의 조직과 관련한 부분에서는 재단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새로운 사업실행의 원칙을 세워 내용과 형식이 일치하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제언한다. 재단의 위상을 정립하기 위하여 내외부 여러 단위들과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요구하고, 문화예술분야의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집중되어야 하며, 재단의 기획과 전략단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특히 그런 조직적 강화를 통하여 이루어야 할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지적도 잊지 않았다.

"재단의 조직적 목표는 경기도의 문화예술 진흥에 있다.

문화예술 진흥이란 단순히 도민들에게 문화적 체험을 제공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도민의 문화적 체험을 더욱 촉진함은 물론, 문화예술 인프라 구축과 콘텐츠 생산에 직접적으로 기여하는 것이다. 나아가 경기도의 문화 유산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새로운 시대의 역동적인 문화를 생산하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기도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립하며 참으로 다양하고 건강한 문화적 생태계를 알차게 형성하는데 기여하는 것이 재단의 과제인 것이다."

제2편 주요추진 사업에서는 각 사업들을 성격별로 재분류하여 정리해 놓고 그 성과들을 따져보았는데, 전통문화 발굴 및 복원 사업의 현대적 계승의 미흡, 지원제도의 전면적 재정비 필요, 관객개발과 지원정책 부재, 지역문화의 세계화 활동 저조, 남북문화교류 활동 부재, 시대착오적인 문화관광 및 문화산업 접근, 정보화 마인드 부족, 수탁 사업 태도변화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제3편 부록은 경기문화재단 일반 현황 등의 자료들을 모아두어 향후 재단관련 연구사업의 사료로 쓰이는데 활용이 가능하도록 배치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역대 공모지원사업의 심사위원 명단이 공개되었다는 것이다. 이것은 향후 재단의 모든 공모지원 심사에서 사후 심사위원을 공개하여 불공정 논란 등을 해소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 향후 과제

백서는 기록의 근거이며 자료이다. 과거를 토대로 현재를 확인하고 전망을 구하는 데이터이다. 경기문화재단은 그 첫 데이터로 백서를 내놓았으며, 향후에는 연단위로 연감을 발행하여 그 역사를 자주 들여다볼 계획을 하고 있다. 도민으로부터의 문화예술정책과 도민과 함께 하는 사업이 이 백서로부터 다시 출발하기를 기대하며,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발간사중 한 부분을 발췌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지난 6년동안 경기문화재단은 나름대로 착실하게 부여된 역할을 감당해왔다고 자부합니다만, 그 과정에서 시행착오나 미흡한 점도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 더욱 충실한 역할 수행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더 많은 노력과 더 큰 역량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금리 시대의 악화된 경영환경을 극복하는 문제와 재단의 독립성 및 정체성을 확보해야 하는 지속적인 과제들은 우리에게 굳은 결의와 탁월한 지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 백남준

## 백남준미술관 어떻게 진행되고있나?

글 | 문형순(백남준미술관 건립추진팀)

지난 2001년 11월 경기도는 백남준미술관 사업을 위해 백남준과 직접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백남준의 직접적인 이해와 지지를 얻게되었다. 부지로 선정된 지도에 그는 이렇게 적었다. "백남준 白南準 오래 사는 집". 이것이 그가 백남준미술관에 기대하는 바일까?

백남준미술관 사업은 2001년 11월부터 경기도의 전폭적인 지원으로 경기문화재단과 1 · 2차의 위 · 수탁협약을 맺어 진행되고 있다. 이 사업은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비디오 아티스트인 백남준의 업적을 기리기 위한 것으로 이 미술관을 통해 국민에게는 문화 · 관광 인프라 구성을 통한 한층 높은 문화 서비스를, 경기도에는 이를 통한 세계 속의 경기도로 발돋움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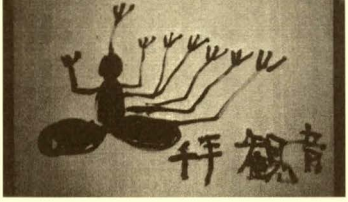
백남준미술관이 설립될 곳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 상갈리 129-1번지로 경기도박물관 동북편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부지 33,000㎡(10,000여평 내외)로 건물은 5,000㎡(1,500여평 내외)를 예상하고 있다. 이곳에는 상설 전시관과 기획 전시실, 자료실 창작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 미술관 사업은 2001년 11월 건립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 오픈 아트홀 건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품구입을 시작하였고, 2002년 4월에는 건립부지 및 성격이 확정되면서 "백남준미술관"의 명칭이 확정되었다. 6월에는 미술관 건축설계 제1차 현상공모가 시작되어 7월에 마감, 5점이 접수되었다. 11월에는 건립추진위원회가 개편되어 최정한교수(서울여대 명예교수, 서양화가)를 위원장으로 김종성((주)서울건축 대표), 유홍준(명지대학교 교수) 등 9명의 위원으로 개편 조직되었다. 또한 백남준의 뉴욕 브룸St. 스튜디오 내 좌벽(3m×15m)의 재현이 완성되었고, 12월에는 신동우교수(아주대 건축학부)와 김홍희교수(홍익대학교 겸임교수)를 추가 위촉하여 추진위원회를 보강하였다. 또한 뉴욕 한국문화원에서 건축설계 현상공모 심사를 진행하여 가작만을 선정하였고, 그 결과 심사위원 전원의 결정으로 미술관 건축설계 국제현상공모를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3년에는 추진팀을 구성하기 위해 전문직을 채용하여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있으며, 건축설계 UIA공인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하고 있다. 작품은 3회로 나누어 총 66점을 구입하였다. 1차 구입('02년 2월)에서는 삼원소를 포함한 작품 58점을, 2차 구입('02년 12월)에서는 로봇 K-456을 포함한 4점, 3차('03년 8월)에서는 Magnet TV를 포함한 4점을 구입하였다. 3차 구입에서는 작가의 연대기적인 과정과 미술사적인 특성에 맞추어 기소장품을 보완하고 향후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작품을 중심으로 구입되었다. 백남준의 작품은 1960 · 70년대에는 음악, 미술, 퍼포먼스 관련 오브제 작품들이 많고, 70 · 80년대에는 퍼포먼스 기록영상과 오브제, 영상작품, 설치작품, 1990년대 이후에는 대규모의 설치와 영상, 레이저, 예전 작품의 뉴 버전을 생산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에 1960년대 작품은 Magnet TV를 포함하여 6점, 1970년대는 TV Garden(NV)외 4점, 1980년대에는 Swiss Clock 외 2점, 1990년대 이후는 삼원소 외 9점 등을 보유하게 되었다. 이외에 회화 및 드로잉이 42점 포함되었다.

미술관 건축설계는 1차 현상공모가 2002년 6월에 실시되어 가작만 선정되었다. 이에 심사위원 전원의 결정으로 국제현상공모를 실시하게 되었다. 국제현상공모는 UIA(Union International des Architectes)의 공인으로 실시하게 되어, 2003년 3월 24일부터 등록을 받아 5월 17일 마감한 결과 53개국 940팀이 등록하게 되었다. 이 등록자들을 대상으로 기본 설계기준을 공개하여 현재 공모작을 접수하고 있다.

이 공모작들은 이미 공개된 세계적인 건축가들과 백남준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사로 8월 29일 당선자가 발표된다. 심사위원은 5대륙의 배분과 UIA추천, 백남준의 추천 등을 고려해 Ms. Odile Decq(프랑스, 건축가), Mr. Arata Isozaki(일본, 건축가), Mr. Axel Schultes(독일, 건축가), Mr. John Hanhardt(미국, 전 구겐하임미술관 큐레이터), Mr. Roberto Simon(브라질, 건축가), 김종성((주)서울건축대표), 김진균(대한건축학회 회장), 오기수(한국건축가협회 회장)로 구성되었다. 또한 서울대학교 최재필교수를 Professional Advisor로 선정하여 공모진행과 심사진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였다. 이 공모는 인터넷공모라는 또 하나의 특성을 보인다. 백남준이 뉴미디어 아트의 선구자라는 이미지와 IT산업의 강국이라는 한국의 특성을 잘 부각시킨 방법으

로 공모의 전과정이 인터넷을 통해 등록, 질의 응답 등 전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 당선작은 29일 발표되며 1등에게는 당선금과 함께 본 설계권(Design Developement Stage까지)을 부여하여 차후 백남준과의 협의를 통해 미술관의 예술작품화를 추구 하고자 한다. 응모작은 당선작의 모델을 포함하여 10월 1일부터 15일까지 토탈미술관에서 1차 전시를 실시하고, 그 후 경기도에서 1회, 광주 혹은 부산 등의 전국 순회를 통해 전국에 홍보하고자 한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에서는 8월 26일 백남준에게 명예경기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도민들에게는 백남준미술관 건립사업의 지속성을 알리고, 백남준에게는 지속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하고자 한다. 또한 8월 30일에는 미술관 건축설계 심사위원으로 참석했던 존 핸하르트와 악셀 슐테츠, 오딜 데크의 강연회를 통해 백남준의 예술세계와 미술관 경영, 그리고 미술관 · 박물관 건축 등을 통한 현대 건축의 흐름을 알리고자 한다. 이번 강연회는 그동안 백남준에 대한 인지도에 비해 그의 예술세계는 잘 알려지지 않았던 바, 그것을 조금이나마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며, 세계적인 건축가들의 세대간 시각 차(악셀 슐테츠: 1930년대 생, 오딜 데크 : 1950년대 생)등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후 백남준미술관 사업은 모든 건립과정을 다큐멘터리로 기록하고 백남준 예술세계와 관련한 시나리오를 공모하여 그의 예술세계를 조명해 보고자 한다. 또한 MI(Museum Identity)를 공모하여 미술관의 이미지를 통합하여 진행하고자 하며, 여러 가지 형식의 국내 작품 및 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또한 비디오 아카이브와 관련해서 이를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계속 수집할 예정이다. 백남준미술관은 2005년 7월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2003년 12월 착공을 시작하여 2004년부터 건축 및 조경, 전시설계, 시설 설치 등을 진행하고자 한다. 미술관의 하드웨어인 미술관 건축, 소프트웨어인 미술관 컨텐츠, 휴먼웨어인 추진팀/개관팀의 3위 일체를 통하여 세계 속의 백남준미술관을 만들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일반인들과 전문가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한다.



백남준미술관 추진일정

2001. 11 건립기본계획
2001. 12 경기도와 경기문화재단 간 사업 위, 수탁 협약 체결
경기도와 백남준 간 오픈아트홀건립 관련
1차 양해각서(MOU)체결
2002. 01 오픈아트홀 건립추진위원회 구성
2002. 02 1차 작품구입 계약 체결
2002. 03 작품 인도 및 보관
2002. 04 건립부지 및 백남준미술관으로 명칭확정
2002. 06 미술관 건축설계 현상공모 경기도 백남준
간 미술관건립 관련 2차 양해각서(MOU)체결
2002. 07 미술관 건축설계 현상공모 완료
2002. 11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구성(9명)
2차 작품구입 계약 체결
2002. 12 미술관건립추진위원회 추가위촉(2명)
건축설계심사(뉴욕 한국문화원, 가작만 선정)
2차 작품 인도 및 보관
2003. 추진팀 실무자 채용, UIA(UNION
INTERNATIONALE DES ARCHITECTES)에
국제공모 의향서 전달, 미술관 건립추진위원회
제3차 회의(추진단 운영규정 개정)
백남준미술관 www.paiknamjune.org
도메인 확보(기증자 박형민)
2003. 03 백남준미술관 건축설계 UIA 국제현상공모 실시
2003. 08 백남준미술관 건축설계 UIA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2003. 10 백남준미술관 건축설계 UIA 국제현상공모
응모작품 전시회 (서울 평창동 토탈 미술관)
2005. 07 백남준미술관 개관예정

# Mix & Match

## 경기아트센터 Mix & Match展

글 | 이영주(문화사업팀 큐레이터)

경기도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른 지역과의 교류와 연계를 통한 연장선에서의 새로운 문화 제도를 창출할 수 있는 개념의 수립이 필요하다

지난 7월에 있었던 Mix & Match 展은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보여주고 중, 신진 작가를 통해 지역을 넘어 서로간의 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기획된 2003년 경기문화재단의 첫 기획전시였다. 권여현, 권용래, 문경원 등 현재 미술계에서 작품성을 인정받고 있는 중진 작가들과 조습, 정인엽, 홍지연, 유지훈 등 젊은 작가들이 참여하였다. 장르의 구분이 없어지고 혼합되는 경향이 더욱 심화되고 있는 미술계의 흐름을 조망하고자 사진과 영상, 설치 등의 작품을 문화가 서로 차용되고 인용되는 포스트모던적인 관점에서 전시됐다. 이 전시는 창의성과 실험성을 보여주는 젊은 작가들을 발굴, 지원하고자 하는 아트센터의 성격을 반영하였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전시에서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에서 작품설치와 공간배치 등에 대한 서로간의 대립과 논쟁으로 전시가 끝난 후에도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 졌다. 참여작가과 미술전문가들은 물론 관객들 모두가 예술적 자극을 받을 수 있었고, 예술에 대한 활발한 토론의 장으로 기록됐다는 평이다. 경기아트센터는 각종 문화예술행사를 개최하고 활성화시킴으로써 일반인들에게 문화 향수의 기회를 확대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 2001년 개관됐다. 경기도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목표 아래 현재 유망작가 발굴을 위한 공연 및 전시 등의 행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재단 문화공간인 아트센터를 이용한 다양한 공연, 전시 등을 통하여 도내 예술인들의 창작과 발표 의욕을 고취시키고, 도민의 문화생활을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이 중 전시실은 지역 작가들을 중심으로 연 4회 이내의 자체 기획전과 대관전시로 운영되고 있으며, 특히 도내 미술인들에게 저렴한 대관료로 경제적 부담감을 덜어주어 누구나 자유롭게 전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아마추어 또는 청소년 단체, 신생 단체에게 우선권을 주어 문화소외계층에 좀 더 많은 전시의 기회를 진행해 왔다.

하지만 참여단체의 수준이나 전시되는 작품의 내용과 성격, 전시기간 등에 대한 명쾌한 구분이 없어, 전시의 수준이 낮아지고 단지 일회성 행사에 그친다는 평가를 받아 온게 사실이다. 지금까지 경기아트센터를 포함하여 경기도에서 행해지고 있는 각종 미술제와 행사를 살펴보면, 작업의 양과 질적인 특성이나 수준과는 관계없이 지역관련 협회나 각종 단체, 모임 등의 지역적 선점권 등 예술 외적인 요소들이 경기지역 미술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작품성으로 인정받아야 할 미술 본래의 특성이 아니라 특정 집단에 대한 배려와 소박한 분배주의가 지역 미술의 힘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작업량이 많고 작품자체로 평가받을 만한 예술적 재능과 실력을 겸비한 미술인들이 지역에서는 작업만 하고 발표는 서울에서 하는 식의 관행을 작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는 지역미술계가 예술 따로 지원 따로의 분열적인 구조로 점점 이원화 되는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또한 좋은 작가가 참여하는 전시는 서울이라는 곳에 집중되어 있고, 서울에서 진행되는 좋은 전시를 보기 위해 예술에 관심을 가진 많은 사람들이 서울로 이동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지역의 미술전시가 관객들에게 외면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다. 경기도에는 분당과

일산, 양평, 파주, 안성 등 수많은 미술인들이 집단을 이루어 작업하고 있는 새로운 예술가 촌들이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서울에 비해 비교적 저렴한 장소 임대의 기회로 인해 경기도 지역에 작업실을 구하는 경우가 많고, 이런 이유로 경기지역에는 상당수의 미술인들이 실제로 거주하고 있다. 사실 서울과 경기도는 하나의 통합적인 수도권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매우 애매하다. 따라서 경기도라는 지역의 특수성을 강조하기 보다는 다른 지역과의 교류와 연계를 통한 연장선에서의 새로운 문화제도를 창출할 수 있는 개념의 수립이 필요하다. 경기아트센터는 전시실을 포함하여 다산홀과 예지실, 강의실 등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다른 문화공간의 활용은 대체적으로 잘 이루어진 반면 전시사업은 기획전시와 성수기 때의 대관전시를 제외하고는 전시실을 비워두는 경우가 많아 전시실 활성화와 고정관객의 확보에 실패하였다고 본다. '활성화' 라는 표현은 1년 내내 전시실의 문을 열어 놓을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달리 말하자면 관객이 늘 찾을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관객이 외면하는 전시실은 존재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관객들은 좋은 작가와 좋은 작품을 만나고 싶어한다. 전시가 단지 즉흥적인 일회성 행사로 치루어 진다면 관객과의 지속적인 만남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전시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미리 확보하여 충실한 내용이 담긴 전시를 준비해야 하고, 대관 전시의 경우 대관 접수를 받은 작가나 단체들은 작품심사를 통해 선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 서울이나 또 다른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좋은 전시를 공동으로 개최하여 서울과 지역간의 교류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경기아트센터는 현재 전시와 공연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운영위원회를 통하여 운영되고 있다. 또한 2004년 전시 및 공연 사업을 위한 일정을 준비하고 있다. 앞으로 경기아트센터가 예술적인 면에서 창의적인 사고와 실험정신을 보여주는 젊은 예술인을 발굴하여 지원하는 일은 경기도의 문화와 예술을 위해 가능성들은 열어 놓는 일이 될 것이다. 경기문화재단은 이를 위해서 그룹전 뿐만 아니라 경기아트센터에서 전시했던 작가들의 활동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부 작가들의 후속작업을 지원하고자 한다. 또한 경기문화재단이 소장하고 있는 소장품들의 적극적인 활용과 다양한 관람객들의 눈높이에 맞춘 전시, 강연회, 워크샵, 전시설명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에 위치한 중, 고등학교와의 연계를 통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문화소외계층의 미술문화 접촉기회 확대, 전시공간의 공공성에 대한 사회적 기능 제고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거듭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중에 있다. 경기아트센터 전시실은 이의 일환으로 Mix&Match 展에 참여했던 작가들의 후속작업을 지원하기 위해 오는 10월 개인전 지원과 함께 12월에는 그룹전을 준비중이다. 매년 미술의 모든 장르를 포괄하는 경기지역의 작가를 선발하여 경기아트센터가 신진작가들의 등용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경기아트센터가 마련한 이번 첫 기획전은 전시실 운영이나 관람객에 대한 서비스 부족으로 비난과 비판도 있었지만, 전시내용이나 작가선정 등에 있어 좋은 평가를 받는 등 지난해에 비해 관람객 수가 두배 가까이 늘었다.

그동안 홍보에 다소 소극적이었던 점을 인식하고 앞으로 미술전문사이트나 전문잡지 등을 통해 경기아트센터의 문화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방침이다. 경기아트센터의 앞으로의 과제는 동시대 미술의 흐름을 보여줄 수 있는 전시를 통해 관객이 찾는 곳, 대중과의 친밀한 소통이 가능한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매김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경기도민을 위한 진정한 문화공간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길이라고 본다.

# Cyber 사이버 도서관 Library

## 사이버 도서관은 어떤 곳!

글 | 백선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도서관은 다양한 지식과 정보자원을 체계적으로 수집, 정리, 축적하고 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에게 신속하고 정확하게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지식의 보물창고이다. 공공도서관은 정보의 공급원으로 지역의 주민들에게 풍부한 정신적 양식과 생활에 필요한 지식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 건전하고 합리적인 사고력을 함양시키는 핵심적 문화기반 시설이다. 특히 21세기의 공공도서관은 시민의 대학으로서 시민생활 향상에 공헌함으로서 지역 문화발전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 공공도서관의 협력의 필요성 및 사이버도서관의 탄생 배경

최근의 TV 프로그램들에서 많이 떠들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의 도서관과 도서관시설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공도서관이 지역사회의 문화기반시설로서 제 역할을 다 하기 위해서는 개별도서관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하다. 급격히 늘어나는 정보자원을 관리하고, 점차 커지는 지역주민의 문화/지식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개별도서관 하나의 힘으로는 부족하며, 도서관간의 상호 협력을 통해서만 그 부족을 메울 수 있다는 것은 이미 학계에 정설로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경기도내의 공공도서관들은 31개 시 · 군간의 예산차로 인하여 도서관 수나, 장서수, 규모가 천차만별이며, 이 때문에 시 · 군간 도서관 서비스 수준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러한 지역차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신규로 건립하거나 장서구입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기본적인 방법이지만, 이와 함께 도서관간 협력을 공고히 하는 것이 보다 빠르고 효율적으로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할 수 있는 길이다. 현재 경기도에는 60개의 공공도서관이 있으며, 경기도는 2005년까지 100개의 공공도서관을 운영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가 시 · 군청 등의 지자체, 도교육청, 시설관리공단 등 위탁운영시설로 각기 달라 통합적인 도서관 정책을 마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은 이러한 주체의 부재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경기도의 중앙도서관건립의 일환으로 탄생하게 되었다.

### 사이버도서관의 서비스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에서의 서비스는 크게 도민을 위한 서비스와 개별 공공도서관에 대한 서비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우선, 경기도에 있는 60개 공공도서관 소장자료의 종합목록을 제공하고 있다. 사이버도서관홈페이지(http://www.goldis.go.kr)의 통합검색기능을 이용하여 원하는 책을 검색하면 어느 도서관에서 이 책을 소장하고 있는지, 또 대출가능한지의 여부를 한번에 알 수 있다. 경기도와 관련된 향토자료들은 많은 수를 원문으로 구축하여 인터넷을 통하여 전체 내용까지 볼 수 있다. 그리고 자신이 소속된 도서관에 없는 책도 다른 도서관에서 빌려볼 수 있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원하는 책이 지역내 도서관에 없을 경우 다른 지역 도서관에 방문할 필요 없이 상호대차를 신청하면, 도서관간의 대출절차를 통해 가까운 도서관으로 책을 보내준다. 일반적으로 공공도서관은 각 시 · 군민을 대상으로 관외대출회원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필요한 책이 있어서 직접 타 시 · 군 도서관을 방문한다 해도 대출은 불가능하다. 또한 신규도서관의 경우 절판 등의 이유로 오래된 도서는 구비하기 힘든데, 이런 점이 상호대차 제도를 통하여 극복이 가능하다. 그리고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에서는 상호대차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상호대차시스템을 개발, 개별 공공도서관에 지원하여서 개별도서관에서 택배를 관리하고 모니터링 함으로써 빠르고 정확한 서비스를 할 수 있게 지원하고 있다. 또한 사이버도서관에서는 모든 서지데이터를 중앙의 서버에 두고 인터넷을 통해서 도서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GOLDIS도서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중소규모 도서관과 문고급 도서관, 자료실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다.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각 도서관에서는 서버관리의 부담과 인력 부족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줄일 수 있다.

### 사이버도서관의 앞으로 나아갈 방향

경기도사이버중앙도서관에서는 앞으로 경기도내 발간물을 지속적으로 원문구축하고, 베스트셀러 등의 전자책을 구입하여 서비스함으로써 목록뿐만 아니라 자료의 내용까지 인터넷을 통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한 상호대차제도를 도내 공공도서관뿐 아니라 600여개에 이르는 문고와 도내 대학도서관에도 확대하여 경기도민이면 누구나 도내에 있는 모든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상호대차제도의 확대를 통해 각 도서관들이 중복되는 도서의 구입을 줄이고 특성화된 자료를 구비할 수 있게 되면, 도 전체가 하나의 도서관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각 도서관에서 운영할 수 있는 문화/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참고봉사 서비스 등 현재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도서관 서비스들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사서 대상의 강좌와 연수를 기획하여 도서관서비스의 질적향상을 꾀할 것이며, 도내 도서관 전체를 관통하는 정책을 개발하고 평가하여 경기도민의 도서관서비스를 총괄 지원할 것이다. 윤희

사이버도서관 추진과정

1次年度 事業推進(2000. 8~2001. 4)
1) 사업내용
- 시스템구축 : 홈페이지, 종합목록, 상호대차, 원문관리, 지역거점도서관, 시소러스, 통합검색 시스템
- 데이터구축 : 종합목록구축(도내 공공도서관 370만 서지), 시소러스구축(11만 4천어)

2)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
- 도내 53개 공공도서관의 370만 장서를 인터넷상에서 한번의 검색으로 소장위치 및 대출여부 확인가능(16개 광역시?도 중 최초)
- 도내 공공도서관간의 상호대차신청 및 대출결과 조회가능
- 53개 공공도서관 전체를 하나의 도서관처럼 활용

2次年度 事業推進(2001. 9~2002. 5)
1) 사업내용
- 시스템구축 : AHS 시스템, 단행본 · 연속간행물 종합목록, 의사결정지원, 상호대차관리, 참고봉사, 이용자관리시스템
  ☞ 참고봉사 : 이용자의 요구사항을 사서가 도와주는 서비스
- 데이터구축 : 원문DB구축(1,688권), 연속간행물 종합목록DB구축, 시소러스용어 확장 구축(2만용어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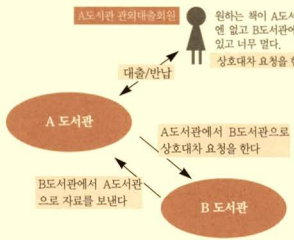
2) 추진실적 및 기대효과
- 웹기반 도서관리시스템 설치로 공공도서관의 전산관련 예산 절감
- 경기도 지역자료의 원문DB화로 인터넷을 통해 열람 및 출력가능

사이버도서관 현황
1) 종합목록구축
- 도내 61개 공공 도서관 및 유관기관, 학교 등 총73개 기관
- 1709만건의 서지와 600만여권의 소장 정보
- 연속간행물 종합목록구축 : 24개 도서관 3,643건

2) 원문데이터 구축
-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행정자료 1,688권 839,103면

3) 시소러스 용어 데이터베이스 구축 : 42,964건
4) 상호대차 시스템 구축 및 상호대차 시행(2001.12.1)
- 총 61개 도서관 중 47개관 시행 (6개관 미신청, 8개관 신설)

##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 시나리오




□사례

안성에 사는 A양은 특수아동과 관련된 책을 찾고 있다. GOLDIS 홈페이지에서 '특수아동'을 검색어로 입력, 68건의 자료를 찾았다. 이중 A양이 보고자 하는 자료는 〈쿠슬라와 그림책 이야기〉, 〈아동미술과 특수아동미술〉, 〈장애아동을 위한 창조적 놀이활동〉의 세 권. 이중 〈쿠슬라와 그림책 이야기〉만 안성시립도서관에 소장되어 있고, 나머지 두 권은 다른 지역 도서관에만 있었다. A양은 자료신청 아이콘을 클릭해 두 권의 책에 대해 각각 상호대차 신청을 하였다. 사흘 후, 신청한 자료가 안성에 도착했다는 메시지를 받은 A양은 안성시립도서관을 방문하여 세 권의 책을 모두 대출하였다.

FAQ

Q) 상호대차란 무엇입니까?
A) 상호대차란 협정에 가입된 도서관들끼리 소장자료를 서로 빌려주어, 이용자가 소속도서관에는 없으나 협정에 가입한 다른 도서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자료를 소속도서관에서 대출할 수 있게 하는 도서관 서비스입니다.

Q) 책을 택배로 집에까지 배달해 주나요?
A) 아닙니다. 현재로서는 상호대차로 대출된 자료는 이용자의 소속도서관으로 배달이 됩니다. 이용자의 집에까지 배달하는 서비스는 상호대차서비스가 안정화 된 후에 제공될 예정입니다.

Q) 상호대차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A) 소속도서관에 전화, 혹은 직접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GOLDIS AHS 시스템을 사용하는 도서관 이용자는 GOLDIS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실 수도 있습니다.

Q) 상호대차 과정 중 자료가 분실 또는 파손 된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 어떤 과정에서 자료가 분실 또는 파손되었는가에 따라 명확한 책임소재를 밝혀 책임이 있는 기관 또는 개인이 배상합니다. 책임소재에 관한 사항은 계약서 및 규약에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택배 운송 과정에서 자료가 분실 혹은 파손된 경우에는 택배 회사에서 동일본으로 배상합니다.

Q) 이용자가 상호대차제도를 이용해 대출한 자료를 반납하지 않거나 연체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A) 요청도서관의 관외대출희원규정에 따라 제재를 가합니다.

**기전문화대학은**

도내 31개 시군의 문화기반 시설 및 문화예술 인력 거점센터로의 역할을 위해 문화예술 교양교육과 전문교육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청소년들에 대한 다양한 예술활동 지원을 통해 문화의 세기를 준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지난 호에서 필자는 기전문화대학이, 원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보장하는 범용형 교육체제(Universal-Access System) 환경이 도래한 현실 속에서 '문화적 리터러시'를 매개로 하는 문화교육을 앞장서서 실천하는 비학교 교육기관(Non-School Education Institute)의 위상임을 설명한 바 있다. 문화교육의 원리에 대한 설명에서는 '어떻게'라는 방법론보다는 '무엇을, 왜' 가르치는가에 방점을 둔다고도 하였다.

## '난달'과 '다님길' 과정 그리고 기전문화대학의 역할

현재 기전문화대학에서는 교양교육 과정인 '다님길'과 전문교육 과정인 '난달'이 운영되고 있다. 아니 운영되고 있다는 표현보다는 새롭게 개발하거나 이미 성과가 인정되고 있는 것 중에서 가려 뽑아 창조적 재적용을 시도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적합하다. 올해는 기전문화대학이 처음으로 문화교육 과정을 시작한 시기이고 새로운 문화교육의 열기를 가능한 여러 곳에 자주 소개할 필요가 있고 각 지역의 활동주체들에게 문화교육의 가능성과 내용을 인식시킬 필요가 있기에 '교양교육 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다님길 과정은 이제 막 형성되기 시작한 각 지역협력기관들 스스로 자신의 지역에 필요한 교과를 선별, 채택해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옳다. 그리고 각 지역기관마다 독자적으로 개발된 독특한 문화교육 교과과정이 있다면 그것을 다른 지역에 전파하고 새롭게 적용하도록 업무네트워크를 가동시키는 것이 기전문화대학의 역할이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교양과정으로서의 '다님길'은 이렇게 지역별 업무공조가 가동되기 시작할 때까지 그 환경을 구축하는 역할로서 기전문화대학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다. 물론 나중에 다시 설명하겠지만 보다 참신한 교양교과를 개발하고 보급하는 일은 기전문화대학의 지속적 역할임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다만 기전문화대학이 대중교육은 지역에 이양하고 전문과정 중심으로 운영된다고 할 때 예산투자 대비 파급효과를 판단의 잣대로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문화의 집, 주민자치센터, 문화원 등 다양한 형태의 설립목적을 지닌 공공문화기반시설들이 지역별로 많이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아직 각 공간별 특성화 프로그램이 충분히 차별성 있게 활용되고 있지 못한 실정이며 심지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백화점 문화센터와의 차별성도 부각되지 못하는 수준도 더러 있다.

다시 말해서 대중교육을 주도할 다양한 문화공간들이 있으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책은 활발하지 못한 현실에서 기전문화대학은 교양강좌를 직접하는 것보다는 문화공간 특성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

# 문화예술 교육의 새로운 지평

## 왜, 기전문화대학인가? - ②

글 | 김보성(경기문화재단 기전문화대학장)

대중교육을 주도할 다양한 문화공간들이 있으나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과 보급을 위한 정책은 활발하지 못한 현실에서 기전문화대학은 교양강좌를 직접하는 것보다는 문화공간 특성별 교육프로그램 개발연구에 집중하는 것이 더 필요한 일일 것이다

일 것이다. 말 그대로 기전문화대학은 다님길과 난달의 문화교육 교과과정 개발센터로서의 기능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교양교육 과정이지만 새롭게 개발되는 교육프로그램은 성격에 따라 기존 교육예산에 비해 훨씬 많은 예산을 필요로 하는 과목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문화유산' 이라는 다님길과정 중에 '경기도와 샤머니즘' 이라는 과목을 보자. 굿의 제의적 요소와 종합예술적 요소를 과정별로 설명하면서 직접 무당이 굿을 하고 그 과정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미신' 으로 오해된 관점을 극복하고 소중한 문화유산에 대한 안목을 형성하게 하는 과목이다. 강의형식을 취하지만 굿을 실제 처음부터 끝까지 실연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소한 500만원 이상의 비용을 필요로 한다. 실제 연극을 공연하거나 음악공연을 하고 관객(교육생)과 함께 토론식 워크숍을 진행하는 과목의 경우도 적지 않은 비용이 필요하다. 아직 이렇게 새롭게 시도되지만 예산규모가 커지는 과목들을 지역기관이 전적으로 부담을 하기에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

다님길 과정중 「인형극 교실」

따라서 과목특성에 따라서는 지역별 자생력이 생겼어도 기전문화대학이 일정한 예산지원을 해야 실천될 수 있는 과목이 교양강좌 안에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늘어난 교육비용보다는 새로운 문화교육을 통한 주민들의 문화적 각성과 감동의 체험이 훨씬 커다란 가치를 만들어낸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 난달 과정과 기전문화대학의 위상

전문교육 프로그램인 난달과정은 기전문화대학의 핵심적인 영역이다. 교양교육프로그램이 우선 실시된 것은 앞에서 설명한 이유말고도 이후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배출되는 지역문화인력들의 실천의 장과 네트워크의 발판을 형성하려는 의도도 있었다.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턱없이 부족한 것이 공공문화기반시설이지만 예전에 비해서 매우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간을 제대로 운영하거나 능동적으로 설립취지에 맞게 잘 활용할 수 있는 지역의 전문문화인력은 많지 않다.

최근 수도권지역을 중심으로 예술경영대학원이 30여 개나 설립되어 해마다 600여명 이상의 인력이 배출되고 있지만 문화예술현장과의 긴밀한 협력체제 구축에는 아직 한계가 있어 전문교육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이 충족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러한 현

인류의 오래된 지혜(Old Wisdom)인 전통문화에 서려있는 미감을 배우고, 미래의 가치를 담고있는 인문학 강좌들을 통해 창조력을 함양하며, 이러한 강의와 더불어 소모임으로 나뉘어 실천 가능한 프로젝트 워크숍을 통해 현실감각도 재충전하는 기회로서 '난달' 과정은 매우 의미 있는 영역이다

실에서 경기도 31개 시군별로 지역의 정체성을 지닌 문화예술 종사자들이 지속적이고도 자주 재충전을 위한 심화교육을 받을 수 있다면 지역문화 발전에 커다란 기폭제가 될 것이다.

기전문화대학이 전문과정으로서의 문화교육을 가장 중시하려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문화예술 분야에 종사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의하겠지만, 한번 이 분야에 발을 들여놓으면 좀처럼 보수교육을 받을 기회가 주어지기 어렵다. 이것은 상업적인 영역이나 공공영역을 막론하고 공통된 현상이다. 그나마 서울지역은 민간전문교육기관 등이 있어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 이러한 프로그램을 활용해 자신의 역량을 가다듬기도 하지만 경기도 지역만 하더라도 이러한 재교육의 기회는 거의 없었다.

기전문화대학은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의 정체성을 갖고 지속적으로 지역문화의 텃밭을 일구려는 사람들에게 오아시스와도 같은 역할을 하려고 한다. 말 그대로 인류의 오래된 지혜(Old Wisdom)인 전통문화에 서려있는 미감을 배우고, 미래의 가치를 담고있는 인문학 강좌들을 통해 창조력을 함양하며, 이러한 강의와 더불어 소모임으로 나뉘어 실천 가능한 프로젝트 워크숍을 통해 현실감각도 재충전하는 기회로서 '난달' 과정은 매우 의미 있는 영역이다. 아래의 표는 부천, 춘천 등 문화도시 정체성을 선진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지역에서 실시한 바 있는 '문화기획인학교' 의 사례다. 이 프로그램의 핵심은 점차 늘어가고 있는 민-관 네트워크를 겨냥해 지역의 민간문화활동가들과 문화관련 분야의 담당공무원이 함께 모여 강의와 워크숍을 통해 지역의 현안을 고민하고 서로 인적네트워크를 형성하여 교육 이후 지역의 문화역량으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는 효과가 높다는 점이다.

| 강 좌 | 교 육 내 용 | |
|---|---|---|
| 강좌 1 | 21세기 패러다임의 변화와 우리 문화에 대한 이해 | 워크숍 분반 |
| 강좌 2 | 문화시설 연계방안과 사례분석 | Workshop 1 |
| 강좌 3 |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 | Workshop 2 |
| 강좌 4 | 문화자원봉사와 시민문화운동 | Workshop 3 |
| 강좌 5 | 지역개발과 지역축제 | Workshop 4 |
| 강좌 6 | 문화공간 및 예술단체의 전문적인 운영방안 | Workshop 5 |
| 강좌 7 | 시민문화 프로그램의 현황과 과제 | Workshop 6 |
| 강좌 8 | 문화시설 종사자와 문화서비스 | Workshop 7 |
| 강좌 9 | 한국적 문화기획자의 길 | Workshop 8 |
| 강좌 10 | Workshop Presentation & Critique 1 | |
| 강좌 11 | Workshop Presentation & Critique 2 | |
| 강좌 12 | Workshop Presentation & Critique 3, 수료식 | |

〈부천문화기획인학교, 1999. 12 – 2000. 1, 주당 2회 실시〉

| 강 좌 | 교 육 내 용 | |
|---|---|---|
| 강좌 1 | 지역문화예술기획의 범주와 기획자의 역할 | 워크숍 분반 |
| 강좌 2 | 문화기획의 세 가지 원리(기획자의 세 가지 역할) | Workshop 1 |
| 강좌 3 | 지역문화기획의 전문적 운영방안 | Workshop 2 |
| 강좌 4 | 지속가능한 문화프로그램 개발과 전문 인력운영 필요성 | Workshop 3 |
| 강좌 5 | 지역개발과 지역축제 | Workshop 4 |
| 강좌 6 | 춘천시 문화정책 사례연구 | Workshop 5 |
| 강좌 7 | 지역문화예술기획인 네트워크 | Workshop 6 |
| 강좌 8 | 지역문화자원봉사 운영프로그램 개발 | Workshop 7 |
| 강좌 9 | 문화적 해석을 통한 대안적 기획 | Workshop 8 |
| 강좌 10 | 지역축제의 프로그래밍 | |
| 강좌 11 | Workshop Presentation & Critique 2 | |
| 강좌 12 | Workshop Presentation & Critique 3, 수료식 | |

〈강원도문화기획인학교, 2002. 11 – 12, 춘천과 원주〉

이러한 전문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얻고자 하는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 지역문화활동을 기획 · 조직할 수 있는 문화기획 인력 재교육을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 중앙중심의 일회적 교육이 아닌 지역문화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지속적 교육체계 마련
- 지역문화 발전에 대한 토론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공감대 형성
- 지역 내에서 나아가 지역별 단위의 문화예술 기획인 네트워크 구축

기전문학대학은 프로그램 운영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과 함께 새롭게 개발되는 문화교육과정을 가장 잘 간파할 수 있는 양질의 강사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의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강사 지원센터의 역할도 해야한다

위에 소개된 프로그램을 보면 크게 '마인드개발' 영역과 '프로그램 개발'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강의와 워크숍 전 과정에서 문화와 예술의 '공공재'로서의 사회적 가치를 강조하는 것도 인상적이다. 흔히 문화기획의 영역을 기능적인 것으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높은 문화적 안목을 지니는 것이 좋은 문화기획을 창조하는 밑거름이라는 점에서 기능적 교육보다는 인문학적 접근과 그것과 연관된 실무영역의 교육을 혼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의 틀이 전환된 지역내 인적 네트워크가 형성되지 않는다면 지역문화의 활성화는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을 위해 어떠한 (문화)정책적 결정이 필요한가? 우리 지역에는 어떠한 문화프로그램이 적합한가? 우리 아이들을 위해 주변의 문화적 환경을 어떠해야 하는가? 등 정책적인 문제에서 생활 속에서 느끼는 사소한 영역까지 지역현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교환하고 서로 공유하는 작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기전문화대학의 난달과정은 '길이 여러 곬으로 통한 곳'이라는 순우리말 뜻에서 알 수 있듯이 네트워크의 지역 구심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다양길 과정중 '그림자극 교실'

'지역문화기획인학교' 프로그램 외에도 각 지역 기관별 여건에서 유리한 영역을 우선 전문과정으로 개발하는 것도 방법이다. 예를 들어 안성의 달팽이학교는 사진 등 영상장비를 다량 갖추고 있어 '영상미디어전문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가능했다. 부천에서는 '박물관 많은 도시' 정책을 시행 중에 있어 'Docent & Educator 양성과정'을 개설하는 것이 시의적절한 것이다. 물론 아예 지역문화인력의 기반이 취약한 곳에서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에서 인력을 내어 문화기획인학교 과정을 계기로 문화활동가로서의 입지를 다듬는 기회로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이처럼 기전문화대학은 프로그램 운영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또 기전문화대학은 새롭게 개발되는 문화교육 과정을 가장 잘 전파할 수 있는 양질의 강사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지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강사지원센터의 역할도 해야 한다. 이미 세계적으로 대안교육으로서의 성과를 축적하고 있는 다양한 문화교육기관들의 사례를 모으고 소개하는 일을 포함해서 기전문화대학은 문화교육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소로서의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기전문화대학은 이제 막 걸음마를 내딛은 상태이다. 형태와 내

혹자는 빨리 '마스터 플랜'을 갖춰야 한다고 재촉한다. 그러나 5년 뒤 10년 뒤의 변화를 예측해서 거기에 준한 예산계획과 운영계획을 짠다는 사실이 얼핏 타당해 보이지만, 불과 1~2년 후에 닥쳐올 변화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의 경험으로 보면 '마스터플랜'은 이미 그 자체로 가변성을 거세하는 역할을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일 수도 있음에 선 듯 동의하기 어렵다

용이 완성된 것이라기 보다 여러 사람들이 합심해서 창조적인 실험을 통해 완성해 가는 과정인 것이다. 혹자는 빨리 '마스터플랜'을 갖춰야 한다고 재촉한다. 그러나 마스터플랜을 짜서 실행에 옮기던 시대는 사회적 변화 속도가 그다지 빠르지 않았던 때의 산물이다. 5년 뒤 10년 뒤의 변화를 예측해서 거기에 준한 예산계획과 운영계획을 짠다는 사실이 얼핏 타당해 보이지만, 불과 1~2년 후에 닥쳐올 변화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의 경험으로 보면 '마스터플랜'은 이미 그 자체로 가변성을 거세하는 역할을 하는 시대에 뒤떨어진 개념일 수도 있음에 선 듯 동의하기 어렵다. '문화교육'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내재한 신개념을 다양하게 실험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는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의 선택으로서 「기전문화대학」의 '문화교육'은 지자체 최초라는 점 외에도 교육과정의 참신함으로 이미 많은 수의 참석한 수강자들로부터 갈채를 받고 있다는 사실이 새삼 어깨를 무겁게 한다. 올 해의 시작과 내년까지의 사업 성과를 토대로 기전문화대학의 중기계획이 튼실하게 수립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물론 이러한 성과를 만드는 데에는 도민과 경기지역 문화종사자들의 헌신적인 노력도 중요한 한 몫임을 빠뜨릴 수 없다. 裵甸

다님길 과정중「유적지 발굴답사」(화성 발안리)

# 뉴스라인 Kyeonggi Culture & Art News

## 문화예술교육 정책세미나

문화예술교육의 현황과 전망을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가 9월 18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강당에서 개최된다. 경기문화재단과 경기도의회문화여성공보위원회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정책세미나는 강내희위원장(문화연대집행위)이 「문화예술교육의 시대적 의의」를, 이병곤원장(광명시평생학습원장)이 「평생학습과 문화예술교육」을 주제로 각각 발제를 맡는다. 한편 이 행사를 주관하는 기전문화대학은 이번 정책세미나에 이어 오는 11월초 「지도자양성과 학습주체의 활성화」, 「공공 및 민간영역에서의 정책적 역할」 등을 주제로 문화예술교육정책 세미나를 실시할 계획이다.

## 제4회 경기농악경연대회

경기농악의 활성화를 목적으로 매년 개최되는 「제 4회 경기농악경연대회」가 오는 10월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열린다. 경기문화재단과 평택시가 공동 주최하는 농악경연대회는 일반부(대학생 포함)와 학생부로 구분해 진행되며, 경기농악가락을 중심으로 한 중부지방 농악가락을 공연할 수 있는 전국의 아마추어 농악단체에 한해 참가 자격이 주어진다. 한편 이 경연대회의 장원상(경기도지사賞)에게는 상금 5백만원과 상패가 각각 수여된다.

| 참가부문 및 종목 | 일반부, 학생부 단체농악 | 개인 및 사물놀이 제외 |
|---|---|---|
| 신청기간 | 2003년 9월 15일(월)~10월 11일(토) 13시 | |
| 접수처 | (사)한국국악협회 평택시지부 | (031)656-9924 |
| | 평택예총 | (031)657-2353 |

## 문화재단홈페이지 콘텐츠 포털사이트로 개편

경기문화재단 홈페이지가 전면 개편됐다. 이번 개편은 대부분의 기관 홈페이지가 업무소개 중심인데 비해 문화예술 관련 동영상, 오디오 등 각종 자료를 풍부하게 수록한 콘텐츠 사이트로 변화했다. 또 문화예술 정보도 대폭 강화하는 한편 네티즌이 직접 정보와 자료를 홈페이지에 올릴 수 있도록 해 참여의 폭을 넓힌 것도 주목할 만 하다. (www.kcf.or.kr)

## 문화재단 문예진흥 지원사업 공모일정(9~10월중)

| 주요 지원사업 공모 | 내 용 | 일 정 |
|---|---|---|
| 공연예술 활성화 | – 경기지역 문화 예술인들이 추진하는 음악, 무용, 연극 등 대중취향의 공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br>– 전문 공연장뿐 아니라 거리 등 새로운 공간을 활용하는 공연도 지원 | 9월 공모 |
| 경기문예관광 프로그램 활성화 | – 문화산업활성화를 위해 문화예술관광 프로그램 운영을 지원<br>– 공원, 장터, 유적지나 관광지, 또는 지역의 특수한 자연환경과 결합된 공연이나 행사뿐 아니라, 설화나 민담, 역사적 사실을 현대 적 감성으로 새롭게 해석하고 구현한 작품이나 사업을 지원 | 9월 공모 |
| 지역문화예술 축제활성화 | – 경기도 각 지역 단위 주민들이 서로 어우러지는 한판의 문예축제를 지원<br>– 지역 전통과 특색을 살린 춤과 노래가 있는 각종 놀이마당을 통해 지역 공동체가 서로 소통하고 화합하는 데 기여하는 축제를 지원 | 8월말~9월 공모 |

# 2003. 9/10 KIJEON CULTURE & ART Calendar

## SEPTEMBER

1 MON 2 TUE 3 WED 4 THU 5 FRI 6 SAT 7 SUN 8 MON 9 TUE 10 WED 11 THU 12 FRI 13 SAT 14 SUN 15 MON 16 TUE

- 조승이 발레단 '꿈과 믿음의 사람 요셉'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8시
- 경기도립국악단 토요상설국악공연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5시
- 제8회 노동문화예술제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경기심어즈 소사이어티 솔로와 앙상블의 밤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7시30분
- 늘푸른 여성합창단 제2회 정기연주회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7시30분
- 악극 '사랑의 속고 픈에 울고' /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 오후 7시30분 13일은 오후 4시, 7시30분
- 제35회 난파음악제 대상전 및 기념음악회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7시
- 2003년 전국희롤미술대전 작품접수 / 의정부 예술의전당 제1전시장
- 발레 '백조의 호수' /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 / 오후 8시
- 경기관광교육 아카데미 운영 /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 오전 10시30분~12시
- 보육시설장 보수교육 / 의정부 예술의전당 / 오전 10시~오후5시
- 돌소리와 신명을 찾아서(의정부 한국 국악예술단) /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 오후 7시
- 제7회 의정부시 학생 웅변대회 /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 오전 9시~오후 2시
- 제1회 의정부시 전국 청소년 음악 경연대회 /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 오후 1시~5시

*제미있는 발레
2003년 3월 5일~12일 3일
과천시민회관 소극장 / 오후 7시 30분

*뮤지컬 인형극 '꿈을 주는 그림이야기'
부천 어린이극장~월말 : 오전11시, 오후4시
주말 : 공휴일 : 12시, 오후 2시, 4시

*호주가 본 한반도 사진전 (2003년 9월 1일~9월 21일) / 의정부 예술의전당 원형전시장

## OCTOBER

1 WED 2 THU 3 FRI 4 SAT 5 SUN 6 MON 7 TUE 8 WED 9 THU 10 FRI 11 SAT 12 SUN 13 MON 14 TUE 15 WED 16 THU

- 김종규 회화전시
- 민경아 독주회 / 이경숙 독창회 / 의정부 예술의전당 소극장 / 오후 3시~4시
- 2003년 전국희롤미술대전 시상식 /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 오후 3시~5시
- *알렘 수채화 정기전
2003년 9월 3일~10월 7일
경기문화재단 전시실
- 제5기 의정부 열린아카데미 / 의정부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 / 오전 10시30분~12시
- 진소윤 / 조미경 독주회 / 의정부 예술의전당 소극장 / 오후 5시~7시30분
- 김건모 콘서트 /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10 · 11일 : 오후 7시 12일 : 오후 3시
- 화성을 빛낸 조선의 명필(한신대학교) / 경기문화재단 전시실
- 업싸군! 우리가락 우리노래(국립국악관현악단) /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 / 오후 7시
- Cyrano de Bergerac /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 오후 7시
- 재즈 '이정식과 나윤선의 재즈그리기' /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 / 오후 8시

# KIJEON CULTURE & ART Calendar

* 본 프로그램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습니다.

17 WED 18 THU 19 FRI 20 SAT 21 SUN 22 MON 23 TUE 24 WED 25 THU 26 FRI 27 SAT 28 SUN 29 MON 30 TUE

- 아동문학 초대석 / 부천 복사골 문화센터 5층 세미나실(514호) / 오전 10시~12시
- 현대무용 Over the rainbow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4시30분, 7시30분
- 협성대학교 제2회 작곡 정기연주회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7시30분
- 경기도 합오케스트라 기획공연 '리듬앙상블'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7시30분
- 경기도립국악단 제45회 정기공연 '대학생 협연의 밤'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7시30분
- 경기도립국악단 토요상설국악공연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5시
- 세계희귀악기 연주여행 '예림 뮤직 페스티발'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7시30분
- 제5기 의정부열린아카데미 /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 오전 10시30분~12시
- 가을에세이 한내 / 의정부 예술의전당 소극장 / 오후 7시
- 2003년 한 · 일학생 미술작품 교류전시회 개최 / 경기문화재단 전시실
- 이현우 콘서트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4시, 7시30분
- 한국무용 '나비의 장' /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 / 오후7시
- 제2회 경기도 학생예능종합 발표회 /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 오전 10시30분~오후6시
- 기획공연(해설이 있는 음악회) / 경기문화재단 다산홀
- 가을정기연주회 /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 오후 7시30분
- 문화사랑 토요음악회 재즈 "주위를 에워싸는 숨결" /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2층 문화사랑
- 경기도립합스오케스트라 제50회 정기연주회 클래식의 향연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7시30분
- 경기심어즈 소사이어티 제3회 정기공연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7시30분
- 제28회 의정부 회룡 한국무용제 전국대회 /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 오전 10시30분~12시
- 수원시립교향악단 제40회 정기연주회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오후 7시30분
- 심우만돌린 오케스트라 연주회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오후 7시30분

17 FRI 18 SAT 19 SUN 20 MON 21 TUE 22 WED 23 THU 24 FRI 25 SAT 26 SUN 27 MON 28 TUE 29 WED 30 THU 31 FRI

- 2003년 전국회룡미술대전 작품전시
- 제25회 전국대학 연극제 / 의정부 예술의전당 소극장
- 국제라이온스협회 354지사지구 자선음악회 /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 오후 7시
- 박지애 피아노 독주회 / 주성연 독창회 / 의정부 예술의전당 소극장 / 오후 4시, 7시 30분
- 제2회 정기연주회 Joyful Singers /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 오후 7시
- 제25회 전국대학 연극제 / 의정부 예술의전당 소극장
-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 / 오후 8시
- 의정부 시민을 위한 경기소리 큰잔치 / 의정부 예술의전당 소극장 / 오후 7시
- BeSeTo 심포지엄 /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 오후 1시~5시
- 김정민 작품 발표회 / 소프라노 윤혜자 독창회 / 의정부 예술의전당 소극장 / 오후 4시, 7시
- 재단 기획전시 / 경기문화재단 전시실
- 패왕별희 /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 오후 4시
- 제주댄스' 컨템퍼러리 제주' / 부천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 / 오후 8시
- '사월에 음악회' 의정부 예총 /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 오후 7시
- 제24회 경기종합예술제 / 수원성 사진 전시회 / 경기문화재단 전시실
- 의정부시 화교소학교 미술전시회
- 토요문화살롱 '무제한 국악콘서트' 국악실내악단 라인 / 의정부 예술의전당 소극장 / 오후 4시
- 제5기 의정부 열린아카데미 / 의정부 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 / 오전 10시30분~12시
- 제1회 가곡의 밤 합희정의 음악세상 / 의정부 예술의전당 대극장 / 오후 7시30분

과천시민회관

## 발레에 대한 쉬운 이해와 감상 「재미있는 발레」

재미있는 발레는 발레를 단순히 감상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다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기획이 돋보인다. 서울발레시어터의 이번 공연은 대중적인 기호에 맞춰 쉽고 편안하게 감상할 수 있는 작품으로 구성되었으며, 작품을 만든 안무가의 의도와 감상포인트 등 적절한 해설이 곁들어져 있다. 또한 클래식 발레에서 자주 사용되는 기본적인 마임을 배워봄으로서 공연의 이해를 돕고, 실제로 활용할 수 있는 간단한 스트레칭 동작을 따라하는 기회도 제공된다.

「재미있는 발레」 9월 공연 일정
1. 제임스 전 TV방영 비디오 보여주기
2.「앨리스」 중 여우와 병아리 장면
3.「백조의 호수」 중 네 마리 백조 비디오 감상(모던과 클래식 비교)
4.「Stories Behind The Doors」/허용순 작품
5. 조용필 콘서트 중에서
- 공 연 명 : 재미있는 발레
- 날　　짜 : 3월 5일 / 12월 3일(매월 첫번째 수요일)
- 시　　간 : 오후 7시 30분 매월

☐ 앨리스 중 여우와 병아리 장면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원작의 내용에 충실하면서 각 면의 해석은 과거와 현재 그리고 환상의 세계를 넘나들며, 어린이에게는 무한한 상상력을, 어른들에게는 과거의 동심을 회상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으로 그 중 여우와 병아리 장면.

- 안무: 제임스 전/음악: Stravinsky, Handle, Berstein 外

☐ Stories behind the doors

내 삶을 돌아보면 같은 길을 걸어온 3명의 소중한 친구가 있다. 같이 무용을 시작하고 유학을 갔으며, 아직까지도 발레와 인연을 맺고있는 내 삶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들이다. Stories behind the doors는 문훈숙, 김인희, 이인경, 그리고 나의 모습을 형상화한 작품이다.

- 안무: 허용순/음악: Vivaldi (Four Seasons), Karl Jenkins (Palladio)

부천시민회관

##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

베로나를 배경으로 펼쳐지는 두 원수 가문 자녀의 열정적이고 비극적인 사랑을 다룬 셰익스피어의 고전 〈로미오와 줄리엣〉을 뮤지컬로 작품화 했다. 서울예술단이 제작한 뮤지컬 〈로미오와 줄리엣〉은 셰익스피어의 주옥같은 대사들과 체코 작곡가 데니악 바르탁의 감미로운 음악, 제임스 전이 안무한 감각적인 춤, 신인 배우들의 풋풋하고 애절한 연기가 어우러져 있다. 지난해 초연 시 객석 점유율 97%를 기록하고 올해

뮤지컬 대상 시상식에서 최우수 작품상 등 주요 5개 부문을 휩쓸며 대중적인 재미과 작품성을 동시에 인정 받았다. 특히 순수하고 사랑스러운 로미오와 줄리엣, 민영기와 조정은의 열연을 보는 것은 이 공연 감상의 백미이다.

- 일시: 2003년 10월 23일(목)~24일(금) 오후 8시
- 장소: 부천 시민회관 대공연장
- 입장권: R석 2만원 / S석 1만 5천원 / A석 1만원

## 발레 「백조의 호수」

안타깝고 슬픈 사랑 이야기, 유려한 차이코프스키의 음악, 가녀리고 우아한 백조들의 춤사위로 한국인들로부터 가장 사랑 받는 클래식 발레 〈백조의 호수〉가 올 가을 부천문화재단 시즌제의 개막작으로 부천을 찾는다. 부천 최초의 발레 전막 공연으로 기록되어 더욱 의미가 깊을 이번 국립 발레단의 〈백조의 호수〉는 러시아 발레의 살아있는 신화 유리 그리가로비치가 안무한 볼쇼이 버전. 여기에 간판 스타 김주원을 위시한 국립발레단의 완벽한 몸짓이 더해져 그 어느 공연보다 더욱 격정적이고 희망적인 〈백조의 호수〉를 완성한다.

- 일시: 2003년 9월 4일(목)~9월 5일(금) 오후 8시
- 장소: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
- 입장권: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 국립관현악단 「얼싸구! 우리가락 우리노래」

우리 민족의 소리 국악을 세대와 장르를 넘어 친근하고 재미있게 접할 수 있도록 만든 작품. 국립국악관현악단이 준비한 이번 공연에서는 이용탁, 백대웅 등의 국악작곡가들이 참여한 창작 관현악곡을 비롯해 피리연주가 박경현, 변화무쌍한 실험정신과 탁월한 목소리를 가진 청년음악가 김용우 등의 화려한 무대가 펼쳐진다. 또한

전주대사습놀이 등의 국악대회에서 장원을 휩쓴 국악계 유망주들로 구성된 전통 타악그룹 야단법석의 신명나는 타악뮤지컬 '야단법석' 도 소개된다.

- 일시: 2003년 10월 11일(토) 오후 7시
- 장소: 부천시민회관 대공연장
- 입장권: R석 3만원 / S석 2만원 / A석 1만원

## 한국무용 「나비의 잠」

1987년 창단된 후 활발한 활동과 후생 양성을 통해 부천시의 대표적인 무용단으로 자리잡은 오은령 무용단이 이번 부천문화재단 시즌제에서 선보이는 창작물. 김성자 시인의 동명시를 바탕으로 한 이 작품은 모진 겨울과 고치의 껍질을 이겨내고 나온 나비의 힘찬 날개짓을 통해 희망과 비상이라는 긍정적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다.

- 일시: 2003년 9월 20일(토) 오후 7시
- 장소: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
- 입장권: R석 1만 5천원 / S석 1만 2천원

## 재즈 「이정식과 나윤선의 재즈그리기」

순수 국내파 토종 연주가로서 세계의 재즈무대를 누비는 색소폰 연주의 대가 이정식. 유럽에서 정상급 아티스트로 인정받으며 정통 유럽식 재즈를 선보이는 보컬 나윤선. 여기에 감미로운 목소리의 주인공, 유열이 초대 가수로 참여하여 가을밤의 운치를 한층 더한다.

- 일시: 2003년 10월 16일(목) 오후 8시
- 장소: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
- 입장권: R석 2만원 / S석 1만 5천원

## 재즈댄스 「컨템퍼러리 재즈」

컨템퍼러리와 재즈의 결합이라는 새로운 시도로 무용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겨준 아시아 유일의 컨템퍼러리 재즈 무용단 포즈 댄스 시어터! 이번에 선보여질 세 작품 〈아미추〉, 〈PAUSE #101〉, 〈PAUSE #201〉는 안무가 우현영의 창조적인 상상력으로 성(性)정체성, 여성 문제, 기계화 등 현대 사회의 다양한 화두를 그려낸 소품들이다. 획기적인 이야기, 자유롭고 세련된 표현, 역동적인 몸짓으로 뜨겁게 무대를 달굴 포즈댄스시어터의 재즈 댄스 하이라이트 공연.

- 일시: 2003년 10월 29일(수) 오후 8시
- 장소: 복사골문화센터 아트홀
- 입장권: R석 1만 5천원 / S석 1만 2천원

경기도문화예술회관

## 경기도립국악단 「대학생 협연의 밤」

경기도립국악단 '대학생 협연의 밤'경기도립국악단이 매년 선보이고 있는 대학생 협연의 밤 공연으로 국악계를 이끌어갈 유능한 국악 학도들을 발굴함과 더불어 참신하고 신선한 연주를 선사하는 무대로 9월 24일부터 25일 이틀간 열린다. 이준호, 공우영이 지휘를 맡았고, 김죽파류 가야금 산조(가야금/ 천은경(단국대3)), 서도민요 자진아리, 연평도 난봉가(민요 / 오세정(중앙대4))등을 비롯 아리 랑(가야금 / 이현희(중앙대4)), 서용석류 피리산조(피리 / 박지현(이화여대3)), 달 무 리(거문고 / 박우재(한예종4)) 등이 연주한다.

- 9월24일(수)~25일(목) 오후7시30분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관람료 A석8천원, B석5천원

## 경기도립국악단 「토요상설국악공연」

경기도립국악단 토요상설국악공연

토요상설국악공연은 전통음악 · 민요 · 우리춤 등 매 공연마다 다양한 장르의 프로그램으로 공연된다. 9월 6일은 조선왕조 역대 제왕의 신위를 모신 사당 종묘에서 제사를 지낼 때 사용되었던 음악, 노래, 춤인 종묘제례악 중 '소무 · 독경 · 영관'을 시작으로 피리산조, 가곡, 소고춤 등으로 구성됐다. 9월20일에는 행진 악인 대취타를 관현합주로 편성한 궁중음악인 취타와 대금산조, 봉산탈춤, 민요 등 서보인다.

- 2003년9월6일 / 20일(토) 오후5시
- 경기도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
- 관람료 2천원

# 편집후기

편집실에서

## 참신한 아이디어를 전해 주십시오

통권 27호를 맞고 있는 격월간「기전문화예술」이 새롭게 변화될 2004년도 편집기획과 관련해 참신한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문화예술 잡지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연중 기획시리즈나, 소개됐으면 하는 인물, 단체 등 소재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크게 순수 문화예술 진흥과 경기문화의 정체성 찾기, 문화예술 정책 등 3분야 등에 독자들의 많은 관심 바랍니다. 채택된 제안자에 대해서는 저희 기전문화예술 1년 정기구독권과 편집실에서 별도로 준비한 기념품(전통적 기념품)을 증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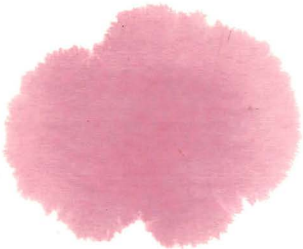
기 간: 2003년 9월 1~ 10월 31까지 / 문 의: 편집실 담당자(031)231~8521(2)

## 가을지나 추운 겨울이 오면

여름이 저만치 간다. 지독(?)하게, 유난스럽게도 비(雨)가 많이 왔다.
하고픈 말이 뭐 그리 많다고 그 토록 토(吐)해 냈나 싶기도 하다.
맑은 가을하늘을 보여주려는 '여름아이'의 배려쯤으로 이해해 보면 어떨까.
그래서 올 가을은 그 어느 계절보다 푸르름으로, 풍성한 결실을 이룰 수 있을 거라고...

결실의 계절 가을이 왔다. 길가에 코스모스도 한창이다.
꽃으로 치자면 만개(滿開)로 이야기 할 수 있겠다. 만개는 역설적으로 '떨어짐', '꽃이 짐'을 뜻하기도 한다.
혹자는 꽃 봉오리 질 때 죽음이 생각난다라는 심한 표현을 쓰기도 한다.
곧 만개한 꽃이 떨어질 거라는 이야기다. 하지만 그 슬픔과 체념은 버려야 할 망상이다.
이보다 더 추운 겨울을 대비할 시간이 부족한지라 더욱 그렇다.
그래서 이 풍성한 가을은 슬픔이 아니라 기쁨이어야 한다.
가을이 왔다고 너무 좋아할 일도, 꽃이 진다고 슬퍼할 일도 아니다.
지는 꽃을 아름답게 여길 때다.

곧 추운 겨울이 올 것이다.
잎새 하나 남아있지 않을 삭막한 겨울이 온다.
그 때를 대비하자.
보다 품격있는「기전문화예술」로의 변화는 그래서 이 가을부터 시작될 것이다.
이 가을은 아름다운 계절이어야 한다.
**"이제는 지는 꽃이 아름답구나/언제나 너는 오지 않고 가고/눈물도 없는 강가에 서면/이제는 지는 꽃도 눈부시구나..중략"**
〈시인 정호승님의/가을꽃 中〉 〈硯〉



경기문화재단
Kyonggi Cultural Foundation

예술 /2004년 5 · 6월호/등록번호 경기 바-00057(1998. 6. 3)/2004년 5월 1일 발행/기타간행물 인가/발행인 손학규/편집인 송태호/발행처 경기문화재단/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 1116-1/전화번호 231-8521~2/정가 6,000원